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 연구

2000. 10. 30

총괄책임자 : 최 경 란
참여기관 : (주) 한샘
위탁기관 : (주) ISM
 (주) 동신공예
위촉연구원 : Keiich Sato
선임연구원 : 차 승 미
 " : 차 승 화
 " : 최 정 아
 " : 윤 선 영
연구원 : 이 진 관
 " : 백 지 원
 " : 권 미 연
위탁연구원 : 하 한 수
 " : 최 익 창

목차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3절 추진과정 및 추진전략

6

제 2 장 조선조 가구디자인 우수성의 이해

제1절 선행연구 분류 및 분석

9

제2절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배경

16

제3절 조선조 가구의 분류체계 및 특성분석

31

제4절 조선조 가구의 상대적 특성

70

제 3 장 조선조 가구 우수성의 현대적 활용방안

제1절 조선조 가구의 활용현황 분석

82

제2절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

85

제 4 장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DB

제1절	자료의	성격
97		
제2절	DB	응용 사례
101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성과
109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제안
111

참고자료

별첨 DB검색 사례화면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 3 절 추진 과정 및 추진전략

1. 추진과정
2. 추진프로세스

제 2 장 조선조 가구 디자인의 이해

제 1 절 선행연구 분류 및 분석

1. 선행연구 분류

- 가. 가구관련 선행연구 분류
- 나. 주거·건축 관련 선행연구 분류
- 다. 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체계

2. 선행연구 분석

- 가. 가구의 문화적 이해 관련연구
 - (1) 가구사 및 가구 관련연구
 - (2) 한·중·일 3국의 전통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 (3) 한·중·일 3국의 문화사에 관한 연구
- 나. 가구의 유형비교 관련연구
 - (1) 인문·사회과학의 비교연구방법
 - (2)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의 비교연구
- 다. 현대적 활용 관련연구

제 2 절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배경

1. 전통주거환경

가. 자연환경

- (1) 경제
- (2) 지배계급

나. 조선의 사상과 주거문화

- (1) 유교
- (2) 가족제도
- (3) 풍수사상

2. 전통 주거공간: 사대부가의 공간구성

가. 대문간과 행랑채

나. 사랑채

다. 안채

3.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특성

가.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배경과 특성

- (1) 주거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구조의 견실성
- (2) 주거공간의 영향으로 인한 미적 표현의 이중성

제 3 절 조선조 가구의 분류체계 및 특성분석

가. 사용자 행위패턴(User Pattern)에 따른 분류 체계

나. 사용자 행위패턴에 따른 조선조가구의 분류

다. 조선조 가구의 유형특성 분석

제 4 절 조선조 가구의 상대적 특성

1. 조선조 가구의 유형 특성비교

가. 한국 전통가구의 문화적 특성

나. 중국 전통가구의 문화적 특성

다. 일본 전통가구의 문화적 특성

라. 한·중·일 전통가구의 문화적 특성비교

2. 조선조 가구의 조형특성 비교

- 가. A. 유형(Put things in)의 이미지맵
- 나. B. 유형(Put things in & on)의 이미지맵
- 다. C. 유형(Put things on)의 이미지맵
- 라. D. 유형(Seating, Reclining, Lying)의 이미지맵
- 마. 조형 특성 비교를 통한 한국전통가구의 특성

제 3 장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방안

제 1 절 조선조 가구의 활용현황 분석

- 1. 국내 가구업체 현황
 - 가. 제품개발 현황 설문 조사
 - 나. 설문조사 결과
 - 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 가구시장 동향 분석
- 3. 경쟁력 분석

제 2절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

- 1. 전통의 현대적 활용방법 모색
- 2. 가구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현대적 활용방안
 - 가.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방안 추출

나.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

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모델의 단계별 적용

- (1) 제 1 단계: 이해단계 (Knowledge Phase)
- (2) 제 2 단계: 규명단계 (Verbal Identification Phase)
- (3) 제 3 단계: 해석단계 (Visual Interpretation Phase)
- (4) 제 4 단계: 전환단계 (Tangible Transformation Phase)
- (5) 제 5 단계: 적용단계 (Production Phase)
- (6) 제 6 단계: 대화단계 (User Interface)

제 4 장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DB

제 1 절 자료의 성격

1. DB Structure
 - 가. 일반정보 검색
 - 나. 세부요소 검색
 - 다. 활용자료 검색
2. DB System 구성 및 설계구현

제 2 절 DB 활용 사례

1. 5단계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사례: Morning Clam I, II, III 개발
2.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사례: 소파 개발
3.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사례: 베루스 침대 및 수납장 개발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성과

제 2 절 향후 연구 방향 제안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기술공유로 상품의 변별력이 디자인에 의존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경제 성공의 주역인 디자인 진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구산업은 첨단산업인 전자, 반도체, 자동차산업에 비해 기술투자비용이나 생산라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디자인 투자에 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점을 가진다. 문화 지향적 산업인 가구산업은 첨단 산업에 비해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디자인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단기간에도 급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가구산업은 국가 경제의 이윤추구의 역할 뿐 아니라 노동집약적 성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중소기업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고 노동 수요가 커지므로 대기업 중심의 기형적 산업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으며 또한 가구란 아이디어만으로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경제 활성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자생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상품가치와 생활용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문화적 상징 체로서의 가구산업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21세기 문화시대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구산업은 신정부의 10대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지식산업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례로 이태리의 경우 이러한 가구산업의 특성을 살려 주요 문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WTO 체제 출범 후 세계의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산업구조가 하드웨어 중심의 재화생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식산업으로 변환되면서 문화적 자원은 무역거래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화가 문화산업의 수준에서 문화경제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화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가구 산업의 경쟁력은 디자인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에 의존해 왔다. 이런 가구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구디자인의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21세기 상품으로 문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구산업을 만들기 위해 타문화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한국가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동양적 세계관을 전환되면서 동양전통문화의 가치가 제고됨에 따라 한국 가구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구의 문화적 정체성 창출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가구 산업계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가구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 선행 연구의 경향을 분석해본 결과 전통의 모사, 전통의 양식화와 응용, 전통제품의 기능성과 현대생활에의 응용, 한국적 디자인과 시대적 전통 등 전통을 디자인에 접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회성으로 끝나 산업의 자원화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분야별 디자인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산업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자원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이 가구 산업의 전체 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매우 효용성이 높은 연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의 자원화를 위한 기초 선행 연구를 통해 조선조 가구디자인이 한국 전통가구의 대표적 맥으로 이어져 내려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통가구 문화자원화의 큰 맥을 먼저 형성하기 위해 조선조 가구디자인 우수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과거의 문화적 우수성을 방법적으로 차용하여 미래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가구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여 21세기 세계 가구시장에 한국 디자인의 입지를 다지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조 가구를 현대적 가구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연구 및 조선조 가구의 산업자원화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조 가구디자인에 관한 DB구축 및 현대적 활용 방안 개발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로 규정하였다. 이제까지 한국의 전통 가구에 관련된 연구물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조 가구디자인은 우리 가구의 전통적 맥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조선조 가구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각각의 학술자료들은 훌륭하여도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대중적인 정보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많은 지식정보들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산재된 조선조 가구디자인의 우수성에 관한 지식정보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우리 조선조 가구디자인이 내포하고 있는 미적, 기능적 가치가 현대 생활에 폭 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이미지의 가구의 소재와 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디자인 전개이론과 실질적인 전개 방법을 제시하여 실용적으로 가구의 산업체 및 교육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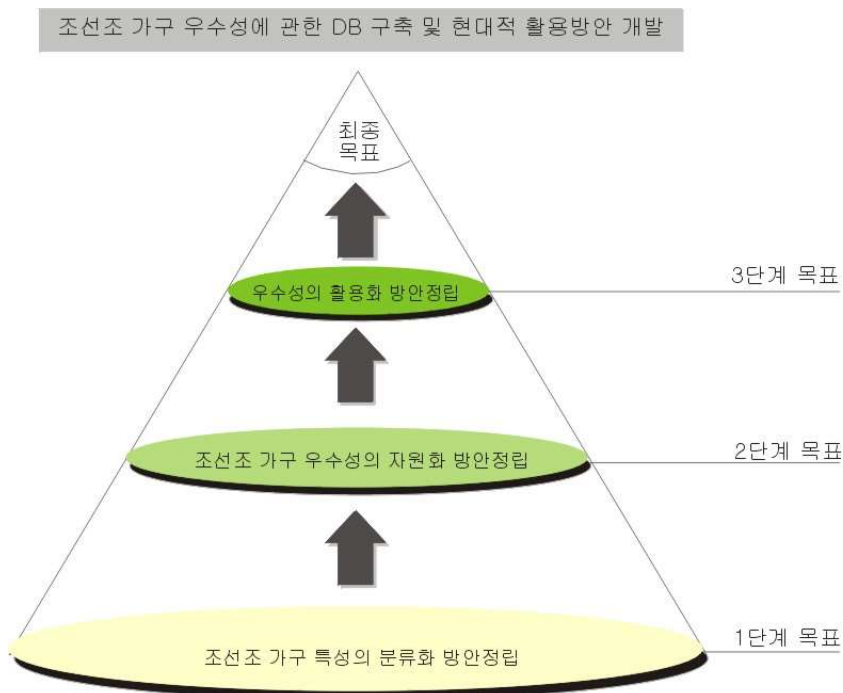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목표와 3단계 추진방안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조선조 가구디자인 우수성의 현대적 활용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조선조 가구디자인이 내포하고 있는 미적·기능적 가치가 현대 생활에 폭 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즉 조선조 가구의 이해와 현대적 활용방법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토대로 조선조 가구를 현대디자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자원화하고 이를 학계와 산업계에서 디자인 개발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DB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범위로 3단계 연구가 진행되었다.(표2 조선조 가구의 연구 범위)

1단계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조선조 가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를 통하여 연구현황을 점검하고, 둘째, 연구 및 DB구축을 위한 조선조 가구의 분류체계를 확립하며 셋째, 조선조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상대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 때 상대적 비교의 대상은 조선의 가구와 동일선상에 있는 중국의 명·청 시대와 일본

의 무로마치, 모모야마, 에도 시대를 전후한 가구로 정하였다. 이시기는 역사적으로 중세와 근세에 해당하며, 비교적 현존하는 가구가 많고,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기 직전의 가구들이어서 각 나라 문화의 정체성이 잘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를 통해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표3 비교대상 연대) 2단계 조선조 가구의 우수성 추출에서는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첫째, 가구시장동향 및 가구업체를 통해 조선조 가구의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현대적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용자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인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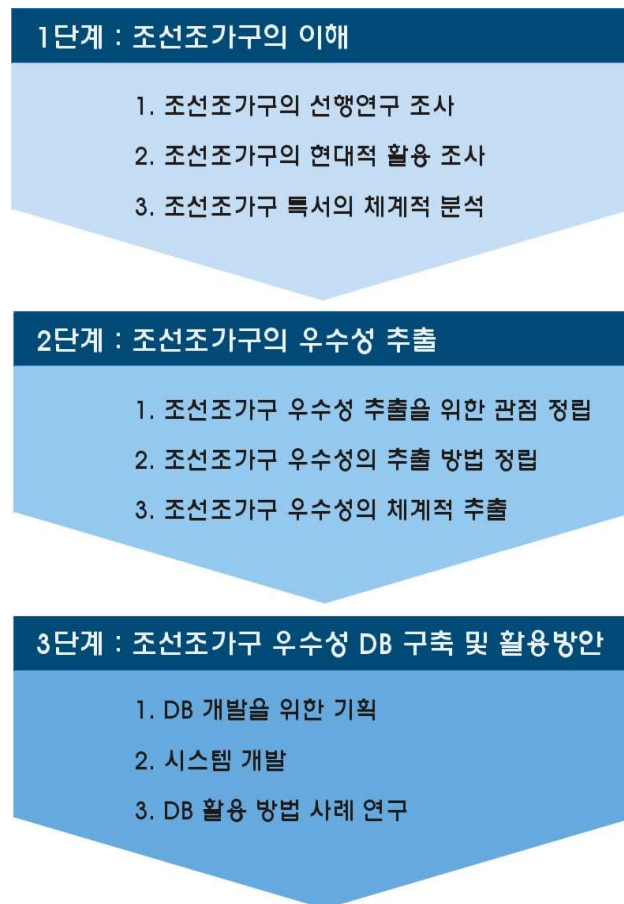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내용 및 범위

3단계 조선조가구 우수성 DB 구축 및 활용방안에서는 조선조 가구의 우수성을 사용자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2단계에서 추출한 디자인 요소로 자원화 하여, 필요에 따라 유형, 세부요소, 활용자료 등의 분류방법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게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개별적 연구를 하나의 맥락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가구는 실내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공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매개체로서 지역과 시대의 고유한 성격을 표출하는 문화적 상징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용자의 물리적,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고려하고자하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User centered design)의 관점을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조 가구의 특성은 조선시대의 자연환경, 사회·경제환경과 주거환경 등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규명될 것이다.

둘째; 조선조 가구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선조 가구의 물리적, 조형적 우수성뿐만이 아니라 형태에 내재된 개념 즉 가치나 생활양식 등의 인텔러블한 요소까지도 디자인 활용요소로 자원화 하고자한다.¹⁾

셋째; 연구의 대상인 가구의 범주는 넓은 의미의 가구(家具; 집에서 사용하는 용구, Furniture and Furnishing)로 규정하였다. 이는 가구라는 용어가 담고있는 내용이 시대와 생활양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21세기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정보화 사회의 물결과 함께 또다시 큰 변모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째, 조선조 가구의 DB는 조선조 가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부터, 학생, 학계 및 가구산업계종사자, 전문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정보와 전문정보가 심층적 구조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중국	홍무제 1368-98	만력제 1572-1620		강희제 1661-1722	건륭제 1735-96		
		명(Ming dynasty, 1368-1644)			청(Qing dynasty, 1616-1912)		중화민국
한국			임진왜란 1627	병자호란 1636	영조 1724-76	정조 ~ 1800	
	조선(Yi-danacity, 1392-1910)						대한제국
일본	요시마사 1449-74	임진왜란 1592-98		모모야마	에도(Edo P., 1600-1868)		메이지
	무로마치(M P., 1392-1573)			야마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표 1 한.중.일 전통가구의 비교시기

1) 사용자와 제품, 시스템, 정보들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인간의 행위패턴, 개인적 습관 및 사회적 관습, 생활양식,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등 간접적이며 인지가 어려운 요소를 인텔러블 요소(intangible force)라 한다. 반면에 직접적이고 측정이 쉬운 특성을 가진 인간요소를 텐져블 요소(tangible factor)라 하는데,. 신체를 편안히 받쳐주는 의자높이 및 등받이의 각도, 가시 거리, 실내 조도 등 물리적 디자인요소와 표식적 디자인요소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제 3 절 추진과정 및 추진전략

1. 추진과정

각 단계별 연구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은 조선조 가구의 우수성 추출에 대한 연구와 DB구축을 큰 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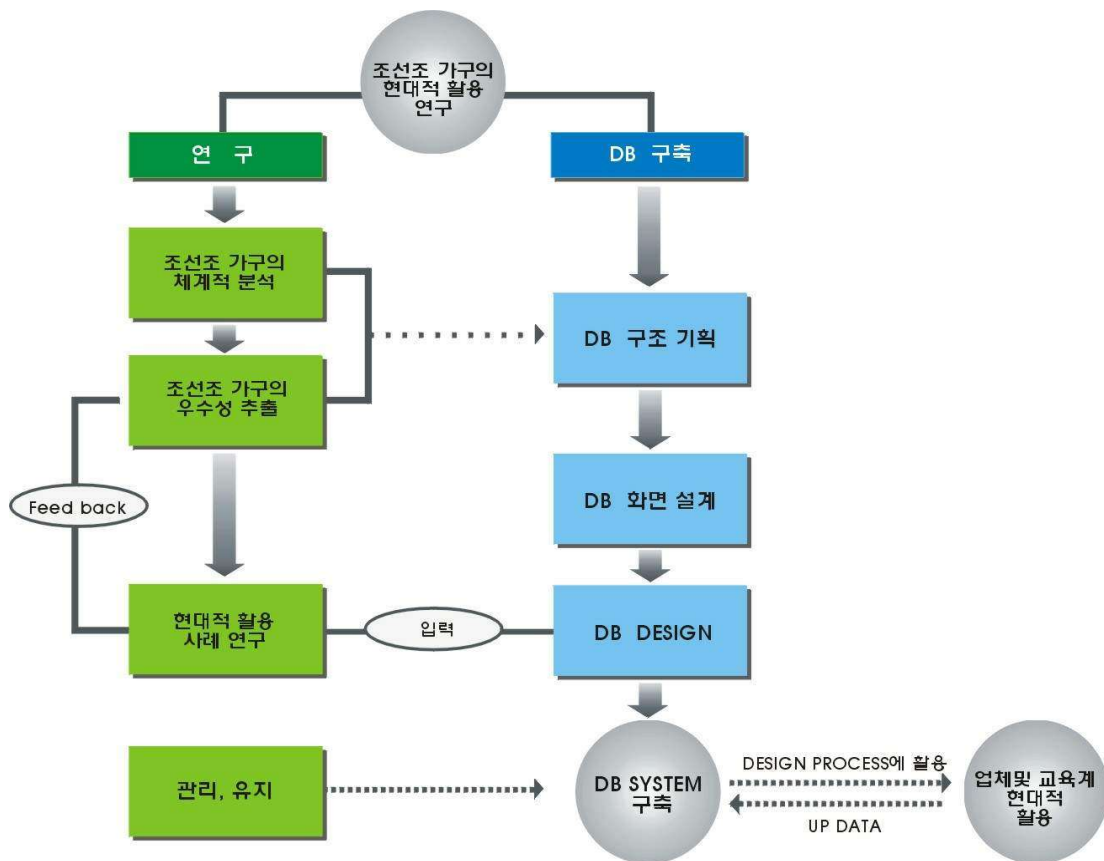


그림3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

2. 추진프로세스

각 단계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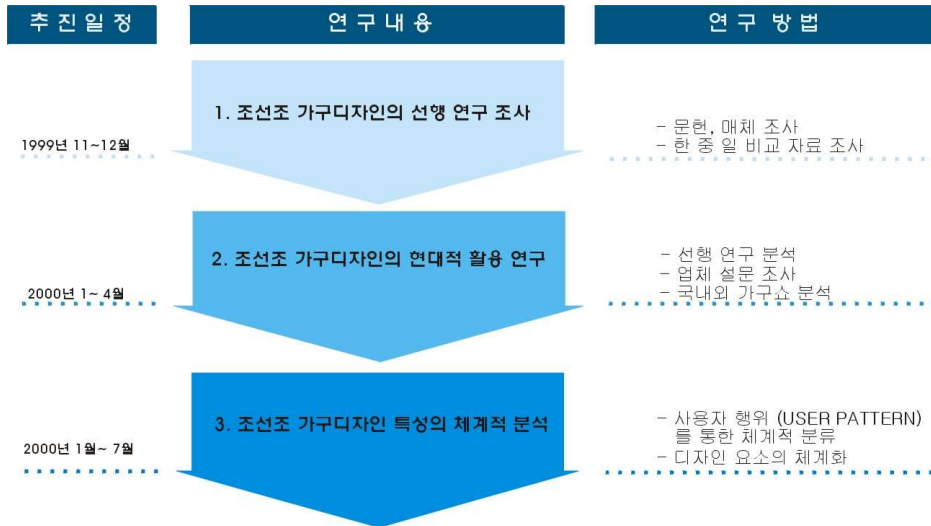


그림 5 1단계



그림 6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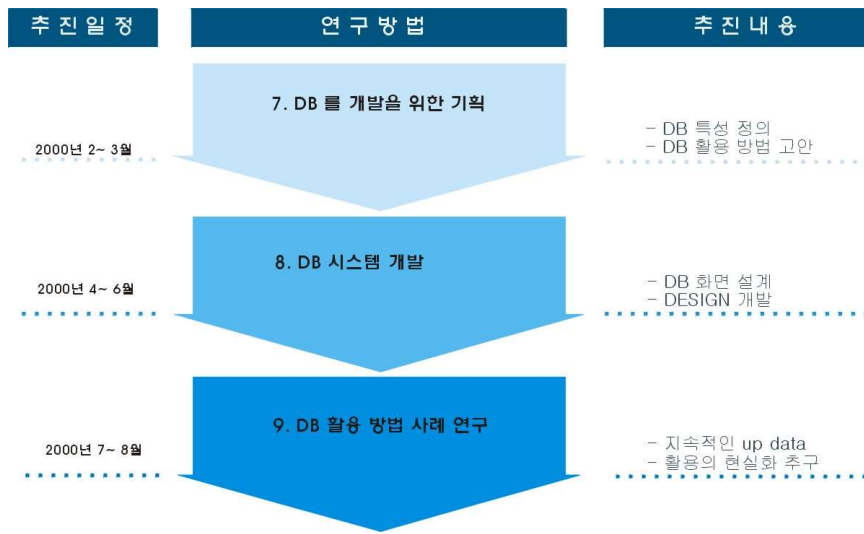


그림 7 3단계

제 1 절 선행연구 분류 및 분석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조사는 조선조 가구와 주거, 건축 및 문화에 관련된 개괄적 연구, 종류별 연구, 의장연구, 조형연구, 현대적 활용 연구, 비교연구의 카테고리별 연구, 의장연구, 조형연구, 현대적 활용 연구, 비교연구의 카테고리별 연구를 가지고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대학 도서관 및 일본문화원, 산업디자인 진흥원 등의 기관과 인터넷의 논문, 국내외 정기간행물기사, 단행본, VT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넷에서는 국립박물관 및 민속박물관, 한국고가구박물관에서 조선조 가구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며, 조선조 가구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중국 및 일본의 가구에 대한 자료는 외국 단행본 및 www.jinjanpan.com, www.chinese-furniture.com 사이트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에 선행연구 현황 분류표 및 관련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선행연구 분류

가. 가구 관련 선행연구 분류

1. 개괄적 연구	0. 총괄 연구 1. 사적(史的) 연구 2. 비교 연구
2. 종류별 연구	1. 공간별.용도별 연구 2. 제품별 연구 3. 재료별 연구
3. 구조 및 기법 연구	1. 구조 연구 2. 기법 연구 3. 요소 연구
4. 조형 연구	0. 총괄 연구 1. 문양 연구 2. 장식 연구 3. 색채 연구 4. 비례 연구
5. 현대적 활용 연구	0. 총괄 연구 1. 실태 파악 2. 응용 연구
6. 주택 및 공간과의 관계 연구	0. 총괄 연구
7. 기타 연구	1. 타분야 연구 2. 일 연구

나. 주거.건축 관련 선행연구 분류

-
1. 개괄적 연구
 2. 의장 연구
 3. 현대적 활용 연구
 4. 공간 연구
-

다. 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체계

-
- C1. 개괄적 연구
 - C2. 예술관련 연구
 - C3. 현대적 활용 연구
-

2. 선행연구 분석

가. 가구의 문화적 이해와 관련된 선행연구

가구를 문화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은 가구의 형태와 기능, 재료, 기술, 구조 등의 독자적 특성과 함께 가구가 놓여진 실내·외 공간, 가구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 종교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까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는 이유는 가구를 이루는 제반요소와 이들이 자연환경과 그 시대의 사회환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왜 그러한 가구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는지를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범주는 가구사 및 가구에 관한 연구와 한·중·일 3국의 문화사 및 전통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등이 해당된다.

(1) 가구사 및 가구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전통가구라 하면 주로 조선조 가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구사 역시 대부분 조선조 가구사에 지면을 할애하는데, 배만실의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김삼대자의 논고 「전통 목가구 I-IV」 등이 있다. 한국 전통 가구에 관한 연구는 개괄적 연구, 종류별 연구, 의장연구,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²⁾ 등이 있다.

중국의 가구에 관한 연구는 국내서적으로 미셸 비르틀리의 <중국의 가구와 실내장식>, 학위논문으로 이은주의 「중국가구에 나타난 牙子(풍혈)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개괄적인 연구로 중국가구의 전반적인 요소를 볼 수는 있으나 산만한 단점이 있다. 중국가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학자는 Wang Shixiang 으로 그는 중국가구

2) 강 희수 「조선조 가구중 농에 나타난 의장요소의 분석」 p.11-14

를 양식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후학들의 연구에 지침을 만들었다. 중국가구의 유형을 본 연구의 틀로 분류하면서 그의 서적 『Masterpieces From The Museum of Classical Chinese Furniture』³⁾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외국인 학자로는 Grace Wu Bruce와 Sarah Handler, Curtis Evarts 등이 유명하며, 동아시아국으로서 유일하게 평좌가구에서 입식가구로 전이된 중국가구발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되고 있었다. 요즈음의 중국가구에 대한 연구는 주택양식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중국가구에 대한 내용이 현저하다.

일본의 전통가구에 관한 연구서적으로는 宮内廳의 〈家飾具の歴史〉, 개괄적 Kazuko Koizumi의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Rosy Clarke의 〈Japanese antique furniture〉 등이 있다. 가구사를 다룬 〈家飾具の歴史〉는 가구를 중심으로⁴⁾ 생활공간을 연출한 도구로서의 가식구(家飾具)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받침대, 계열, 상자계열, 칸막이 계열로 나누어 시대변천에 따른 양식의 변천을 논하였다. Kazuko Koizumi 역시 가구를 furnishing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사용공간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풍부한 도판과 함께 설명하였다. 또한 가구의 변천을 시대배경과 건축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 가구사 부분은 일본 가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한.중.일 3국의 전통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주거에 관한 개설서로 대한건축학회의 〈주거론〉이 있으며, 각국의 주거문화에 관한 연구로는 강영환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박영순 외 7인의 공저인 〈우리 옛집 이야기〉, Andrew Boyd의 〈중국의 건축과 도시〉, 손세관의 〈북경의 주택〉, 基敏의 〈그림으로 보는 전통 민가〉, 西和夫의 〈일본 건축사〉, 太田博太郎의 〈일본건축사〉, 稻葉和也, 中山繁信 공저의 〈日本人の すまい(일본인의 주거)〉, Arther Drexler의 〈The architecture of Japan〉 등이 있다. 특히 〈우리 옛 집 이야기〉는 자연환경, 사회.문화환경을 포함한 주거문화 형성배경부터 실내공간의 구성요소 및 가구의 배치에 이르기까지를 평이한 문체로 서술하여 한국의 주거문화 및 가구와 주거양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여서 3장과 4장의 한국 전통주거환경과 전통주택부분에 많은 참조가 되었다. 〈북경의 주택〉은 중국의 전통주택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사합원 양식 중 북경 사합원 주택에 관한 서적으로 중국전통주택의 구성요소 및 가구의 배치에 관해 참조하였고, 두 〈일본건축사〉를 통해 일본의 전통주택인 쇼인조 양식의 형성배경을, 생활양식 및 주택구성요소에 관해서는 마지막 두 권의 서적을 참조하였다.

3) Wang Shixiang, Lark E. Mason Jr., and others, 『Masterpieces From The Museum of Classical Chinese Furniture』, 1995

4)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Kodansha, 1986

(3) 한.중.일 3국의 문화사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의 문화적 배경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의 개설서로 평가받는 존 페어뱅크, 에드윈 라이샤워, 앨버트 크레이크 공저의 <동양문화사>와 신용철, 이근화, 오일환 공저의 <한국문화와 동양세계> 등을 참조하였으며, 이에나가 사부로와 <일본 문화사> 및 박경희 역의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를 통해 부족한 일본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자료를 보충할 수 있었고,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의 객관적 부분에 관해서는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을 활용하였다.

나. 가구의 유형 비교와 관련된 선행연구

조선조 가구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인문.사회과학의 비교연구방법과 건축 및 디자인분야에서의 비교연구, 디자인 방법론연구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1) 인문 .사회과학의 비교연구방법

서울대의 비교문화연구소의 학술지 <비교문화연구>에서 김용학은 사회학의 일반적인 비교방법으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비교사의 방법으로 나누어 각 방법의 절차와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 중 질적 방법은 신뢰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방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론으로 여겨진다.

질적 방법론을 동원하는 연구자는 객관화 된 이념형을 구축한다. 이 이념형은... 비교의 준거 기준으로 사용된다. 즉 이념형은 이념형들 끼리 비교하거나, 이념형적 행동유형과 각 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행위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구축된다. 예를 들어, 사과와 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먼저 과일이라는 이념형을 구축하고, 사과와 귤을 과일이라는 준거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5)

(2) 건축 및 디자인분야에서의 비교연구

이 범주의 선행연구로는 박경옥의 「일제시대 일식주택의 변용을 통해본 주양식의 한일 비교연구」와 박영순, 안지윤의 「한국과 일본 전통 주택의 조형성에 대한 의식조사」, 이지은의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에 의한 환경디자인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한.중.일 3국의 전통 주거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이순희의 「한국과 중국의 전통가구 양식의 비교 -14c~19c 중심으로-」, 성연근의 「동서양의 가구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등이 있다.

박경옥의 연구는 현지조사방법과 질적, 양적분석 방법을 통해 일식주택의 변용을 분석, 주택의 물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 그

5) 김용학 「사회학의 비교연구방법」 <비교문화연구 제2호>, 일신사(1995), p.126

결과 일식주택은 한국인 거주이후 접객중심의 자시끼 평면에서 가족중심의 안방생활형의 평면으로 재구성됨을 보여준다. 박영순과 안지운의 연구는 의미분별척도법을 이용하여 한.일 전통주택을 표현하는 어휘로 질서성, 정서성, 심미성, 공간성...등을 추출하고 한.일 전통주택의 외관과 실내, 가구를 표현하는 어휘를 서로 비교하였다. 이지은의 연구는 한.중.일 전통주거환경의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적 특성을 개념언어와 실제 구성요소를 추출 이를 가상공간에 적용, 이미지화하였다. 이순희의 「한국과 중국의 전통가구 양식의 비교」는 자연환경과 시대배경, 가구의 특성들을 비교, 그 차이를 밝히고 있으나 이들 차이가 한국과 중국 가구의 총체적 특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설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전통가구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 개략적 특성을 비교한 연후에 조형특성에 대해서는 이미지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다. 현대적 활용연구

본 연구의 결과가 가구산업과 가구디자인에 실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전통을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여기에는 조선조 가구의 특성을 어떻게 현대디자인요소로 구체화 할 것인가 라는 방법론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된다. 전통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의 표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구	서명	연구자	발행처	발행년 도	연구업적
5-0	전통가구의 현대적 계승의미와 방향	박영규	인테리어	1988	한국전통가구를 계승하는 방법론으로 칫재, 외형과 용도는 옛것을 쓰되 재료를 현대화하는 것. 둘째, 외형은 옛것이며 재질과 용도를 현대화하는 것. 셋째, 전통가구의 비례미를 현대디자인에 응용하는 것을 제안함.
5-0	전통가구의 이미지를 도입한 현대가구의 창조적 접근방법에 관한연구	한영호 권소현	대한가정 학회지 67('86.12)	1986	NM-H형의 이론에 입각해 디자인 개념의 이미지를 시각화 시키는 디자인 과정을 제시하였다.
5-1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한국 전통가구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김혜은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7	현대와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공간특성을 고찰하고 실제 현대 공간내에서 전통가구 활용현황 조사를 통해 전통가구 활용의 문제점을 미적인 조화의 측면이라고 봄
5-2	조선조 목가구의 절구법을 응용한 목조형 가구 디자인 연구	소혜령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7	조선조 목가구의 특징인 짜임새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파악하여 형태적 기능과 조형적 짜임새가 있는 목재 가구를 디자인하여 개발하고자 함

5-2	조선조 목재가구의 조형적 이미지를 응용한 가구 디자인 연구	소영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7	조선조 목가구의 선적 조형미를 살린 가구디자인 전개
5-2	조선조 반닫이의 현대화 디자인 연구	남경이	홍익대 석사논문	1994	전통가구의 현대화의 한 방향으로 전통 반닫이를 다도생활에 필요한 수납가구로서의 재디자인 시도
5-2	한국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통한 실내디자인적 적용	고성호	인테리어	1998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에 부합하는 한국전통사상을 표출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 확립의 중요성 거론
5-2	신구의 대위법적 반향	이진민	인테리어	1998	전통속에 내재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리노베이션을 한정식점의 사례를 통해 고찰
5-2	구름문을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김학민	홍익대 석사논문	1993	전통문양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중에서 운문이 적용된 가구를 중심으로 고찰한 뒤, 운문을 적용한 가구디자인을 전개
5-2	한국 전통적 특성을 활용한 아파트 실내계획	김행자	홍익대 석사논문	1987	한국인의 평좌생활 양식에 맞는 전통가구를 활용하되 크기와 기능등을 현대적 방식으로 변화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5-2	조선조 의걸이장을 이용한 의걸디자인에 관한 연구	손용기	홍익대 석사논문	1993	의걸이장과 현대옷장을 비교하고 의걸이장의 현대화 가능성을 모색
5-0	근대이후 한국가구의 양식변천에 관한 연구	신영식	홍익대 석사논문	1990	개항기 이후 19080년대까지 5기로 분류하여 시대의 배경과 가구양식을 사진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정리
5-1	고가구에 대한 인식도 및 현대적 사용실태 조사 연구	조기연 박영순	대한가정학회지 25권 1호	1987	고가구의 현대적 사용실태를 열거, 전통가구의 활용방안 모색
5-1	현대 생활에서 고가구의 용도 분류와 고가구 관심도 조사연구	최목화		1979	오늘날 고가구의 사용현황 및 고가구의 관심도를 설문조사
5-2	운문 활용한 소품가구디자인 연구	신동준	청주대 석사논문	1992	전통문양 중 운문의 종류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가구디자인에 적용하였다.
5-2	장식문양의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이문경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7	장식문양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해독하여 디자인
5-2	조각보 문양을 이용한 가구 디자인 연구	공혜원	홍익대 석사논문	1992	조각보의 면분활방식을 적용한 가구디자인 전개
5-2	조선조 반닫이의 현대화 디자인 연구	남경이	홍익대 석사논문	1994	반닫이의 다구전용 수납장이라는 기능을 첨가하여 현대화 방안 제안

5-2	창살문양을 이용한 장식장 연구	김정목	한남대 석사논문	1996	꽃창살 문양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새롭게 도입하여 디자인하였다.
5-2	한국 고건축양식을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박신영	홍익대 석사논문	1996	한국 고건축의 목재 결구법을 적용한 가구디자인
5-2	한국의 전통의 미를 적용한 현대 거실가구	김유순	홍익대 석사학위	1985	사방탁자와 문갑의 조형미를 살린 거실가구 디자인
5-2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연구	민경우	산업자원부	1997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한국디자인의 전개방향에 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점검하였다.

표 6 현대적 활용연구 분석표

조선조 가구 우수성에 관한 DB구축과 현대적 활용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조선조가구 및 주거문화관련 선행연구들을 수집,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특히 현대적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분석해본 결과 전통의 모사, 전통의 양식화와 응용, 한국적 디자인의 시대적 전통 등, 전통을 디자인에 접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조 가구디자인 부분에 관한 적지 않은 양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회성으로 끝나 산업의 자원화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선조 가구디자인 부분에서는 현대적 가구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조선조 가구디자인의 우수성을 규정한 것이 없고 또한 가구산업 현장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선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선조 가구디자인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현재를 위한 자원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자원화, 그리고 활용에 이르는 모델제시가 필요한 시기이며, 본 연구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 2 절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배경

가구는 실내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공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매개체로서 지역과 시대의 고유한 성격을 표출하는 문화적 결과물이다. 따라서 특정시대, 특정지역 가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와 지역의 주거환경 및 주거공간 등 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선행연구를 통한 조선시대의 주거환경 및 주거공간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조선조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전통주거환경

가. 자연환경

한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 끝에 돌출된 반도국으로,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대륙에 인접해 있으며, 남쪽은 해협 너머에 일본열도가 바라보이는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육로 또는 수로로 중국과의 왕래가 쉬워 고대로부터 중국 문화가 전파되어 왔고, 대륙 문화는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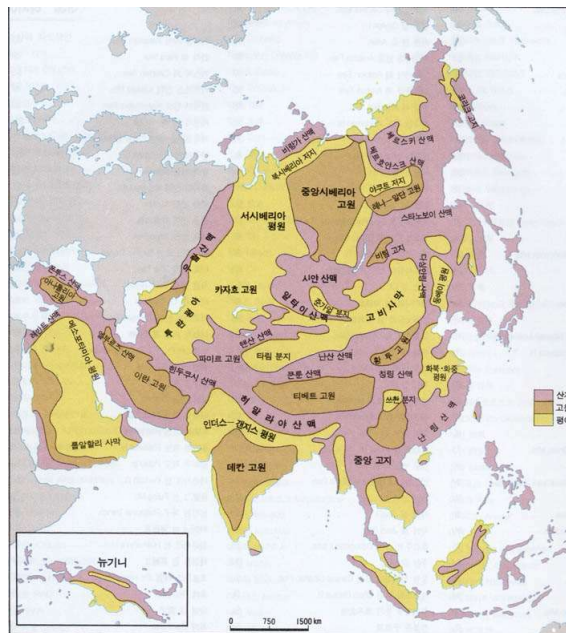


그림 7 자연 지형도, 그림출처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국토는 남북길이 약 1,000km, 동서평균 약 300km의 한반도와 3,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체면적의 1/3은 산지이지만 지질이 노년기의 침식지형이므로 높은 산이 많지 않다. 해발고도 1000m 가 넘는 높은 산은 동부와 북부에 치우쳐 있으며 황해에 가까워질수록 구릉성지형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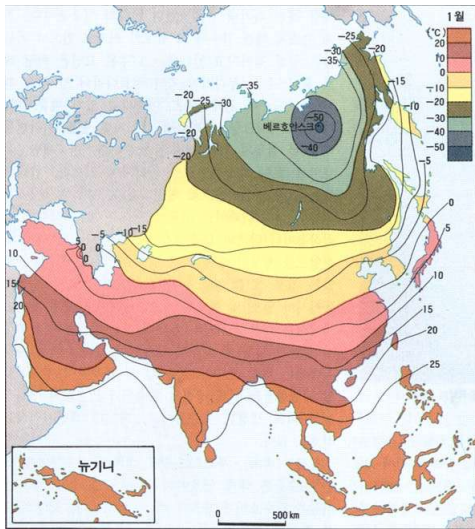


그림 7 동아시아 1월 기후도,
그림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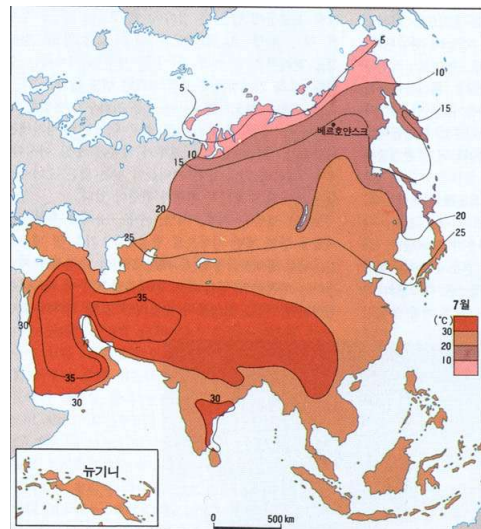


그림 8 동아시아 7월 기후도,
그림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같은 위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연평균기온이 낮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기후를 가지며 온대기후지역이면서 아시아 계절풍지대에 속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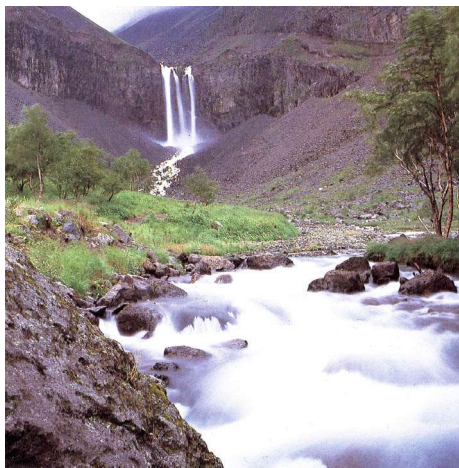


그림10 백두산 정경,
그림출처 한국의미-선, 색,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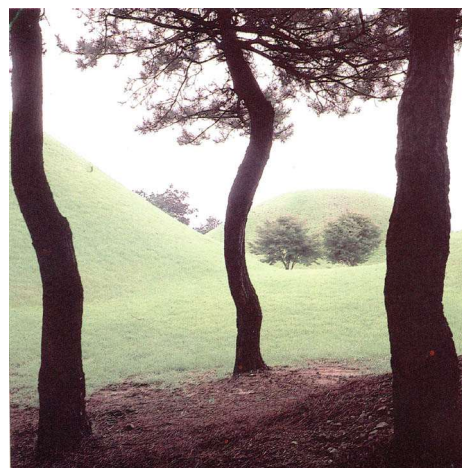


그림 9 경주대능원,
그림출처 한국의 미-선, 색, 형

나. 조선의 경제와 사회구조

(1) 경제

2) 웅진 멀티미디어 학습 백과

고려 후기 국가의 재정이 파탄되고 민생이 피폐했던 경험으로 조선은 초기부터 국력을 키우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대폭 개편했다. 국초부터 농본 정책을 내세워 농업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한 결과 100만 결에 불과하던 토지가 세종 때에는 160만결로 늘어났다. 반면에 상공업은 억제되어 자유로운 성장이 제약되었다. 수공업은 관영수공업 체제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의 수공업자들이 각 관청에 소속되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제조해야만 했으므로 생산활동은 활발하지 못했다. 게다가 상품경제가 그리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활동도 부진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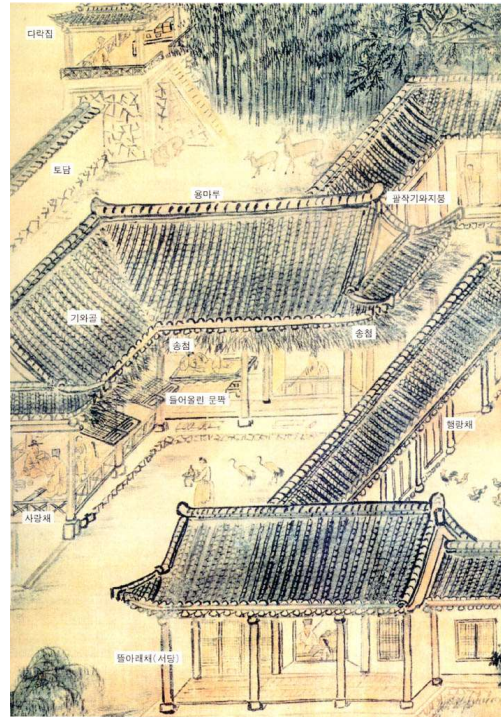


그림 11 사랑채 정경, 그림출처 우리 문화, 이웃문화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억상정책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 이르러 대동법 실시 후 대두한 공인들의 활동으로 상업의 발달이 있었다. 공인은 관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대신에 농민들로부터 대동미를 받아갔다. 공인들은 육의전, 객주 등과 상거래를 하는 한편 직접 수공업자들과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점차 축적된 공인자본은 상업자본으로 성장해 갔다. 한편 사상(私商)들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어 난전(亂塵)이라 부르는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번창하여 영조 때는 1060개나 되었다. 영조 38년(1762) 금난전권의 폐지는 자유수공업의 대두와 함께 자유상업의 발달에 큰 계기가 되었다.⁴⁾

(2) 지배계급

조선을 움직여 나간 지배세력은 사대부였다. 사대부들이 관직을 얻게 되면 양반이 된다. 양반은 원래 고려시대에 문관벼슬을 가리키는 동반(東班)과 무관벼슬을 가리키는 서반(西班)을 함께 부르던 말로 관직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벼슬한 사람뿐만 아니라 벼슬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지칭하는 말로 그 뜻이 변했다.⁵⁾ 조선의 양반은 대부분 향리출신이었지만, 왕권이 안정되고 관료조직이 정비되면서 양반은 지배층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굳혔고, 이를 법제화하면서 양반, 중인, 이교, 양인, 천인의 세습 신분제도를 마련했다. 양반들은 나랏일을 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농민에게 소작을 시키고, 수확량

3)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V, p.438-439

4) 신용철, 같은책, p.129-130

5)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V, p. 438

의 절반정도를 받아내었다. 하지만 관직에 나가지 못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에 관직을 두고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다.

다. 조선의 사상과 주거문화

조선시대의 주거문화에 영향을 끼친 사상으로는 유교, 풍수사상 등이 있는데 이들 사상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사상이 주거문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유교

조선시대에는 고려말기 불교의 폐단으로 인해 중국의 유교사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숭상되고 국시의 기본이 되었다. 유교이념은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규범이 되었다. 사회를 지배하는 사대부계층은 유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삼고, 유학을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거나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인품과 덕망을 쌓는 것을 삶의 근본으로 여겼다. 따라서 조선시대 이후 유교는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사대부들의 일상생활 및 의식을 형성하는 기본요소가 되었다.

주택은 사대부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유교적인 이념과 생활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여야 했으며, 상류계층으로서 신분에 걸맞는 권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상류주택의 평면은 남녀유별, 상하 신분차이에 따라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 등의 공간분화가 나타났으며 각 채는 담장과 문으로 막아 격리시켰다. 또한 전술한 유교의 오륜의 원리에 따라 남계중심의 대가족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2) 가족제도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는 강력한 부권이 존재하는 부자중심의 부계가족제이다. 대가족제는 3세대 이상이 한 울타리에서 기거하고 근친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과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가부장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가부장권의 상징은 사랑(舍廊)의 형태로서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며 가계 계승을 위한 수련장이었다 그리하여 상류 가옥의 사랑채는 큰 대문을 지나면서 위엄 있게 자리잡아, 아랫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 높직한 6칸 대청에서 주인 대감이 그 머리를 내려다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사랑채에는 가부장을 위한 큰 사랑방, 장자를 위한 작은 사랑방, 대청, 누마루, 침방, 책방, 서고, 혹은 독서실이 부속되어 있고, 경치 좋은 곳에서는 풍류를 즐기던 정자도 있었다.

가부장제와 가계계승을 할 때에 장자를 우대하던 풍습이 정착되면서 주거공간도에 대응하게 되었다. 장자를 우대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장자가 부모를 부양하

고, 제사를 받들며, 손님 접대를 담당하고,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을 관리하기 때문이었다. 사랑채의 가장 큰 사랑방을 차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계 계승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안채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은 주부권을 물려받았음을 상징한다.

또한 동족촌은 대가족제도의 연장으로서 대부분 토지를 기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였다.

동족촌 안의 여러 가구들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나뉘어 가지처럼 분가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를 이어받는 종가는, 분가하여 나간 가구와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를 갖게 된다. 동족마을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종가라 하는데, 대종가는 그 집안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대표가 되어 집안일과 마을일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종가는 마을의 중심이나 윗자리에 위치하였고 그 음에 소종가가 위치하며, 변두리나 아랫자리에 소작농들이 자리하는 순서로 마을이 구성되었다.⁶⁾

(3) 풍수사상

풍수사상은 집터를 선정하는 일부부터 시작하는데, 풍수상으로 좋은 집터란 땅속으로 흘러 다니는 생기가 모여 있어 인간에게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로서 터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복락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건물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일도 풍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집터의 등진 방위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방향인 좌향은 집주인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집의 평면형태에 역시 좋은 글자의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해와 달을 뜻하는 일(日), 월(月)과 같은 모양, 먹을 것이 끊이지 않음을 뜻하는 구(口)와 같은 모양을 선호하였다. 그 외에도 건설시기와 과정, 건축방법에 이르기까지 주택의 계획과 건축전반에 적용되었다.

2. 전통 주거공간: 사대부가의 공간구성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은 종 이품 이상의 벼슬을 한 분별 높은 양반계급이 소유한 사대부가로 솟을대문이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상류계층으로서 양반주택의 특성으로는 강한 폐쇄성을 들 수 있다. 신분의 구별이 엄격한 사회에서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일상생활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폐쇄적인 형태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거내의 건물과 공간들이 높은 담장이나 건물자체로 철저히 가려지는 경우

6)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9, P19

가 많았고 솟을대문이나 화려한 담장을 이용하여 그들의 권위를 표현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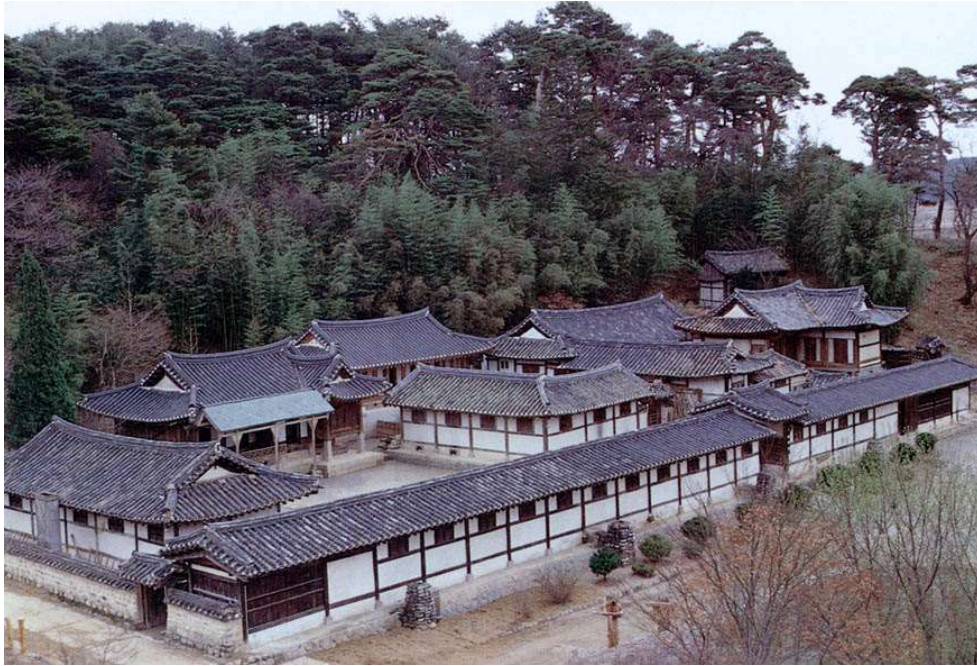


그림 12 사대부가의 조감(강릉 선교원),
그림출처 우리 건축 탐으로 본다

사대부가는 전체 공간을 이루고 있는 공간들이 연속성을 지니며 동일공간에서도 상하 신분제도에 의한 공간 분화를 보여 준다. 즉 안채와 사랑채는 상(上)의 공간이고, 행랑채는 하(下)의 공간이며, 상하의 공간을 연결하는 중문간 행랑채는 중(中)의 공간이다. 이 중의 공간에는 중간 계층인 청지기가 거처한다. 이와 같이 전통주택은 담장 안에 여러개의 채를 세우고 이들 사이를 담장이나 행랑으로 구획함으로써 여러 개의 마당이 생겨서 각 공간에 접할 때마다 각기 다른 정서를 느끼게 한다. 7)

신분과 남녀에 따른 공간 분리원칙, 가부장과 장자 부부를 위한 각각의 공간 확보, 대가족을 위한 많은 수의 방, 축조방식으로 인한 칸의 크기 등이 전통주택의 주거 규모나 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소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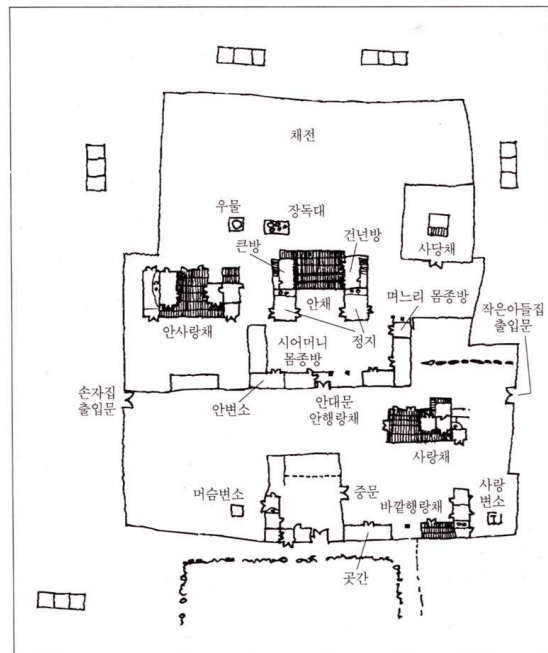


그림 13 사대부가의 평면,
그림출처 우리옛집 이야기 p39

7) 강영환, <한국 주거 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6, p

다. 기단을 올려 축조된 주택구조와 온돌과 마루라는 실내바닥으로 인하여 좌식생활이 정착되었으며, 좌식생활 양식의 특성상 다목적으로 방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적응성을 높일 수 있었다.

가. 대문간과 행랑채



그림 14 사대부가의 솟을대문, 그림출처 우리 건축 탐으로 본다

대문간은 담과 문이 공간화 되어 이루어 지기도하고, 곳간이나 행랑이 연이어 대문채 공간을 이루기도 한다. 대문은 외바퀴가 달린 초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솟을대문을 만드는데, 외바퀴가마가 드나들 수 있도록 홈을 판 것과 지붕만 높인 것이 있다.

대문에 들어서면 사랑마당이 되기도 하고, 곧바로 행랑이 되기도 한다. 행랑채에는 이러한 공간 외에도 여러 노비들의 거주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노비한 가족에게는 대개 방 하나에 군불을

때는 부엌하나가 할당되었다.

나. 사랑채

사랑채는 사랑방, 대청과 누마루, 침방과 서고, 그리고 사랑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는 가문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 정성 들여 꾸며지며, 집안에서 제일 높



그림 15 사랑채 전경, 그림출처 우리건축 탐으로 본다.

은 기단 위에 건축되고, 대청 앞에는 가문의 권위를 나타내는 편액이 붙어 있다.

사랑방은 사랑채를 이루는 주요공간이며, 남자주인의 거처이자, 접객공간으로 보통 남쪽을 향하고 있다. 상류주택의 사랑방에서는 기거와 침식이외에 독서, 사색, 접객, 휴식, 예술 등 많은 행위가 이루어 졌으므로, 단순하며, 기품 있는 문방 가구와 소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랑방 가구들은 독서 삼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로 한정되었으며, 조선 사대부의 주택을 보면,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오히려 장식과 색채를 절제하여 화려함과 복잡함보다는 맑고 단순한 미적 감각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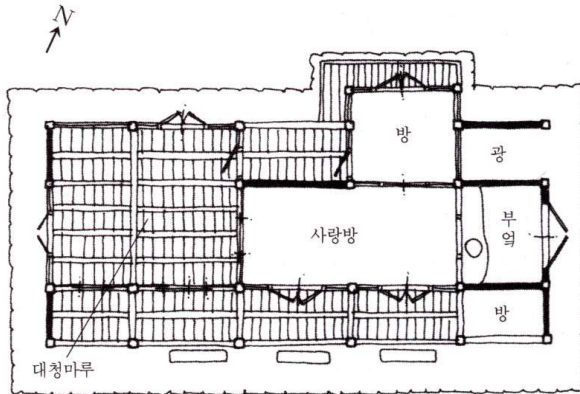


그림 16 전통주택의 사랑채 평면도
그림출처 우리옛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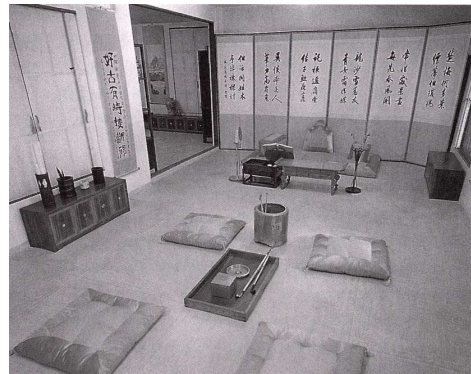


그림 17 사랑방의 정경
그림출처 우리옛집 이야기

사랑방 가구는 수납가구, 문방가구, 문방 소품, 취미 용구로 분류된다. 주요 수납 가구에는 의걸이장, 책장이 있으며 문방가구로는 문갑, 탁자, 서안 등이 있다. 문방 소품으로 필통, 필가 등이 있으며 벽면에는 두루마리나 서안지를 꽂아두기 위한 고비를 걸었다. 그리고 무쇠 축대나 목재 등경과 같은 등촉구 향을 피우기 위한 향꽂이와 향연, 깍연구 등을 구비하였으며, 주인의 취향에 따라 수석과 난 등 관상품과 거문고, 통소, 바둑판 등의 취미 오락 기구를 갖추었다.

가구 배치를 보면, 은은하고 정적인 분위기가 나는 사랑방의 아랫목 벽 쪽으로 다락문이 있으며, 문 앞에는 병풍이 둘러졌다. 방 중심의 등반이 쪽에 안석, 왼쪽에 장침, 오른쪽에 사랑침이 각각 놓였다. 서안은 사랑방 가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책을 펴놓는 본래의 기능 이외에도 손님과 마주앉는 주인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사랑방 옆에 붙어 있는 침방은 주인의 일상 취침 공간으로서 태종 조에 부부 별침을 명한 이후로 상류주택에서 지어졌다. 서고는 책방이라고도 불리며 단순히 서책을 보관하기도 하고, 독서를 겸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상류주택에서 대청은 방과 방을 연결하고 방에서 수행하기 힘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여백의 공간이다. 사랑대청은 방의 연결기능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휴식, 접객, 식사 등의 사회적 기능도 이루어졌다. 사랑대청에서 손님 접대나 사교 등의 사회적



그림 19 사랑방 실내, 그림출처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인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소반이나 서안 등의 가구와 기물이 일시적으로 놓이기는 하였으나 고정적으로 배치되었던 것은 아니며 대청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텅 빈 공간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랑대청의 양 측면에는 자기나 골동품을 놓은 사방탁자를 놓기도 했으며 중앙에는 탁자 등을 놓아 예를 갖추어야 되 손님을 맞았다.



그림 18 사랑대청, 그림출처 우리옛집 이야기

다. 안채

사랑채에서 중문을 통과하면 안채에 이르게 되는데 사랑채에서 직접 시선이 닿지 않도록 내외담을 돌아서 들게 되어 있다. 내외담의 소리는 들려도 시각적인 차단이 중요했던 조선시대의 생활원리를 잘 보여준다.

안채는 안방과 건넌방, 안대청과 부엌, 곳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방은 안채를

이루는 주요공간으로 여성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거처했던 음의 공간이다. 안방은 출산과 임종, 그리고 결혼 때 신부를 맞아들이는 공간이었는데, 이는 모두가 물을 상징하였고, 물은 역학에서 북쪽을 상징하므로 안방의 위치는 대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뒤편 구석진 북쪽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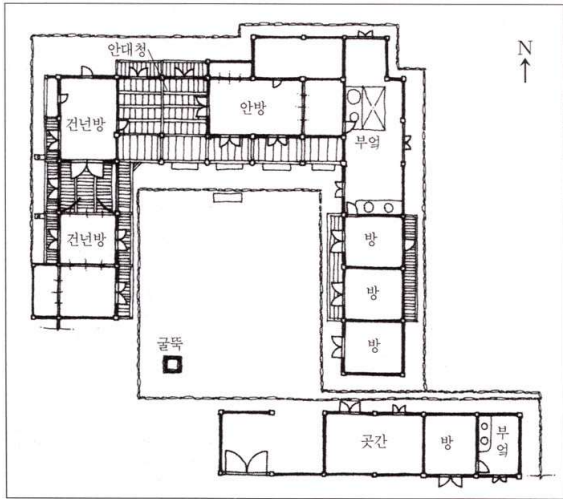


그림 20 안채 평면도,
그림출처 우리옛집 이야기

일반적으로 상류 주택의 안방은 한국의 기후 여건상 수장해야 할 의류나 침구 류가 많고 기능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이 거처실, 식사실, 접대실을 겸하여, 다목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좁은 편이다. 안방의 주요 구성요소는 가구, 소형기물, 병풍 등이고, 이러한 가구류는 부피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의 순으로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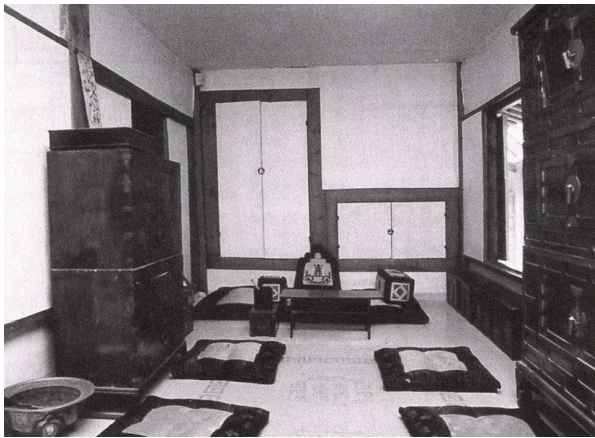


그림 21 안방정경,
그림출처 우리옛집 이야기

가구 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방의 중심이 되는 아랫목에는 장방형 보료를 깔고 그 위에는 상방침 만을 놓은 경우도 있었다. 보료는 바닥에 앉을 때 온돌이 주는 뜨겁거나 찬 촉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병풍은 주로 겨울에 아랫목 쪽의 옷풍을 막기 위한 용도로 보료 뒤편에 쳤으며, 그 이외에도 화사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둘러졌다. 병풍으로 인해 다락에 보관된 침구류나 생활용품을 넣고 꺼내는데 기능적인 제약이 많을 경우에는 병풍을 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벽면을 따라 머릿장, 문갑 등이 창호 밑에 길게 배치되었다. 좁고 긴 장방형의 문갑은 안마당으로 통하는 창 아래 공간에 놓이게 되는데 창호의 머름대 보다 높이를 낮게 제작하여 방안에서 마당을 내다볼 때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안방의 구조뿐만 아니라 앉은 자세와 앉았을 때의 시선의 각도와도 관계가 있다. 주로 문갑 위에는 경대나 기타 소품을 놓았으나, 문지방을 통해 앞 뒷마루로 나갈 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경대를 아랫목에 놓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문갑 쪽의 벽면은 여백을 주어 시원해 보이도록 하거나 고비와 같은 소품을 두어 장식하였

다.

또한 윗방이 없는 경우에는 윗목의 부피가 큰장이나 농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놓았다. 윗방이 안방에 딸려 있는 경우에는 안방의 윗목에 사방 탁자를 놓아 장식품을 진열하고 윗방에는 삼층장이나 이층농, 의걸이장, 반닫이와 같이 부피가 큰 수납가구를 배치하며, 장 위에는 함이나 궤를 올려놓고, 장 밑에는 세숫대야, 요강 등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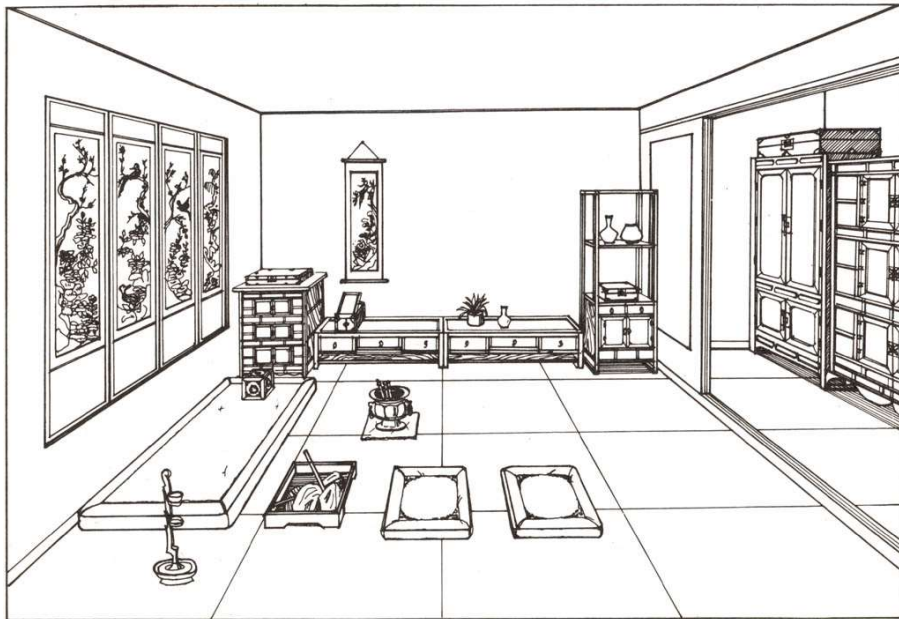


그림 22 안방의 가구배치, 그림출처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윗마당으로 통하는 또다른 벽면 쪽으로는 장과 같은 수장구를 놓고, 그 위에 함이나 빗집등을 얹어 놓았으며, 문 안쪽으로 방장을 쳐 겨울철의 환기도 막고 장식 역할도 겸하였다. 전통주택에서 안방의 가구배치는 벽면을 따라 이루어지며 방의 중심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안방 윗목에는 윗방이 연이어 있고 안방과 윗방의 사이에는 네 짝의 미단이 창호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열어 놓는다.⁸⁾

안대청은 방으로 출입하는 전실의 역할을 하며 여름에는 시원한 거처실이 되고, 큰일이 있을 때는 대청이 중심이 된다. 안대청은 유교적인 제례와 민속적인 혼례 및 집안의 대소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고 식사 준비의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엌가구와 기물이 놓였다. 안대청에는 일상적으로 뒤주, 찬장과 같은 부엌용 수납가구와 소반과 같은 목기류, 그리고 각종 그릇 류가 놓였으며, 제례 때에는 쟁상, 향상, 교의, 촛대, 모사기 등이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규모가 큰 상류주택의 안대청에는 가구를 놓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

8) 박영순외, 우리옛집 이야기, P148-149, 열화당, 1999

적으로 대청의 후면 쪽으로 뒤주를 놓았으며 그 옆에는 찬장이나 찬탁자를 놓고 주방기물을 보관하였다. 뒤주에는 쌀뒤주와 작은 잠곡뒤주가 있었으며, 주택에 따라 안대청에 놓지 않았고 찬방이나 찬마루에 놓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청의 천장 밑에는 시렁을 설치하여 수장공간으로 이용하였고, 그 위에는 크고 작은 상이나 소반, 향아리, 기물 등을 얹어 놓았다. 혼인과 같은 대사가 있을 때에는 안대청의 중앙에 화문석을 깔고 모란 병풍을 쳤으며, 상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정면을 놓았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화룡축대 한 쌍을 좌우에 놓고 대사를 치루었다. 제례 때에는 병풍을 들렀으며 병풍 앞쪽으로 교의와 젓상을 차리고 그 앞에는 향상을 놓아 의식을 행하였다. 9)



그림 23 안대청, 그림출처 우리옛집 이야기

건넌방은 며느리의 방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건넌방 앞에는 여름에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누마루 공간이 있다. 방의 바닥은 온돌구조이며 장판지로 정결하게 마감되어 있다.

방의 출입문은 대청으로 나 있는데 방의 입면 중 벽을 배경으로 한 이 개구부는 전통 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창과 문에는 명장지(明障紙)와 맹장지가 사용되었다. 명장지는 한지를 한 겹 발라 빛이 투과되는 창호를 말하며, 맹장지는 종이를 양면을 두겹게 싸 발라 빛이 통과하지 않는 창호를 말한다.

9) 박영순외, 우리옛집 이야기, P144, 열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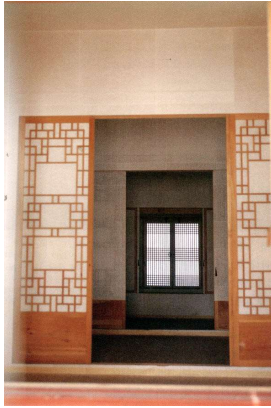


그림 24 명장지로
마감된 문, 그림출처
우리건축 틈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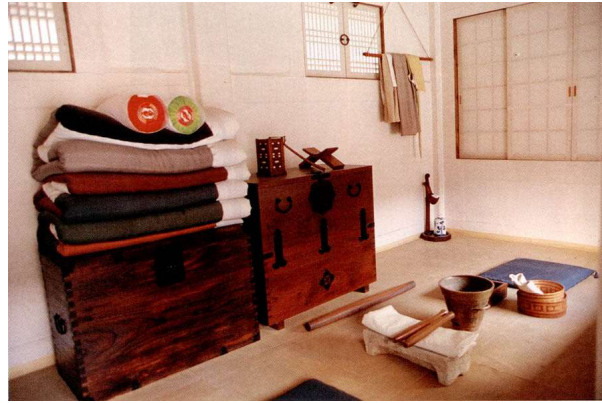


그림 25 장판지로 마감한 방의 정경,
그림출처 우리옛집 이야기

3. 조선조 가구의 특성

가.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배경과 특성

이상과 같은 문화적 배경으로 나타난 한국전통가구의 조형적 특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그의 책 조선의 예술에서 조선의 목가구가 자연성과 순수미, 일상성과 불이성, 여유미 등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¹⁰⁾ 최순우는 간소미, 질소미, 있는 그대로의 재료의 아름다운 생명의 미가 노출된다고 했다.¹¹⁾ 한편 박영규는 한국전통가구가 자연미와 비례미, 안방가구와 사랑방 가구로 대별되는 특징을 가진다고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주거환경과 주거공간이 조선조 가구에 미친 영향을 구조상의 특징과 미적 표현의 이중구조로 요약하였다.

(1) 주거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구조의 견실성

우리나라는 기온차가 심하고 수종이 다양하며, 사계절이 뚜렷하여 선명한 나이테가 형성된다. 따라서 수종을 구하기 쉽고, 자연의 무늬결이 아름다워 인위적인 장식이나 칠 따위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가구양식은 풍토와 생활의 정서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 그대로를 재연하려는 자연미의 창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0))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의 예술, 일신서적공사, P187

11) 이순중 외,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 연구

감각적인 것의 추구보다는 윤리적이며 현실적인 것을 생활철학으로 하는 유교사상은 가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엄격한 신분제도와 대가족제도, 내외사상(內外思想)을 낳게 되었으며, 주택에 있어서도 등급을 나누어 그 규모와 공간구성의 차이를 두게 했다. 그로 인하여 가구양식도 성별, 기능별로 방의 목적에 따라 편하고 아름답게 발전되었다. 특히 명(明)의 문방생활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아 서안, 문갑, 책장, 연상 등 문방가구가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조 가구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1. 목재의 평판(판재)과 골재 즉 면과 선의 연속 집합으로 구조적 특징을 이루기 때문에 가구의 형태는 방형, 장방형이며 반원이나 타원은 거의 없었다.

2.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가수용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소홀없이 이음과 짜임의 구조로 철저함을 기했다.

3. 이미 확보된 나무를 사용해 가구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같은 규격의 나무가 없으며 소목장에 의한 건물과 창의 영향을 받았다.

(2) 주거공간의 영향으로 인한 미적 표현의 이중성

주거양식의 외관은 연속된 선적인 장중함과 지붕의 유연한 곡선에 비해 내부공간은 면적이고 단조롭고 온화한 감이 있다. 바닥구조는 온돌과 마루로 되어 있어 좌식생활에 적합한 가구 높이로 놓여진다. 조용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기질과 온돌로 인한 평좌생활은 천장이 낮고 실내도 좁아, 가구들은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낮고 간결하게 제작되었다. 마루와 온돌에서 보듯 양극적 공간이 적극적으로 엮물려 있다. 내부와 외부의 사이, 중간영역(중심적 공간)은 일교차가 심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온돌과 장지문을 사용하여 집안이나 실내를 자연의 연장으로 사람이 사는 공간과의 완충형태로 보고 가구자체를 또 다른 자연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주거공간의 양식상 특성은 조선조가구에 사랑방가구와 안방가구에 미적 표현의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1. 사랑방가구는 정선된 선과 검소한 분위기의 가구로 색채나 장식을 피했으며 수평, 수직의 장방형 형태로 목재의 자연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2. 안방가구는 귀족적 장식적으로 그들 생활의 부귀수복을 채색과 문양으로

집약하고 있다. 또한 단절된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도록 화려하게 제작되었으며 장방형의 전체형을 다리나 풍혈의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완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조선가구의 이중성은 이질적인 것으로 제각기 정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며 융화해 가는 동질성을 간직하고 있다. 사랑방과 안방도 서로 상반된 주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밸런스에 안목으로 볼 때는 간결함과 화려함, 직선과 곡선이 한 울타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조선조 가구의 분류체계 및 특성분석

1. 조선조 가구의 분류체계

가. 사용자 행위패턴(User Pattern)에 따른 분류체계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의 근간에는 일정한 분류체계가 있다. 특히 본연구의 목적이 ‘조선조 가구의 우수성을 추출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DB를 구축하는 것’임 만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포용하여 가구를 분류,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조선조 가구는 일반적으로 생활 공간에 따라 크게 안방가구, 사랑방 가구, 부엌가구로 분류된다. 또한 한국의 전통가구를 쓰이는 용도에 따라 기거용 가구, 수장용 가구, 문방가구, 주방가구, 의식용 가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의 분류체계로 조선조 가구를 분류, 분석할 경우 분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가구의 상대적 가치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적 보편성아래 조선조가구의 우수성을 추출하고자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 분류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첫째; 넓은 의미의 가구(家具; 집에서 사용하는 용구, Furniture and Furnishing)를 포함시키며, 둘째; 생활양식과 공간구성이 다른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및 유럽의 가구들도 분류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전통가구뿐만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가구들도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조선조 가구를 연구하는 목적이 조선조 가구를 알고자 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기에 연유된 조건이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핵심요소로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Edward Lucie-Smith는 그의 책 〈Furniture History〉에서 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4가지 방향의 하나로 ㉠기능㉡을 들고 기능에 의해 다음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¹⁰⁾

one sits on a piece of furniture ; stools, benches and chairs

one puts things on it ; tables and stands

sleeps or reclines on it ; beds and couches

uses it for storage ; chests or wardroves

기능에 따른 앉는 것, 올려놓는 것, 자거나 기대는 것, 수납하는 것의 4가지 영역은 시대와 공간의 큰 제약 없이 통념적인 가구의 범주를 포괄할 수 있어 매력적인 분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가구의 범주는 그 당시 집안에서 쓰여진 용구(用具)의 개념을 지닌 넓은 의미의 가구로서 이 분류에 의하면 조명기구나 공간구획기구 등의 영역이 모호해진다. 특히 공간구획기구는 목조주택의 공간분할 방법의 특성상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통가구에 있어 기능적으로나 조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

10) Edward Lucie-Smith, 〈Furniture History〉, p8

지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앉는 것, 수납하는 것과 앉는 것, 자거나 기대는 것의 사이에는 양쪽의 기능을 복합한 가구들이 다수 존재하여 어느 한 쪽의 영역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Smith의 분류를 참고로 하여 조선조 가구를 분류하기 위한 틀로서 사람의 행위패턴(User Pattern)을 제시한다. 이는 본고의 3장 2절에서 논의되는 사용자중심 디자인과 일맥상통하는 준거로서 사람의 행위패턴에 따라 가구유형을 **사람.사물.가구/ 사람의 자세.가구 사람/ 사람.공간.가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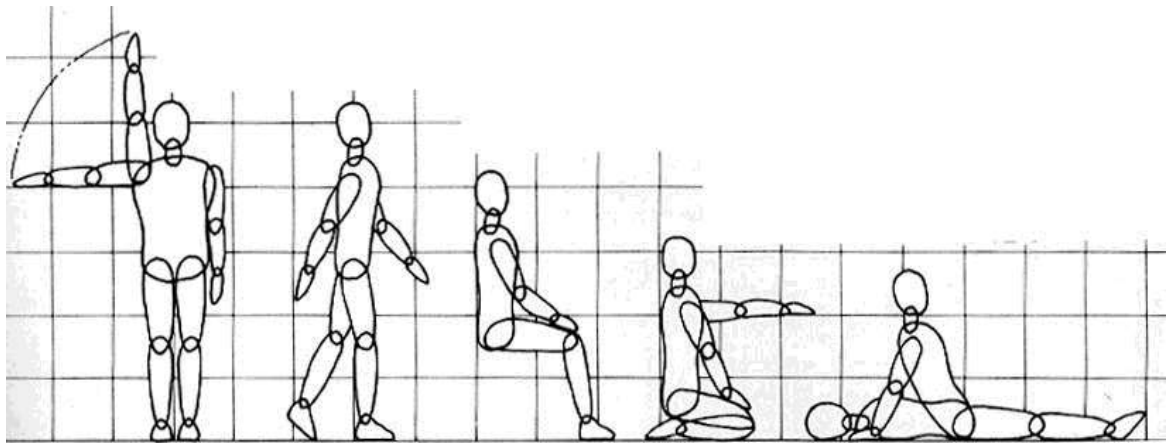


그림 26 가구의 유형분류를 위한 기능별 사용패턴

영역구분	영역 특성	유형코드 및 명칭
사람. 사물. 가구	사람과 사물, 가구와의 상호관계에서 나온 영역으로 사물을 넣는 것, 사물을 올릴 수 있는 것 등의 사람의 행위패턴 지원하는 가구가 속하는 영역이다.	A. Put things in
		B. Put things in & on
		C. Put things on
사람. 자세. 가구	사람의 자세와 가구와의 관계에서 나온 영역으로 앉는 것, 자는 것, 기대는 것 등의 사람의 행위패턴 지원하는 가구가 속하는 영역이다.	D. Seating
		E. Seating & Lying/ Reclining
		F. Lying
사람. 공간. 가구	공간을 구획하는 것, 공간을 밝히는 것 등 사람의 행위패턴 중 공간과 가구와의 관계를 지원하는 가구가 속하는 영역이다.	G. Partition device
		H. Lighting

표 8 사람의 행위패턴을 준거로 한 가구유형 분류체계

나. 사용자 행위패턴에 따른 조선조가구의 분류

이상과 같은 분류체계에 의한 조선조가구의 분류표와 아이템별 기초 분석내용을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사물과 가구	A. Put things in	A1 장(櫥) A1.1 머릿장(단층장) A1.2 이불장 A1.3 이층장 A1.4 삼층장 A1.5 사층장 A1.6 의걸이장 A1.7 금침장 A1.8 책장 A1.9 이층찬장 A1.10 삼층찬장 A2 농 A2.1 수장농	A2.2 이층농 A2.3 이층농 A2.4 함농 A3 함 A3.1 함 A3.2 문서함 A3.3 사각함 A3.4 팔각함 A4 궤 A4.1 돈궤(윗닫이) A4.2 반닫이 A4.3 이층반닫이 A4.4 반닫이장	A5 약장 A5.1 약장 A5.1 이층약장 A6 소품 A6.1 문방소품 A6.2 가계수리 A6.3 빗집 A6.4 상자 A6.5 반긴고리 A6.6 함지 A6.7 구절판 A6.8 찬함
	B. Put things in & on	B1 문갑 B1.1 단문갑 B1.2 쌍문갑 B2 사방탁자 A B2.1 이층탁자 B2.2 삼층탁자 B2.3 사층탁자	B3 탁자장 B3.1 탁자장 B3.2 책탁자장 B4 책탁반닫이 B5 뒤풀이 B5.1 뒤풀이 B5.2 이층뒤풀이	B5.4 원통형 뒤풀이 B6 찬탁 B6.1 찬탁 B6.2 이층찬탁 B6.3 삼층찬탁 B6.4 사층찬탁 B6.5 오층찬탁
	C. Put things on	C1 서안 C1.1 서안 C1.2 휴대용 서안 C2 경상 C3 탁자 C4 사방탁자 B C5 진설탁자 C6 향안	C7 소반 C7.1 나주반 C7.2 해주반 C7.3 통영반 C7.4 충주반 C7.5 안주반 C7.6 사각반 C7.7 다각반 C7.8 원형반	C7.9 호족반 C7.10 연협반 C7.11 회전반 C7.12 일주반 C7.13 기타 C8 소품 C8.1 문방소품 C7.2 좌경 C7.3 목판
사람과 가구	D. Seating	D1 결상 D1.1 돈 D1.2 울 D1.2 교울	D2 의자 D2.1 의자 D2.2 교의 D2.2 교의(접의)	D3 방석 D3.1 방석 D3.2 죽석 D4 자리 D4.1 돈
	E. Reclining	E1 평상 E2 궤	E3 보료 E3.1 보료	E3.2 안석 E3.3 장침, 사방침
	F. Lying	F1 이부자리 F1.1 요 F1.2 이불	F2 베개 F2.1 베개 F2.1 베갯모 F4 죽부인	F3 퇴침 F3.1 목침 F3.2 죽침 F3.3 기타
공간과 가구,	G. Partition device	G1 병풍 G3.1 머릿병풍	G3.2 병풍 G3.3 기타	G2 발
	H. Lighting	H1 촛대	H2 등잔 H3 제등	H4 조족등

표 9 조선조 가구의 분류

A1 장(櫥)

의류를 보관하는 가구로서 중, 상류 이상의 가정 내방가구를 대표한다. 장은 우리 고유의 언어로 한자로는 수궤(竪櫃), 곧 세우는 궤라고 하였다. 수궤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은 궤에서 양식이 변하여 단층장인 머릿장의 형태가 되고 이것이 조선시대 중기 이후 이층 또는 삼층으로 변화된 듯하다.

장은 맨 윗부분이 개판(蓋板), 가운데 부분인 몸체, 아랫부분인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널이 긴 한 장의 판재로 구성되어 있어 각 층이 분리되지 않는 점이 농(籠)과 다르다. 여닫이로 된 문이 각 층마다 달려 있고, 내부에는 층마다 저고리, 치마 등 부인의 옷을 넣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장의 앞면은 쇠목과 동자주에 의해 분할 되어 머름간, 벽손(귀벽칸), 문갑, 서랍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나타내는 독특한 나뭇결은 세련된 조화와 무궁한 변화미를 보여 준다. 또한 모든 장의 내면에는 종이를 발랐는데 고급 장에는 당지(唐紙)를, 일반 장에는 반물을 들인 청색지(靑色紙)를 발랐고, 조선시대 말기에는 황지(黃紙)를 바르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와 같은 장에는 머릿장(단층장), 이층장, 삼층장, 드물게는 사층장, 오층장도 있다. 단층장(A1.1)은 보통 머리맡에 놓고 귀중품이나 열쇠뭉치 등을 넣어두므로 머릿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2층장(A1.3) 또는 3층장(A1.4)은 옷을 넣는 전형적인 내방가구로서 안방에 둔다.

또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의걸이장, 실장, 버선장, 이불장, 솜장, 금침장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불장(A1.2)은 윗면(개판)에 이불을 개어 엮는 용도로 쓰였고 자녀방에 둔다. 의걸이장(A1.5)은 조선후기에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나타난 장으로 일반장롱이 옷을 포개어 넣도록 되어 있어 옷이 구겨지기 쉽고 꺼내기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 상단에 꿰대라는 긴 막대기를 설치하여 두루마기나 치마 등의 긴 의복을 걸쳐두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문을 길게 하여 단층으로 된 것과 하단은 낮고 상단은 높은 이층장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며, 이층장일 경우에는 하단에 장이나 반단자와 같은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일반 장이나 농처럼 옷을 개어 수납하거나 소품을 보관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외관 의식에 따라 살의걸이, 평의걸이, 지장의걸이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살의걸이장은 두 문짝을 마치 미단이 창살처럼 살창으로 만들고 장의 내면과 살에 한지나 비단을 발라 해충의 침입을 막도록 하였으며, 특히 살창에 꽃그림을 그린 의걸이장을 화초장이라 하여 내실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평의걸이장은 살창이 없는 단순한 의식으로 목리문을 살리거나 사군자나 글씨를 문판과 옆널판에 음

A1	장(櫥)
----	-------------

각하여 장식하였고 전면을 한지로 바른 지장의걸이장과 함께 주로 사랑방에서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골재와 머름간, 쇠목, 동자 등은 가래나무, 배나무와 같은 경질의 목재를 사용하였고, 앞판이나 측널 등의 판재에는 목리가 좋고 비교적 연질인 오동나무, 소나무 등이 많이 쓰였다. 또한 긴 여닫이문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경첩을 달았으며, 문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였다.

금침장(衾枕櫥 A1.6)은 의걸이장과 형태가 유사하나 내부에 뿔대가 없으며, 일반장에 비해 옆폭이 약간 넓다.


이밖에도 구조와 금구장식의 문양에 따라 한 층이 두 칸으로 된 것을 원앙 삼층장(A1.4.2), 나비 모양의 금구장식이 사용된 것을 나비 삼층장(A1.4.3)이라 부르기도 하고, 만들어진 치장재료에 따라 지장(紙櫥), 자개장, 느티나무 뿌리 부분의 나뭇결로 장식한 용목장, 붉은색의 걸이 고운 화류목으로 만든 화류장, 검은 색의 갑나무로 만든 먹감나무장,, 유리판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화초장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화초장은 화각대신 유리를 재료로 하여 화초 무늬를 채색한 뒤 판재에 붙여 만든 것으로 상류층에서만 사용하였다.

책을 귀하게 여겼던 조선시대 선비, 사대부들은 귀중본일 경우 오동나무 책갑에 넣어 보관하였다. 책갑 가운데 큰 것은 내면을 2, 3칸으로 구획하여 전면에 한 짝 문(獨扇)을 내고 문의 중앙에 책명을 각하였다.

책장(A1.7)은 중국식 명칭인 서주(書廚)라고도 하였는데 대체로 2, 3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책을 넣기에 편리하도록 머름간, 귀벽칸을 생략하거나 작게 하여 매 층마다 두 짝의 문을 달았다. 내면에는 종이를 바르고 외면은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잘 드러나도록 황칠을 하였다. 책장의 전면(前面), 곧 문판 재료는 대부분 오동나무를 썼으며 기둥재는 배나무와 같은 단단한 잡목을 이용하였다. 이동판은 인두로 지진 뒤 짚으로 문질러 목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처리하였다. 금속 장식은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위에 최소한의 것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장식성을 배제하였다.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무쇠 4.표면처리 흑칠 5.장식 금속장식</p>
<p>A1 장, 櫛 A1.1 머릿장(단층장) 1시대: 조선시대 2크기: 490 290 39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특성 2.용도 귀중품, 열쇠뭉치 등 보관용 3.사용방식 윗부분에 서랍 4.사용공간 안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개판과 가운데 몸체, 아랫부분 다리로 구성 기법 2.부재구조 무쇠 경첩</p>
	<p>조형 1.조형어휘 새로운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놋쇠 4.표면처리 옷칠 5.장식 금속장식</p>
<p>A1.2 이불장 1시대: 조선시대 2크기: 780 465 54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특성 2.용도 이불 개어 엮는 용도 및 수납용 3.사용방식 여닫이문 4.사용공간 자녀방, 사랑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아랫부분 다리로 구성 기법 2.부재구조 놋쇠 경첩</p>
	<p>조형 1.조형어휘 여유로운 특성 2.주재료 오동나무, 배나무 3.부재료 4.표면처리 옷칠 5.장식 금속장식</p>
<p>A1.3 이층장 1시대: 조선시대 2크기:101 355 830 3재료: 오동나무, 배나무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특성 2.용도 수납용 3.사용방식 3개의 서랍 4.사용공간 안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 마대는 복이 깃들기를 염원하는 마음</p> <p>제작 1.몸체구조 아랫부분 4개의 다리로 구성 기법 2.부재구조 금속경첩, 금속 손잡이</p>

	<p>조형 1.조형어휘 환상적</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 낫쇠</p> <p>4.표면처리 옷칠</p> <p>5.장식 양각</p>
<p>A1.4 삼층장 1시대: 조선시대 2크기: 1120 580 1745 3재료: 4출처:</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의류수납용</p> <p>3.사용방식 3개의 여닫이문, 4개의 서랍</p> <p>4.사용공간 안방</p> <p>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p> <p>6.상징의미 복을 상징하는 박쥐의 나는 모습</p> <p>제작 1.몸체구조 문판과 쥐벽간, 머름간</p> <p>기법 2.부재구조 낫쇠 경첩, 낫쇠 손잡이</p>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 낫쇠</p> <p>4.표면처리 옷칠</p> <p>5.장식 금구장식</p>
<p>A1.5 원앙삼층장 1시대: 조선시대 2크기: 1055 590 1510 3재료 4출처</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의류수납용</p> <p>3.사용방식 한층이 두칸, 여닫이문</p> <p>4.사용공간 안방</p> <p>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p> <p>6.상징의미 부부 해로의 의미</p> <p>제작 1.몸체구조</p> <p>기법 2.부재구조 낫쇠 경첩, 낫쇠 손잡이</p>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인</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 금속</p> <p>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p> <p>5.장식 운각</p>
<p>A1.7 의걸이장 1시대: 2크기: 855 465 1675 3재료: 4출처:</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의류수납용</p> <p>3.사용방식 위쪽 내부에 햇대, 여닫이문</p> <p>4.사용공간 가정 내방</p> <p>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p> <p>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하단은 낮은장 또는 반닫이, 그 위로 긴장</p> <p>기법 2.부재구조 금속접합 경첩, 금속 자물쇠</p>


	<p>조형 1.조형어휘 소박한</p> <p>특성 2.주재료 오동나무, 배나무</p> <p>3.부재료 낫쇠</p> <p>4.표면처리 황칠</p> <p>5.장식 금속장식</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책 수납용</p> <p>3.사용방식 매 층마다 여닫이문</p> <p>4.사용공간 사랑방</p> <p>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p> <p>6.상징의미</p>
<p>A1.9 책장</p> <p>1시대</p> <p>2크기: 610 325 935</p> <p>3재료</p> <p>4출처</p>	<p>제작 1.몸체구조</p> <p>기법 2.부재구조 낫쇠 경첩, 낫쇠 손잡이</p>

A2	농(籠)
----	------

장과 더불어 내실용 가구를 대표한다. 농은 아래 위쪽이 분리되므로 분리되지 않는 장과는 구별된다. 농(籠)은 한자(漢字)의 표기로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대(竹) 또는 싸리로 엮어 만든 죽기(竹器)를 뜻하는 말이었다. 이러한 죽기나 유기(柳器)는 밑쪽이 얇은 것을 상(箱), 밑쪽이 뚜껑보다 깊은 것을 농이라 하여 구분한다. 뚜껑이 위에 있으며 시렁 위에 올려 두거나 크기가 같은 것을 두세 개 포개어 놓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포개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뚜껑을 여닫으려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만주인이 농의 앞면에 문을 달았다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기록으로 미루어 18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나무로 네 기둥과 개판이 없는 수장농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듯하다.

농은 형태에 따라 수장농, 개판농이라 부르며 재료에 따라 먹감나무농, 자개농, 샷자리농 등으로 분류한다.

수장농은 쇠목과 동자주의 구획이 없으며 서랍도 없고 판재로만 구성된 목재농의 원형이다. 샷자리농은 나무 또는 대나무의 골격에 대(竹)를 마치 샷자리처럼 엮어 만든 농을 가리킨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vertical-align: top;">조형</td> <td>1.조형어휘 심플한</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특성</td> <td>2.주재료 3.부재료 무쇠 4.표면처리 락커마감 5.장식 무쇠장식</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기능</td> <td>1.행위패턴 Put things in</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특성</td> <td>2.용도 수납용 3.사용방식 여닫이문 4.사용공간 가정 내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제작</td> <td>1.몸체구조</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기법</td> <td>2.부재구조 무쇠 경첩, 무쇠 손잡이</td> </tr> </table>	조형	1.조형어휘 심플한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무쇠 4.표면처리 락커마감 5.장식 무쇠장식	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특성	2.용도 수납용 3.사용방식 여닫이문 4.사용공간 가정 내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	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 무쇠 경첩, 무쇠 손잡이
조형	1.조형어휘 심플한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무쇠 4.표면처리 락커마감 5.장식 무쇠장식												
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특성	2.용도 수납용 3.사용방식 여닫이문 4.사용공간 가정 내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												
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 무쇠 경첩, 무쇠 손잡이												
A2 농, 籠 A2.1 수장농 1시대: 1800년대 전후 2크기: 810 350 97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													

A3	함(函)
----	------

함은 깊은 밑쪽에 운두가 얇은 뚜껑을 경첩으로 연결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한 상자이다. 귀중품을 넣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자물쇠로 채우도록 되어 있다. 자물쇠는 뚜껑에 부착된 긴 뺨침대(길채 또는 낙목이라고도 함)의 중간에 달린 고리(길목)와 몸체에 박힌 두 배목의 고리를 연결하여 잠그도록 되어 있다. 양측 널에는 들쇠가 있어 이동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함은 요즈음도 혼인 때 신랑 집에서 혼서지와 채단을 넣어 신부집에 보내는 데 사용된다.

함은 천판에 경첩이나 장식이 없어 두 개를 포개어 놓을 수 있으며 옷을 담도록 크게 만들어 포개어 놓도록 된 것을 **함농**이라고 불렀다.

	<p>조형 1.조형어휘 견고한</p> <p>특성 2.주재료 3.부재료 4.표면처리 옷칠 5.장식 금속접합장식</p>
<p>A3 함(函) A3.1 함 1시대: 조선 2크기: 400 245 240 3재료: 4출처:</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귀중품 보관용 3.사용방식 위로 여닫는 문 4.사용공간 가정 내실용 5.공간이용 이동식 6.상징의미</p>
	<p>조형 1.조형어휘 단순한</p> <p>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낫쇠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p>
<p>A3.2 문서함 1시대: 2크기: 385 120 115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문서, 귀중품 보관용 3.사용방식 위로 여닫는 문 4.사용공간 사랑방 5.공간이용 이동식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여닫는 상자구조</p> <p>기법 2.부재구조 낫쇠잠금장치</p>

	<p>조형 1.조형어휘 견고한</p> <p>특성 2.주재료 오동나무</p> <p>3.부재료 주석 장식</p> <p>4.표면처리 옷칠</p> <p>5.장식 금속장식</p>
<p>A3.3 서류함</p> <p>1시대: 19C 조선</p> <p>2크기: 333 202 70</p> <p>3재료: 오동나무</p> <p>4출처: 한국의 목공예</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서류 보관용</p> <p>3.사용방식 위로 여닫는 문</p> <p>4.사용공간 사랑방</p> <p>5.공간이용 이동식 (머릿장 속이나 문갑 아래에 보관)</p> <p>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p> <p>기법 2.부재구조 불박이형 금속 자물쇠, 금속 경첩</p>

A4	궤(櫃)
----	------

나무로 된 장방형의 상자를 가리키며 장(槩)을 세우는 궤(櫃), 곧 수궤(豎櫃)라는 한자어로 표기하는데, 대비하여 누워 있는 궤라는 뜻의 와궤(臥櫃)라고도 한다. 궤에는 윗닫이와 반닫이(앞닫이)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천판(윗면)을 앞뒤로 절개하여 앞쪽을 문판으로 삼은 것을 위쪽에 문이 있다 하여 윗닫이라고 하며, 앞면을 상하로 이등분하여 위쪽을 문판으로 삼은 것을 **반닫이(A4.2)** 또는 앞닫이라 한다.

윗닫이(A4.1)라 부르는 대형 궤를 흔히 돈궤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명칭이다. 돈궤는 윗닫이와 형태는 같으나 크기가 훨씬 작으며 윗면이 절개된 부위 중앙에 엽전(葉錢:동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방형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궤 가운데 윗닫이는 책, 문서, 의복, 피륙, 건어물, 그릇, 제기, 활자(活字) 등을 보관하는 다목적 가구로서 수납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사랑방, 다락, 광, 사당 등에 놓고 사용하였으며 관청에서도 많이 이용한 가구이다.

궤는 문(뚜껑)이 널판으로 되어 운두가 없으며 문판에 붙은 경첩이 천판과 연결되어 포개 놓을 수 없다.

앞면에 문이 달린 반닫이 가운데 특이한 형태는 내부를 좌우 칸으로 나누어 두 개의 문판을 나란히 단 **원앙 반닫이(A4.3)**와 문을 중앙에 작게 낸 **개구멍 반닫이(A4.4)**의 두 가지이다. 원앙 반닫이는 부부가 해로하라는 의미로서 결혼 예물로 만들며 부유한 집에서는 내외의 수의(壽衣)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한다.

북쪽 지방의 궤는 남쪽 지방의 궤에 비해 높이가 높으며 관서에서 호서에 이르는 반도의 서쪽 지역은 금구 장식이 화려하며 많이 부착되어 있다. 지역별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닫이로는 강화와 박천의 것이 있다.

궤는 견고하고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각 가정마다 여러 구를 비치하였다. 다양한 수요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필요에 의해 주문 제작한 것은 일정한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 예로 **책탁 반닫이**, **반닫이장(A4.6)**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양식이 다른 가구와 결합하여 독특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p>조형 1.조형어휘 단순한</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 무쇠</p> <p>4.표면처리 옷칠</p> <p>5.장식</p>
<p>A4 퀘, 櫃</p> <p>A4.1돈퀘(윗단이)</p> <p>1시대: 조선</p> <p>2크기: 298 208 205</p> <p>3재료:</p> <p>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수납용</p> <p>3.사용방식 문판 중앙에 구멍, 윗단이 형식의 문</p> <p>4.사용공간</p> <p>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p> <p>6.상징의미</p>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 무쇠</p> <p>4.표면처리 락커마감</p> <p>5.장식 금속장식</p>
<p>A4.2반단이</p> <p>1시대: 조선</p> <p>2크기: 960 470 565</p> <p>3재료:</p> <p>4출처:</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수납 보관용</p> <p>3.사용방식 내면에 3개의 서랍, 반단이 문</p> <p>4.사용공간 안방</p> <p>5.공간이용 벽면 쪽에 배치</p> <p>6.상징의미</p>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 무쇠</p> <p>4.표면처리 락커마감</p> <p>5.장식 금속접합 장식</p>
<p>A4.3 원앙반단이</p> <p>1시대: 조선</p> <p>2크기: 1386 385 665</p> <p>3재료:</p> <p>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수납용</p> <p>3.사용방식 내부를 좌우 칸으로 나눔, 반단이 문</p> <p>4.사용공간 안방</p> <p>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p> <p>6.상징의미 부부 해로의 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앞면 위쪽에 두 개의 문판 부착</p> <p>기법 2.부재구조 무쇠 자물쇠, 무쇠 경첩</p>

	<p>조형 1.조형어휘 기능적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낫쇠 4.표면처리 락커마감 5.장식</p>
<p>A4.4 개구명반단이 1시대: 조선 2크기: 733 396 428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특성 2.용도 수납용 3.사용방식 중앙에 작은 반단이 문 4.사용공간 안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앞면 중앙에 작은 문판 부착 기법 2.부재구조 낫쇠 경첩, 낫쇠 손잡이</p>
	<p>조형 1.조형어휘 기능적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무쇠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 금속장식</p>
<p>A4.5 반단이장 1시대: 2크기: 1035 375 99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특성 2.용도 수납용 3.사용방식 상단에 서랍, 하단에 반단이 문 4.사용공간 가정 내실 5.공간이용 벽면 앞쪽에 배치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앞면 하단에 문판 부착 기법 2.부재구조 무쇠 손잡이, 무쇠자물쇠, 무쇠 경첩</p>
	<p>조형 1.조형어휘 기능적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무쇠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p>
<p>B4 책탁반단이 1시대: 조선 2크기: 815 320 103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 on 특성 2.용도 귀중품, 책 보관용 3.사용방식 하단에 반단이 문 4.사용공간 사랑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상단에 서탁, 하단에 반단이 문과 다리 기법 2.부재구조 무쇠 자물쇠, 무쇠 경첩</p>

A6	각계수리
----	------


각계수리는 안방과 사랑방에서 함께 쓰였던 단층장 양식의 가구이다. 여닫이문 안에 여러 개의 서랍이 설치된 일종의 금고로서 귀중품, 문서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약장으로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전 각계수리에는 내면 서랍에 약재 이름이 적힌 것이 있는데 이러한 각계수리 약장은 대부분 가정에서 상비용으로 쓰인 것이다. 또 내부에 몇 개의 서랍이 있는 것은 귀중품 보관용이다.

	<p>조형 1.조형어휘 견고한</p> <p>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낫쇠 4.표면처리 흑칠 5.장식 금속장식</p> <hr/>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귀중품, 문서 등 보관용 (금고의 일종) 3.사용방식 여닫이 문 4.사용공간 안방, 사랑방 5.공간이용 6.상징의미</p> <hr/> <p>제작 1.몸체구조 단층장 양식</p> <p>기법 2.부재구조 낫쇠 경첩, 낫쇠 손잡이</p>
<p>A5 각계수리</p> <p>1시대: 조선</p> <p>2크기: 610 380 470</p> <p>3재료:</p> <p>4출처:</p>	

A5	약장
----	----

직업 한의사들은 많은 서랍이 달린 약장을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닫이문 속에 여러 개의 서랍이 있는 백안(천안)주에 약재를 보관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극약이 아닌 일반약재는 노출된 서랍에 보관하였고 극약은 잠금 장치가 달린 장 또는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서랍에 보관함으로써 좀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재 관리를 하였다.

	<p>조형 1.조형어휘 심플한</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 낫쇠</p> <p>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p> <p>5.장식</p>
A6 약장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p> <p>특성 2.용도 약재 보관용</p> <p>3.사용방식 여닫이 문 내부에 여러 개의 서랍</p> <p>4.사용공간 가정 내실</p> <p>5.공간이용</p> <p>6.상징의미</p>
<p>1시대: 조선</p> <p>2크기: 420 200 340</p> <p>3재료:</p> <p>4출처:</p>	<p>제작 1.몸체구조</p> <p>기법 2.부재구조 낫쇠 경첩, 낫쇠 손잡이</p>

B4	문갑(文匣)
----	--------

각종 문방 용품과 문서 등을 총괄하여 보관하기 위한 가구로서 문구갑(文具匣)의 준말이다. 문갑의 형태는 중국의 항(炕: kang) 위에서 쓰였던 칸문갑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듯하다.

문갑은 평좌 생활에 알맞은 책상 높이 또는 문지방 높이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벽면을 따라 길게 한 쌍을 놓고 사용한다. 문방에 필요한 소품들을 넣기 위한 작은 서랍과 선반으로 이루어진 유형과 서랍과 선반을 네 짝의 두껍단이 문으로 감춘 형태도 있다. 이와 같이 네 짝의 두껍단이 문으로 된 문갑을 병어리문갑이라고 한다. 또한 단문갑(b4.1)이라 하여 높이가 높고 개구부가 많은 형태가 있고, 높이가 얇고 평형을 강조한 쌍문갑(장문갑, b4.2)이 있다. 천판 위에는 필통, 연적, 수석, 난분 등을 늘어놓아 진열대의 구실도 한다.

문갑이 사랑 및 서재용 가구로서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이유는 자질구레한 일상용품들이 구석구석 어지럽게 놓이는 것을 피하고 실내를 정갈하게 비워두려는 선비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요란하게 기화(奇花)를 새길 필요가 없고, 배나무로 조출하게 만들되 문목(紋木)으로 문판을 짠다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 또한 『임원경제지』에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늬를 조각할 필요가 없으며 죽사(竹絲)를 붙인 죽장 기법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비용에 비해 일찍 파손되므로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장문갑에 있어서 높이가 30cm 안팎인 것은 평좌식 생활에서의 동선범위와 시선의 위치와 관계가 있고, 특히 창문의 문지방 높이를 넘지 않기 위해서이다.




	<p>조형 1.조형어휘 다양한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낫쇠 4.표면처리 황칠 5.장식</p>
<p>B1문갑, 文匣 B1.1 단문갑 1시대: 조선 2크기: 1024 408 53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 on 특성 2.용도 문방용품, 문서 보관용, 진열대 구실 3.사용방식 작은 서랍과 선반 4.사용공간 안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 낫쇠 손잡이</p>
	<p>조형 1.조형어휘 단순한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낫쇠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p>
<p>B1.2 쌍문갑 1시대: 조선 2크기: 900 320 42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 on 특성 2.용도 보관용, 진열대 구실 3.사용방식 네 짝의 두껍달이 문 4.사용공간 안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 금속 손잡이</p>


B2	사방탁자A
C3	사방탁자B
B3	탁자장

서책이나 완상품을 진열하도록 층널을 삼층 내지 오층으로 얹은 네모반듯한 탁자로 문갑이 수평적임에 반하여 수직이 강조된 문방 가구이다. 전체에 면(面) 막음이 없이 단순 간결하게 결구 된 것(C4)과 가운데 한 층을 장으로 막은 것(B3)을 사방탁자라 하며, 하단 또는 중앙의 한 두층에 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층널은 세 면이 판재로 막혀 앞면만이 뚫린 양식을 탁자장(B5)이라고 한다.

『임원경제지』 ‘문구갑’의 서가(書架)에 사방탁자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사방탁자는 1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기 시작하였고 당시의 명칭은 서가였다. 또 그 내용에 화리목 또는 문목으로 문을 만들고 침향(沈香), 강진향(降眞香)으로 선을 장식하며 백동, 오동(烏銅)으로 금속 장식을 댄다고 하였다. 시렁 위에는 서권(書卷), 화축(畫軸), 화병(花瓶), 취우(翠雨), 호(壺), 향로(香爐), 다완(茶椀) 등 문방 기구를 늘어놓는 문방의 총책임자로서 서실의 사치스런 완상물이라 극찬하였다.

이와 같은 사방탁자의 양식은 중국의 탁자장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층널과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쾌적한 비례의 사방탁자는 간결 단순미의 본보기라 할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제작하지 않은 일품이다.


	<p>조형 1.조형어휘 간결한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4.표면처리 황칠 5.장식 금구장식</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 특성 2.용도 수납보관용, 진열대 구실 3.사용방식 서랍, 하단에 여닫이 문 4.사용공간 가정 내실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p>
<p>B2.2 사방탁자 A</p> <p>1시대: 2크기: 483 306 162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 금속 경첩, 손잡이</p>
	<p>조형 1.조형어휘 심플한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 금구장식</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 on 특성 2.용도 수납용, 진열대 구실 3.사용방식 머름간, 3개의 서랍 4.사용공간 내실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p>
<p>B2.1 사방탁자A</p> <p>1시대: 1800년대 전후 2크기: 640 500 162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 금구 경첩, 금구 손잡이</p>
	<p>조형 1.조형어휘 간결한,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 특성 2.용도 수납용, 진열대 구실 3.사용방식 4.사용공간 사랑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 선비정신</p>
<p>C3 사방탁자B</p> <p>1시대: 1800년대 전후 2크기: 640 500 162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p>

	<p>조형 1.조형어휘 기능적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놋쇠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 on 특성 2.용도 그릇, 음식 보관용 3.사용방식 상단에 선반, 하단에 여닫이문 4.사용공간 가정내실용 5.공간이용 벽면 앞에 배치 6.상징의미</p>
<p>B3 탁자장 1시대: 2크기: 690 318 93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제작 1.몸체구조 상단측널세면은 판재로 막고 앞면은 뚫음 기법 2.부재구조 금속접합 경첩</p>

B6	뒤주
----	----

뒤주는 도궤(度櫃), 두주(斗廚), 두도(斗度) 등으로도 표기하는 곡물을 담아 두는 가구로서 궤의 일종이다. 크기가 다양해 크기에 따라 쌀과 잡곡을 구분해 보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큰 것은 쌀뒤주, 작은 것은 팔뒤주라 부른다.

제물다리를 겸한 튼튼한 네 기둥(부출)의 상하에 두툼한 쇠목을 대어 만든 방형의 울거미에 홈을 파서 두꺼운 널을 끼워 몸판으로 삼았다. 위측 쇠목은 몸체보다 돌출되어 네 귀에서 귀틀을 이루었다. 천판은 이등분하여 위로 곡식을 꺼내도록 한 형태가 경기, 서울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본형이다. 앞면은 무늬가 좋은 나무의 통판을 끼웠으며 측면과 후면은 두세 쪽의 판자를 대었다.

	<p>조형 1.조형어휘 균형잡힌</p> <p>특성 2.주재료 느티나무</p> <p>3.부재료 무쇠</p> <p>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p> <p>5.장식 네 귀틀에 부드러운 곡선 처리</p>
B7 뒤주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in & on</p> <p>특성 2.용도 쌀, 잡곡 보관용</p> <p>3.사용방식</p> <p>4.사용공간 주방</p> <p>5.공간이용</p> <p>6.상징의미</p>
<p>1시대:</p> <p>2크기: 390 290 384</p> <p>3재료:</p> <p>4출처: 전통 목가구</p>	<p>제작 1.몸체구조 네 귀틀과 네 기둥이 균형있는 짜임새</p> <p>기법 2.부재구조 무쇠 자물쇠</p>

B8	목판
----	----

목판(木板, b8.2)은 쟁반같이 생긴 그릇으로, 얇은 널판의 가장자리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낮은 전을 댄 것으로, 여러 가지 크기로 되어있다. 목판은 음식을 나르는 데 많이 이용되었는데,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크기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크고 작은 목판을 일정한 크기의 순서로 포개어 놓았다. 목판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여 음식을 담아 놓고 파는 데도 사용되었다.

B1,C1	서안(書案)
B2,C2	경상

서안은 평좌용의 낮은 책상을 말한다. 한자로는 기(几), 서상(書床)이라고도 표기한다. 상판의 길이가 짧은 것과 긴 것이 있다. 장소와 용도에 맞추어 독서용으로는 길이가 짧은 것을 사용하고 두루마리에 글을 쓸 때에는 긴 것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작은방과 침실에는 작은 서안을 비치하였다.

상판 아래에는 선반이나 서랍을 달았고 상판이 곧고 판판한 것을 격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상판의 양끝이 위로 들렸으며 다리와 서랍에 조각 장식을 한 **경상(B2,C2)**은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민간에서도 사용되었다.

특이한 양식으로는 휴대용 서안을 들 수 있다. 휴대용 서안은 서랍이 있어 지필묵을 넣을 수 있고 다리를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어 휴대에 간편하도록 설계되었다.

	<p>조형 1.조형어휘 단순한</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 낫쇠</p> <p>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p> <p>5.장식 투각</p> <hr/>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p> <p>특성 2.용도 독서용, 글쓰는 용도</p> <p>3.사용방식 상판 아래 서랍과 선반</p> <p>4.사용공간 작은방, 침실</p> <p>5.공간이용 평좌용으로 방 한쪽에 배치</p> <p>6.상징의미</p> <hr/> <p>제작 1.몸체구조</p> <p>기법 2.부재구조 낫쇠 손잡이</p>
<p>C1 서안(書案) C1.1서안</p> <p>1시대: 2크기: 590 295 237</p> <p>3재료: 4출처:</p>	
	<p>조형 1.조형어휘 실용적</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 낫쇠</p> <p>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p> <p>5.장식</p> <hr/>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p> <p>특성 2.용도 독서용, 글쓰는 용</p> <p>3.사용방식 여닫이 문</p> <p>4.사용공간 사랑방</p> <p>5.공간이용 평좌용으로 방 한 쪽에 배치</p> <p>6.상징의미</p> <hr/> <p>제작 1.몸체구조 상판 아래 여닫이 장 부착</p> <p>기법 2.부재구조 낫쇠 경첩, 낫쇠 손잡이</p>
<p>C1.2경상</p> <p>1시대: 2크기: 820 280 320</p> <p>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C3	탁자
-----------	-----------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궁궐, 관공서에서의 집무와 연회, 재력 있는 선비, 사대부의 서재에서 사용되었다. 정방형, 원형, 접도록 된 것 등이 있으며 좁고 긴 이 탁자 위에는 붓과 벼루, 서책 등을 두었다. 이 밖에 대(檯)라고 하는 연회용 소탁자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 무용총 접견도와 각저총 주실 북벽 벽화에서 의자와 탁자를 볼 수 있다. 고려 때에는 『고려도경』에 좌탁(坐榻), 좌상(坐床)이라는 낱 것에 관한 명칭이 있으며 청자제 둔(墩)이 유물로 남아 있어 당시의 입식 생활을 입증해 준다.

C6	향안(香案)
-----------	---------------

향안은 향탁 또는 향상이라고도 한다. 향안은 제탁과 형태나 짜임 기법이 유사하나 서랍이 달린 것과 중대에 층널을 얹은 형태가 있으며 크기는 향제구를 놓기에 충분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p>조형 1.조형어휘 세련된, 안정된</p> <p>특성 2.주재료 오동나무, 은행나무 3.부재료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p> <hr/>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p> <p>특성 2.용도 제례용, 향로, 향합 등을 올려 놓음 3.사용방식 서랍 4.사용공간 5.공간이용 제례상 앞에 놓여짐 6.상징의미</p> <hr/> <p>제작 1.몸체구조 다리 하단은 개다리형</p> <p>기법 2.부재구조</p>
<p>C5 향안</p> <p>1시대: 19C, 조선 2크기: 330 240 353 3재료: 오동나무, 은행나무 4출처: 한국의 목공예</p>	

C7	소반
----	----

기물을 받치는 도구로는 탁(卓), 반(盤), 상(床) 등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던 용구였으나 탁(卓)은 주거 생활이 좌식으로 정착되면서 점차 전통적인 제사나 의식 때만 쓰는 도구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높은 다리의 제탁(祭卓), 경탁(經卓), 책탁(冊卓)은 이런 특별한 수요를 위해 제작되었다.

그러나 소반은 사회 규범과 신분 질서가 엄격하여 사랑채, 안채, 행랑채로 구분되었던 생활 공간에서 운반이 손쉬운 형태의 규모, 구조로 제작된 생활 용품이었고 모든 계층이 널리 사용하였던 만큼 그 종류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소반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기에 적당한 높이의 다리와 식기를 받치는 상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반을 위한 기능이 중시된 동구(動具)라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특성이다.

상은 연상(硯床), 책상(冊床), 경상(經床)과 같이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거나 별로 옮기지 않는 데 반하여, 반은 담아서 옮기는 데 사용되는 ‘Tray’의 기능이 크다. 이런 반은 다리가 없거나 짧은 발이 달린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다.

소반은 식기를 받치고 옮기는 기능의 쟁반이면서 방안에서 들어와서는 그대로 상이 되도록 긴 다리를 달아 놓아서 상과 반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이는 침실, 거실, 식당이 분리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지극히 합리적이며 편리한 생활 용구인 것이다. 좁은 방에 식사를 위한 상을 따로 비치하지 않고 식사 후 상을 내가도록 고안한 이중 기능의 소반은 조선인의 기발한 생각의 소산이고 우리만의 특색이다. 이러한 이중 기능이 바로 소반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며 소반의 크기와 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보통 민가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소반의 크기는 그 너비가 50센티미터 내외이다. 이 너비는 한 사람이 소반을 받쳐 들고 부엌에서 마당을 지나 대청을 오르고 그곳을 건너 안방이나 사랑방으로 옮겨가는 데 과도한 힘을 쓰지 않도록 계산된 크기이다. 높이는 25-30센티미터 내외로서 몸을 심하게 구부리지 않고 팔을 움직이는 데도 불편함이 없다.

	<p>조형 1.조형어휘 깔끔한</p> <p>특성 2.주재료 행자목, 소나무 3.부재료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 연당초문의 투각</p>
<p>C6소반</p> <p>C6.1나주반</p> <p>1시대: 19C, 조선</p> <p>2크기: 155 362 273</p> <p>3재료: 행자목, 소나무</p> <p>4출처: 한국의 목공예</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p> <p>특성 2.용도 식기를 받치고 옮김 (상과 반의 기능) 3.사용방식 4.사용공간 주방, 안방, 사랑방 5.공간이용 운반용 6.상징의미</p>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p> <p>특성 2.주재료 은행나무 3.부재료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 당초문 투각, 卍자를 시문한 모양</p>
<p>C6.2해주반</p> <p>1시대: 19C, 조선</p> <p>2크기: 458 360 290</p> <p>3재료: 은행나무</p> <p>4출처: 한국의 목공예</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p> <p>특성 2.용도 식기를 받치고 옮김 (상과 반의 기능) 3.사용방식 4.사용공간 주방, 안방, 사랑방 5.공간이용 운반용 6.상징의미</p>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p> <p>특성 2.주재료 3.부재료 4.표면처리 락커마감 5.장식 자개, 양각</p>
<p>C6.3통영반</p> <p>1시대:</p> <p>2크기:</p> <p>3재료:</p> <p>4출처:</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p> <p>특성 2.용도 식기를 받치고 옮김 (상과 반의 기능) 3.사용방식 4.사용공간 주방, 안방, 사랑방 5.공간이용 운반용 6.상징의미 장수를 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난간이 천판과 상중대 사이에 끼워져 있음</p> <p>기법 2.부재구조</p>

	<p>조형 1.조형어휘 경쾌한</p> <p>특성 2.주재료 가래나무, 버드나무</p> <p>3.부재료</p> <p>4.표면처리 주칠</p> <p>5.장식 음각문양</p>
<p>C6.4 호족반</p> <p>1시대: 19C, 조선</p> <p>2크기: 330 208</p> <p>3재료: 가래나무</p> <p>4출처: 한국의 목공예</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p> <p>특성 2.용도 식기를 받치고 옮김 (상과 반의 기능)</p> <p>3.사용방식</p> <p>4.사용공간 주방, 안방, 사랑방</p> <p>5.공간이용 이동식</p> <p>6.상징의미 다산과 풍요 기원</p> <p>제작 1.몸체구조 천판 아래 초엽에 다리 끼운 죽절형</p> <p>기법 2.부재구조</p>
	<p>조형 1.조형어휘 심플한, 견고한</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p> <p>4.표면처리 주칠, 흑칠</p> <p>5.장식 투각</p>
<p>C6.5 원반</p> <p>1시대: 19C, 조선</p> <p>2크기: 483 295</p> <p>3재료:</p> <p>4출처: 한국의 목공예</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p> <p>특성 2.용도 식기를 받치고 옮김 (상과 반의 기능)</p> <p>3.사용방식</p> <p>4.사용공간 주방, 안방, 사랑방</p> <p>5.공간이용 운반용</p> <p>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원통형 다리, 접시형 상판</p> <p>기법 2.부재구조</p>
	<p>조형 1.조형어휘 정교한</p> <p>특성 2.주재료 은행나무</p> <p>3.부재료</p> <p>4.표면처리 옷칠</p> <p>5.장식</p>
<p>C6.6 일주반</p> <p>1시대: 19C, 조선</p> <p>2크기: 295 245</p> <p>3재료: 은행나무</p> <p>4출처:</p>	<p>기능 1.행위패턴 Put things on</p> <p>특성 2.용도 과일, 약, 냉수 그릇을 올려 놓음</p> <p>3.사용방식</p> <p>4.사용공간 주방, 안방, 사랑방</p> <p>5.공간이용 운반용</p> <p>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네발 위 팔걸이에 네줄 꼬아 올린 기둥</p> <p>기법 2.부재구조</p>


D1	결상
D2	의자

탁자와 함께 의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궁궐, 관공서에서의 집무와 연회, 재력 있는 선비나 사대부의 서재에서 사용되었다. 대로 만든 의자가 여름에 사용되었으며, 중국제의 등직 좌판이 달린 의자를 상품으로 여겼다. 오늘날 스툴이라 불리는 원형, 방형의 **돈(墩)**(D1.1)도 함께 사용되었다. **교의(交椅, D2.1)**는 원래 접을 수 있는 의자이나 제례용 **교의(D2.2)**는 접을 수 없으며 제사 때 신위를 모시는 일종의 의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교의는 앉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보다 신주를 봉안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좌판이 좁으며 또 신좌의 위치가 제상보다 높아야 하므로 다리가 길다.

탈상 전 **계연(几筵)**을 모실 때 쓰는 교의는 **영좌교의(靈座交椅)**라 하며 제사와 사당에서 쓰는 교의를 **신좌교의(神座交椅)**라 부른다.




그림출처 우리문화 이웃문화 p249

	<p>조형 1.조형어휘 실용적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4.표면처리 투명락커마감 5.장식</p>
<p>D1 교율</p> <p>1시대: 조선 2크기: 500 275 425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Seating & Lying, Recling 특성 2.용도 의자 3.사용방식 4.사용공간 5.공간이용 접이식, 이동가능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p>
	<p>조형 1.조형어휘 간편한 특성 2.주재료 3.부재료 4.표면처리 흑칠 5.장식 투각</p>
<p>D2 교의(交椅)</p> <p>1시대: 현종 9년(1668) 2크기: 774 93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Seating & Lying, Recling 특성 2.용도 의자 3.사용방식 4.사용공간 5.공간이용 접이식, 이동가능 6.상징의미</p> <p>제작 1.몸체구조 좌판을 끈으로 엮음 기법 2.부재구조</p>

E1	평상(平牀)
----	--------

우리나라의 실내용 **평상(E1.1)**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다리와 난간이 낮고 바닥은 목재의 띠살 또는 대쪽을 대었으며 두 개를 맞붙여 사용하도록 된 짝평상이 특징이다. 여름에는 띠살 사이로 통풍이 되어 시원하며 겨울에는 온돌의 온기가 띠살 사이로 올라와 따뜻하다. 평상 위에 여름에는 등자리를, 겨울에는 보료나 담요를 깔았다. 이 평상은 두 쪽으로 나뉘어져 이동하기에 편하며 겨울에는 방에, 여름에는 누마루에 두었으며 때에 따라 밖에서도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동수묘(冬壽墓), 사신총(四神塚), 쌍영총(雙楹塚) 등 여러 고분 벽화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평상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인조 때는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평상의 사용이 줄었으나 최근까지도 애용되고 있다.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p> <p>특성 2.주재료</p> <p>3.부재료</p> <p>4.표면처리 옷칠</p> <p>5.장식 띠살 장식</p>
<p>E1 평상, 平床</p> <p>1시대: 조선</p> <p>2크기: 2230 900 510</p> <p>3재료:</p> <p>4출처: 전통 목가구</p>	<p>기능 1.행위패턴 Seating & Lying, Recling</p> <p>특성 2.용도 앉거나 누움</p> <p>3.사용방식</p> <p>4.사용공간 방, 누마루</p> <p>5.공간이용 사랑대칭, 침방(분리되어 실내.외로 이동가능)</p> <p>6.상징의미 사대부의 지위</p>
	<p>제작 1.몸체구조 다리, 낮은 난간</p> <p>기법 2.부재구조</p>

E2	궤(几, 7-5/7-6)
-----------	----------------------

궤(几)는 앉았을 때 겨드랑이 밑에 괴어 편히 기대게 하는 제구이다. 신라 문무왕 때 중국 한나라 공광(孔光)의 고사에 의거하여 삼국통일에 공을 세운 김유신에게 궤장을 하사하기 싣가한 이래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말기까지 그 전통은 계승되었다.

궤의 양식은 크기(총길이 70~75cm, 높이 30cm 정도)가 크고 장식은 운문, 영지 등을 음양각하였으며 양측에 투공된 판각의 다리를 대었다. 일반인들의 사제 팔걸이는 규모가 작으며 투각한 세 개의 다리로 상하 판을 연결시켰고 위아래의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 기능적</p> <p>특성 2.주재료 3.부재료 4.표면처리 락커마감 5.장식 십장생 투각</p> <hr/> <p>기능 1.행위패턴 Seating & Lying, Recling</p> <p>특성 2.용도 겨드랑이 밑에 괴어 기대는 제구 3.사용방식 4.사용공간 사랑방 5.공간이용 이동식 6.상징의미 장수기원</p> <hr/> <p>제작 1.몸체구조 세 개의 다리로 상하판 연결 기법 2.부재구조</p>
<p>E2 궤 E2.1a 궤 1시대: 2크기: 460 120 26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 기능적</p> <p>특성 2.주재료 3.부재료 4.표면처리 락커마감 5.장식 운문 음양각</p> <hr/> <p>기능 1.행위패턴 Seating & Lying, Recling</p> <p>특성 2.용도 겨드랑이 밑에 괴어 기대는 제구 3.사용방식 4.사용공간 사랑방 5.공간이용 이동식 6.상징의미</p> <hr/> <p>제작 1.몸체구조 두 개의 다리로 상판 연결 기법 2.부재구조</p>
<p>E2.1b 궤 1시대: 조선 2크기: 736 210 310 3재료: 4출처: 전통 목가구</p>	


E3	보료, 안석, 사방침, 장침
D3	방석

보료(E3.1)는 요의 한 종류로, 솜이나 짐승의 털로 두껍게 속을 넣고 형겅으로 짜서 선을 두르고 가장자리를 누벼서 단단하게 만든 아랫목 깔개이다. 안방과 사랑방 등의 방치레로 항상 깔아 두는데, 낮에 그 위에 앉거나 눕는데 사용하지만 밤에 잠을 잘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석(D3)은 보료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으나 크기가 작고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 한 사람이 깔고 앉기 위한 것이다.

안석(案席: E3.2)은 등받이로서, 윗부분은 대개 높고 낮은 산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원래 우모(牛毛)나 돈모(豚毛)를 넣어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솜을 넣고 누벼서 만든다. 한가운데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글씨를 수놓거나 거북·학·봉황 등을 수놓기도 하였다.


사방침(四方枕: E3.3)은 정육면체의 베개로서, 팔꿈치를 괴고 비스듬히 기대앉은 용도로 쓰였고, **장침(長枕)**은 사방침과 용도는 같으나 사방침보다 가로가 긴 형태를 말한다.

	조형	1.조형어휘 단단한
	특성	2.주재료 솜, 형겅 3.부재료 4.표면처리 누빔 처리 5.장식 거북, 학, 봉황등의 동물 수 놓음
E3 보료 D3 방석	기능	1.행위패턴 Seating & Lying, Recling
	특성	2.용도 아랫목 깔개 3.사용방식 방 치레로 항상 깔아 둠 4.사용공간 안방, 사랑방 5.공간이용 아랫목에 배치 6.상징의미 장수 등 상징동물 수 놓음
1시대: 2크기: 3재료: 4출처:	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

F1	이부자리
----	------

이불과 요,(F1.2, F1.1) 한자로는 금(衾)이라 한다. 궁중용 이부자리 : 색상이나 천이 매우 화려하고 다양하였다. 일반적으로 궁중의 이불은 범에 덮기 때문에 솜을 얇게 넣는 것이 원칙이었다. 추울 때는 처네를 포개어 덮는다. 또한 민간과 다른 것은, 이불잇이 거죽으로 넘어오지 않게 시치고, 그 대신에 깃에 비단으로 동정을 단다. 처네는 이불잇을 시치지 않고 동정만 단다. 요잇은 거죽으로 넘어오게 시치지만 민간의 것처럼 넓지 않다. 천은 겨울용으로 도류단(挑榴緞), 가을용으로는 수화주(水禾紬).왜주(倭紬) 등의 명주류, 여름용으로는 별문영초나 향라같은 얇은 옷감을 사용하였다. 이불잇은 여름에는 모시, 그 밖에는 서양사를 썼다.

일반 서민용 이부자리의 형태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착포단이라는 이불과 부포단이라는 요가 있는데 계절에 따라 구별되었다. 이불의 겉감은 대개 무명.광목.명주.나사류 등이 쓰였고, 안감은 겉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주로 무명류를 많이 썼다. 새깔도 남성용은 감색.흑색.적색 등을, 여성용은 초록색.적색.분홍색 등을 썼으며, 동정은 두 경우 모두 흰색이었다. 요의 솜은 대개 목화 솜을 넣었다.

	<p>조형 1.조형어휘 다양한, 부드러운</p> <p>특성 2.주재료 명주, 면, 목화솜</p> <p>3.부재료</p> <p>4.표면처리</p> <p>5.장식 색실로 여러 가지 문양 수 놓음</p> <hr/> <p>기능 1.행위패턴 Lying</p> <p>특성 2.용도</p> <p>3.사용방식 잠잘 때 깔고 덮음</p> <p>4.사용공간 안방, 사랑침방</p> <p>5.공간이용 접어 개고 펴수 있어 어느곳에서나 사용가능</p> <p>6.상징의미</p> <hr/> <p>제작 1.몸체구조</p> <p>기법 2.부재구조</p>
<p>E1 이부자리</p> <p>E1 이불과 요</p> <p>1시대: 조선시대</p> <p>2크기:</p> <p>3재료:</p> <p>4출처: 고유이미지</p>	

F2	베개
-----------	-----------


잠을 자거나 누울 때 머리를 괴는 물건. 한국의 전형적인 **베개(F1.1)**는 형겼으로 길게 만들어 왕겨,메밀 껍질로 속을 넣고 봉한 뒤, 흰색 무명 천으로 호청을 만들어 겉을 짠 것이다.

양쪽모는 둥글게 하여 밀려나지 않도록 조를 넣어 만든다. 신혼부부의 베개는 구봉침(九鳳枕)이라 하여 신랑 신부가 같이 벨 수 있도록 약 50cm 길이로 만들고, 7마리 새끼를 거느린 봉황 한 쌍을 수놓는다. 노인이나 환자를 위한 베개는 불로침(不老枕)이라 하여 베개통의 사방과 양쪽모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 12쪽으로 연결하고 6개의 구멍과 맞는 연통을 만들어 속에 넣어 뚫어진 곳과 각각 바느질한다. 탄탄하게 속을 넣었으므로 베개 속은 사방 6개로 된 통로가 있어, 장시간 베고 있어도 머리에 부담이 적고 상쾌한 느낌이 든다.

베갯모(F2.2)는 베개의 양 끝부분을 막는 마구리로 자수를 놓은 것, 목재판에 양각한 것, 나전칠기, 회각등의 재료를 이용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네모난 것은 여자용, 둥근 것은 남자용인데 이것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해 음양(陰陽)을 뜻하는데 간혹 여자들이 둥근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이 무늬가 시문된 얇은 판재 (8~12mm)의 둘레에 여러개의 구멍을 뚫어 꿰매거나, 주석으로 테두리를 견고하게 두른 후 베갯잇무늬는 보이게 하고 주변의 주석은 덮어 씌워 고정시키는 형식을 취한다.

	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 특성 2.주재료 은행나무 3.부재료 주석장석 4.표면처리 주칠 5.장식 양각
	기능 1.행위패턴 Lying 특성 2.용도 누울 때 사용 3.사용방식 4.사용공간 안방, 사랑방 5.공간이용 이동식 6.상징의미 장수기원 문양
F2 베개 F2.1 베갯모 1시대: 조선 2크기: 3재료: 4출처: 한국의 목공예	제작 1.몸체구조 기법 2.부재구조

F3	퇴침
-----------	-----------


퇴침(退枕)은 휴식할 때 사용하는 베개로서, 주로 사대부집 사랑방에서 남성들이 낮잠을 잘 때 사용하였다. 궤 모양으로 만든 남성용 베개. 빗 등을 넣어두는 서랍이 달린 것이 많고 베개보다는 탄력이 있다. 종류로는 직사각형으로 된 목침, 사방을 막고 살구씨 등을 넣어 소리나게 만든 것, 판재로 짜 복판에 풍혈을 뚫은 풍침(風沈), 나전을 박아 만든 나전침(螺鈿枕) 등이 있다. 사랑방이나 주막에는 토막나무를 적당히 베어 사용하였고,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은 표면을 우툴두툴하게 깎아 잠을 쫓기도 하였다. 고급품은 옷칠을 하거나 황경피를 입히거나 낙동법(烙棟法)으로 침향색을 내기도 하였다.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퇴침을 만들어 베면 곶은 일이 사라진다고 여겼다. 이 밖에 도침(陶枕)은 자기로 만들어 여름철에 많이 쓰이던 고급품이며 골침(骨枕)은 전라남도 나주 지방 특산물로 벗짚을 눌러 형겼으로 짠 것이다.

목침(F3.1)은 우수(牛睡)를 즐기거나 잠시 누울 때 베개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며, 단단한 목질(木質)은 후두부(後頭部)에 지압(指壓)효과를 주기도 하여 노인들이 즐겨 사용했다. 목침은 실내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작고 맵시 있게 만들어지는데, 두꺼운 통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네 귀를 판재로 짜서 맞춘 것, 무늬를 투각한 것, 자개로 시문한 것, 대나무로 짠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p>조형 1.조형어휘 장식적</p> <p>특성 2.주재료 은행나무 3.부재료 4.표면처리 락커마감 5.장식 사슴, 소나무 문양 투각</p>
<p>F3 퇴침</p> <p>F3.1 목침</p> <p>1시대: 조선</p> <p>2크기:</p> <p>3재료:</p> <p>4출처: 한국의 목공예</p>	<p>기능 1.행위패턴 Lying</p> <p>특성 2.용도 휴식할 때 사용 3.사용방식 4.사용공간 사랑방 5.공간이용 이동식 6.상징의미 장수 기원</p>
	<p>제작 1.몸체구조</p> <p>기법 2.부재구조</p>

F4	죽부인
----	-----

죽부인은 죽레라고도 불리는데, 죽침과 더불어 여름철을 시원하게 즐기기 위한 사랑방 소품이다. 죽부인은 대나무를 열두 날로 쪼개어 연통처럼 안을 비워 놓고 짜여진다. 따라서 여름철에 죽부인을 안고 자면 살과 살이 닿지 않아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또한 크기가 사람의 몸통 정도여서, 안고 자기에 적당해 죽부인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죽부인은 대를 물려 사용하지 않는다는 관습이 있어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이 많지 않다.

	<p>조형 1.조형어휘 짜임새 있는</p> <p>특성 2.주재료 대나무 3.부재료 4.표면처리 5.장식</p>
F4 죽부인	<p>기능 1.행위패턴 Lying</p> <p>특성 2.용도 여름철 취침용 3.사용방식 통풍을 위해 안고 짐 4.사용공간 사랑방 5.공간이용 6.상징의미</p>
<p>1시대:</p> <p>2크기:</p> <p>3재료:</p> <p>4출처:</p>	<p>제작 1.몸체구조</p> <p>기법 2.부재구조</p>

G	공간 구획기구 (Partition Device)
----------	-----------------------------------

G1 병풍

병풍은 방안이나 마루에 둘러쳐서 바람을 막거나 시선을 가리기 위한 가리개로서, 벽면을 장식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병풍은 직사각형의 나무틀에 종이를 여러 겹 바른 후 그림이나 서예, 자수 등을 붙여 장식하였다. 폭과 폭은 주로 직물로 접합시켜, 접었다 폈다 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폭인 것에서부터 네 폭, 여섯 폭, 여덟 폭, 열 폭, 열두 폭 등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두 폭으로 된 것을 보통 가리개 또는 곡병(曲屏)이라 하고, 머리맡에 치는 얇은 병풍을 머리병풍 또는 침병(枕屏)이라고 부른다. 열두 폭 병풍은 운반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둘로 나누어 여섯 폭씩 만들기도 하였다. 한 폭의 나비는 일반적으로 36-45cm이나 높이는 60-180cm 정도로 다양한데 장식과 용도에 따라 높낮이를 다르게 하였다.

사랑방에 놓이는 병풍에는 유명한 한시나 좌우명 같은 글이나 금강산 일만 이천봉, 관동팔경 등의 그림이 많았으며, 노부모의 방에는 백수백복(白壽白福)의 그림, 화조, 십장생 등의 그림이 있는 병풍이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다. 여성들이 거처하는 규방에는 채색 인물화(彩色人物畫), 사군자 등의 그림이 있는 병풍이, 혼례에는 백자도(白子圖), 행락도(行樂圖), 요지연도(搖池宴圖) 등의 그림이 있는 병풍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가리개나 머릿병풍에는 꽃, 새, 나비 등이 그려져 있는 등 실내의 분위기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였다.

G2 발

발은 여름에 보통 창문이나 대청에 쳐서 시선이나 햇볕을 막고 바람을 통하게 하기 위해 갈대 또는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실로 엮어서 만든 가리개를 말한다. 한여름 띄약벌을 가리는 발은 방 안 분위기를 시원스럽고 아늑하게 만들고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막아 준다. 발의 문양과 금속발걸이와 매듭이 이루는 조화 때문에 발은 벽면 장식용으로도 쓰인다.

H	조명기구(Lighting Device)
---	------------------------------

H1 촛대

조선시대에는 초가 희귀하여 사회계층에 따라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고, 초 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상류층의 실내조명에 사용되었다. 의식용이 아닌 일상용도로 사용된 촛대는 사각이나 원형의 받침 위에 등간주를 세우고 그 위에 다양한 초받침을 세운 상태였다.

H2 등잔

토기, 청자, 백자 등의 도자기나 금속, 옥석을 사용하여 만든 단순한 사발을 말하며, 등잔을 거는 등경을 등잔이라고도 한다. 등경은 사각, 팔각, 원형의 밑판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단, 삼단의 층을 내어 등잔높이를 자유롭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밑판에는 성냥이나 부젓가락을 놓아두거나 때로는 재떨이로도 사용되었으며, 서랍을 만들어 소도구를 넣기도 하였다. 크기는 주택의 구조와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의 앉은키에 맞추어 40-90cm 정도였으며, 재료는 주로 목재를 사용하였다.

H3 초롱

내부에 초를 넣어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등기로서 의식에 사용하는 사축롱, 야행용인 지축롱, 순라꾼이 순라를 돌 때 사용하던 조족등 등이 있다. 형태는 사각, 육각, 팔각으로 되어 있고, 접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군자, 산수화, 화조화 따위를 채색하기도 하는 등 형태가 다양하고 장식적 요소가 많이 사용되었다. 손잡이는 끈을 모아 만든 것, 죽절마디를 이용하여 만든 것, 나무로 조각한 것 등이 있는데 손잡이의 안을 비워서 여분의 초를 끼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H4 좌등

좌등은 직육면체 모양의 등 내부에 초나 등잔을 넣어 방안에 놓아두는 조명기구이다. 좌등은 네 옆면의 안쪽에 비단이나 한지를 바르고, 한 면은 문으로 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대개 1m내외이며 사각, 육각, 팔각형 등으로 되어있고 아래쪽에는 서랍이 있어 부싯돌, 초 등을 넣어 두었다.

H5 등롱

등롱은 처마밑 이나 외부 기둥에 거는 외부 조명기구로 양각등, 사방등, 유리등, 청사, 홍사초롱이 있다. 주로 옥등석으로 제조되어 권위를 상징하거나 종교적 성격을 띄고 있다.

제 4 절 조선조 가구의 상대적 특성

1.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특성비교

조선조 가구의 특성을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동시대 전통가구들과 비교함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선조 가구를 볼 수 있게 한다. 본 절에서는 2장 3절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토대로 한.중.일 세나라 가구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미지맵 상에 배치하여 조선조 가구의 외형에 나타난 특성과 문화적 영향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지는 시각언어로서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이며, 종합적이고 상징적인 정신작용의 일환으로 세나라 가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사료된다. 각국 가구의 전체유형을 하나의 이미지 맵에 담기 위하여 X축은 가구의 이동성을 Y축은 사람의 가구사용자세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중.일 전통가구의 문헌을 통한 특성을 이어지는 표에 정리하였다.

가. 한국가구의 문화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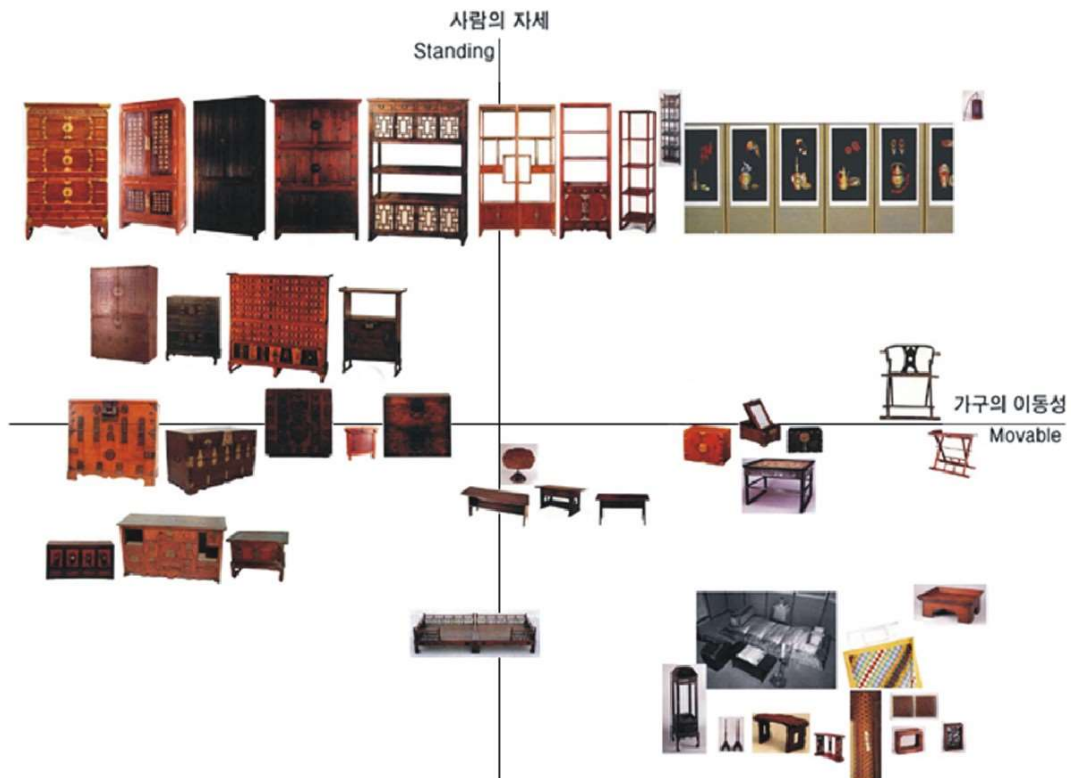


그림 27 조선조가구의 유형 이미지맵



그림 28 사랑방의 가구배치, 그림출처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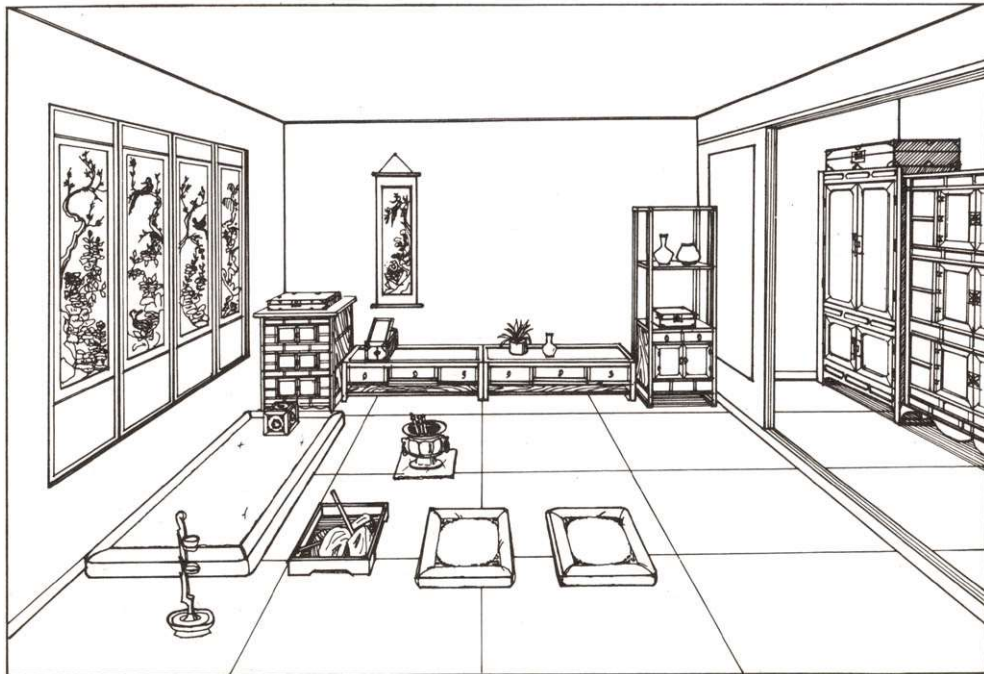


그림 29 안방의 가구배치 그림출처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주거환경과 가구		-산림이 풍부하여 다양하고 선명한 나이테를 가진 수종을 이용하여 자연 무늬결을 살림 -한서차가 심한 기후조건과 거목이 부족한 여건에서 골재와 좁은 면재로 전면 재구성, 독특한 비례미 형성 -전면구성의 특성상 이음과 짜임의 결구기법 발달
주거공간과 가구	주거양식	-평좌식 생활로 가구도 낮고 간결하게 제작 -공간 활용에 효과적인 유동성을 고려하여 가구 발달
	실내구조	-단순하고 쾌적한 비례를 가진 사랑방 가구와 색이 밝고 화사하며 아기자기한 안방가구로 나뉘어 발달 -지면 위를 띄워 축조된 건물과 여름의 마루, 겨울의 온돌바닥으로 인해 사람과 가구를 매개 할 Furniture 보다는 Furnishing의 개념으로 발달
조형특성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림 -전체형은 직선적이나 부분적 곡선의 가미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며 소박한 이미지를 지님

표 41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특성

나. 중국 명, 청 대 가구의 문화적 특성



그림 30 중국 명,청 대 가구의 유형 이미지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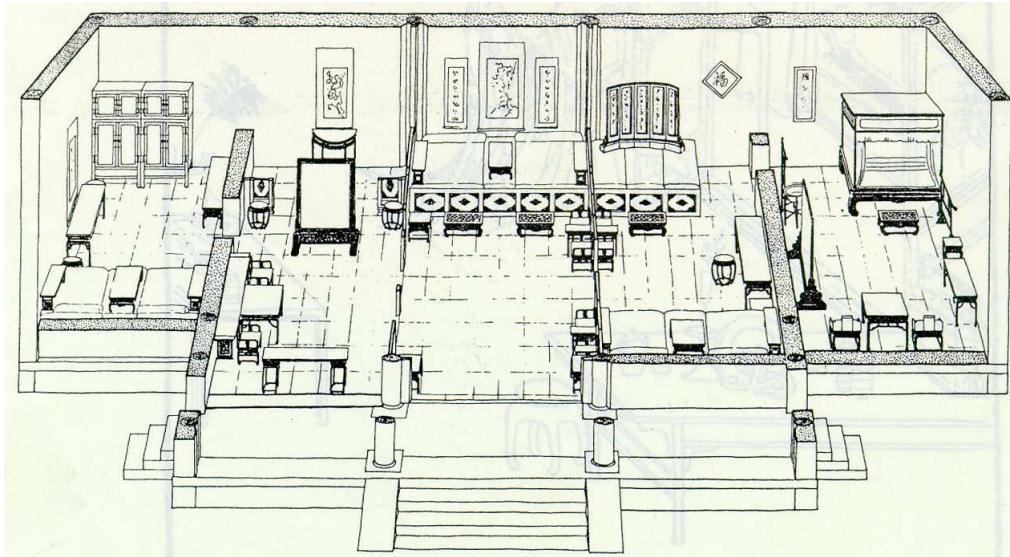


그림 31 정당의 가구배치 평면도, 그림출처 중국 고대건축사



그림 32 정당의 가구배치도, 그림출처 중국 고대건축사

주거환경과 가구		-열대 경질목의 수입: 넓은 판재의 전면구성 가능하고, 결구기법 발달. 세밀한 조식 및 선각 가능, 그 결과 개방적이고 우아한 형태 -신사층의 절제와 우아한 취향이 반영된 경질가구 발달
주거 공간과 가구	주거 양식	-입식 생활(북부는 입식과 평좌식의 혼용)로 인하여 의자 및 탁자류가 발달함
	실내 구조	-목조 양식의 건물이 기단 위에 바로 축조된 실내공간의 바닥은 석판이 깔려 있어 건물과 사람을 매개하는 입식 가구류가 발달함 -위계적인 공간구성 원리에 의해 한조를 이루는 일궤의(一几二倚), 이궤사의 등의 가구배치법과 궤(櫃), 주(櫥)등도 한쌍으로 제작, 형태도 대칭적임
조형특성		-재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재료의 색과 무늬결을 살림 -체형이 중후하고, 비례가 적당하며, 단정하며 명대의 가구는 간결하고 소박한 반면 청대에 이르러 등 장식이 많고 섬세함

표 42 중국 명, 청대가구의 문화적 특성

다. 일본 모모야마, 에도시대 가구의 문화적 특성



그림 34 일본 모모야마, 에도시대 가구 유형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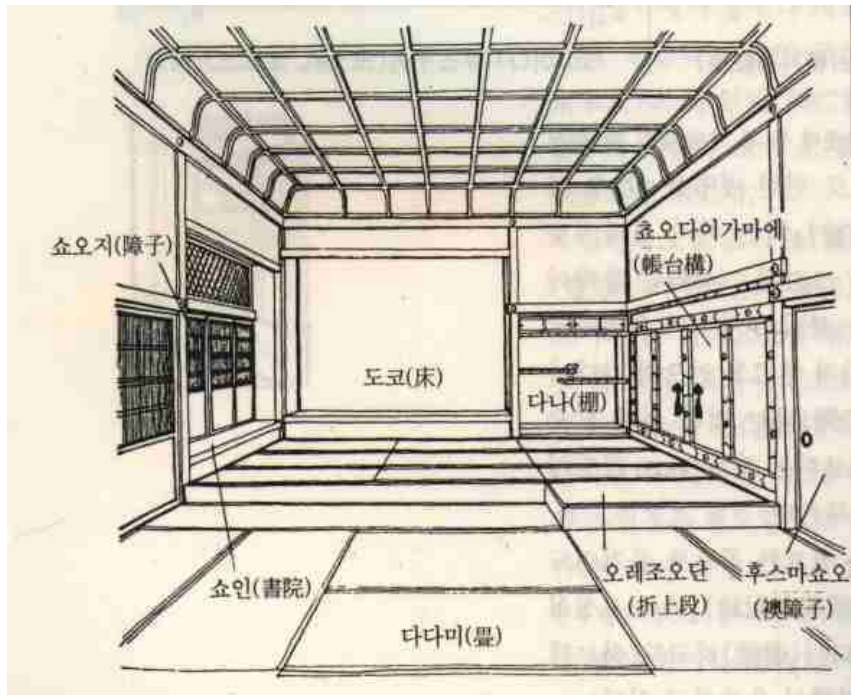


그림 36 쇼인조 서원의 가구배치, 그림출처 일본건축사

주거환경과 가구		- 고온 다습하고 불안정한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가구의 소형화를 초래했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칠가구의 발달 -무사계급의 사상적 배경이 된 쯤 철학의 영향으로 검소하고 비대칭적인 가구발달
주거 공간과 가구	주거 양식	-평좌식 주거의 영향으로 가구의 전면성이 강하게 부각
	실내 구조	-쇼인조 양식의 성립으로 사물과 가구를 매개하는 가구류가 실내구조로 흡수되어 모듈화 불박이화 됨 -역시 지면 위를 올려 축조된 목조양식의 주택으로 실내바닥이 부드러운 다다미로 되어 있어 한국과 같이 Furnishing의 개념으로 발달
조형특성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가짐 -비대칭형을 선호

표 43 일본 전통가구의 문화적 특성

라. 한. 중. 일 전통가구의 문화적 특성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한. 중. 일 전통가구의 문화적 배경에 의한 특성을 다음의 표에 비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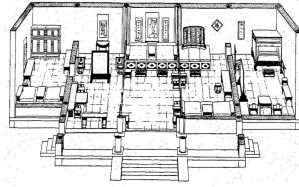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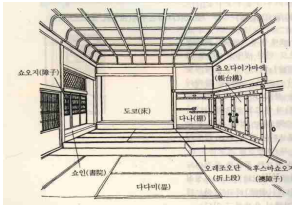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
주거환경 과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이 풍부하여 다양하고 선명한 나이테를 가진 수종을 이용하여 자연 무늬결을 살림 ▶한서차가 심한 기후조건과 거목이 부족한 여건에서 골재와 좁은 면재로 전면 재구성, 독특한 비레미 형성 ▶전면구성의 특성상 이음과 짜임의 결구기법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대 경질목의 수입: 넓은 판재의 전면구성 가능하고, 결구기법 발달. 세밀한 조식 및 선각 가능, 그 결과 개방적이고 우아한 형태 ▶신사층의 절제와 우아한 취향이 반영된 경질가구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온 다습하고 불안정한 연환경의 영향으로 가구의 소형화를 초래했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칠가구의 발달 ▶무사계급의 사상적 배경이 된 제 철학의 영향으로 검소하고 비대칭적인 가구발달
	주거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좌식 생활로 가구도 낮고 간결하게 제작 ▶공간 활용에 효과적인 유동성을 고려하여 가구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식 생활(복부는 입식과 평좌식의 혼용)로 인하여 의자 및 탁자류가 발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좌식 주거의 영향으로 가구의 전면성이 강하게 부각
주거공간 과 실내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하고 쾌적한 비레를 가진 사랑방 가구와 색이 밝고 화사하며 아기자기한 안방가구로 나뉘어 발달 ▶지면 위를 띄워 축조된 건물과 여름의 마루, 겨울의 온돌 바닥으로 인해 사람과 가구를 매개할 Furniture 보다는 Furnishing의 개념으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조 양식의 건물이 기반 위에 바로 축조된 실내공간의 바닥은 석판이 깔려 있어 건물과 사람을 매개해주는 입식 가구류가 발달함 ▶위계적인 공간구성 원리에 의해 한 조를 이루는 일체이의, 이례사의 등의 가구 배치법과 퀘(櫃), 주(櫥)등도 한쌍으로 제작하였고 형태도 대칭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인조 양식의 성립으로 사물과 가구를 매개하는 가구류가 실내구조로 흡수되어 모듈화, 불박이화 ▶역시 지면 위를 올려 축조된 목조양식의 주택으로 실내바닥이 부드러운 다다미로 되어 있어 한국보다 가구가 더 생략
	실내구조			
조형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림 ▶비대칭의 대칭 ▶전체형은 직선적이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며 소박한이미지를 지님 ▶직선과 곡선의 조화 ▶면분할의 비레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재료의 색과 무늬결 살림 ▶정대칭형 선호 ▶체형이 중후하고, 비레가 적당하며, 단정하며 명대의 가구는 간결하고 소박한 반면 청대에 이르러 조각 등 장식이 많고 섬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가짐 ▶비대칭형을 선호 ▶무늬결 드러나지 않는 순백의 자연목 선호
	조형특성			

표 44 한 중 일 전통가구의 문화적 특성 비교표

가구유형 비교를 통해 나타난 한.중.일 전통가구의 가장 두드러진 보편성은 거의 대부분이 장방형의 직선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중국이 평좌식과 입식의 가구가 골고루 발달해 있는데 비해 한국은 평좌식의 낮고 간결한 수

납위주의 가구가, 일본은 가구가 실내구조로 흡수되고 소품위주로 발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환경, 사회, 경제적조건 등 제반 여건의 영향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가구양식이 주택구조와의 융화를 바탕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석조 건축이 발달한 서양에 비해 한.중.일 전통주택은 목구조 양식을 취하고 있고,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목구조 양식은 가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골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구조에서 보여주는 강직함을 완충하기 위하여 모서리나 다리, 풍혈 부분에 곡선을 사용하거나 조각을 하였다. 조각은 이러한 용도 외에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있으며 가구에 적용된 조각의 형태도 대체로 평면적이고 소박한 형태이며 거의 대부분의 조각이 부차적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칠가구는 가구의 전면에 장식문양을 적용하고 있다.

또 다른 두드러진 차이점은 기단 위에 건물이 바로 올려져 있고 실내바닥은 석판이 깔려 있는 중국의 주택양식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모두 지면 위에 건물이 올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차가운 바닥과 사람을 매개하는 입식가구가 발달하였고, 한국은 마루와 온돌이 일본은 다다미가 신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소프트한 퍼니싱(furnishing)개념의 가구가 더 발달하였다. 또한 가구배치와 가구양식에 있어 중국은 엄격한 대칭을, 한국은 비대칭의 대칭을 일본은 비대칭의 조형미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유.불.선의 동일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정체성이 표현된 결과로 보인다.

목재사용에 있어서는 가구의 몸체에 사용된 목재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가구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일본은 쉬쓰라이 라고 해서 무늬결이 없는 자연목에 투명 도장한 가구를 발달시키기도 했지만, 한.중.일 전통 가구는 대체적으로 자연의 목리가 드러나는 것을 선호해서 상감단판을 가구의 기본 판면에 부착시키기보다는 자연적인 무늬결을 살려서 판재를 대칭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가구의 전면에 배열하고, 목리가 드러나는 투명도장이 많이 사용했다.

나. 조선조 가구의 조형특성 비교

한 중 일 가구의 문화적 특성 비교에 이어 본 단락에서는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이미지 포지셔닝맵을 통하여 한.중.일 전통가구의 조형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포지셔닝맵이란 마케팅용어로서 여러개의 경쟁제품군을 동일공간에 위치시켜 봄으로써 경쟁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략적 도구로 이 방법을 통하여 한.중.일 전통가구의 조형특성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리라 생각된다.

포지션이란 소비자들이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공간상의 위치를 말하는데, 이는 자사의 제품 하나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제품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사와 경쟁사의 상대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포지셔닝맵이라 하는데, 다차원 평가척도법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다차원 평가척도법이란 각 제품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상태를 기하학적인 거리로 환산하여 위치시킴으로써 평면이나 다차원 공간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면이나 공간을 구성하는 축이 바로 차원이 되며 이러한 축이 바로 대상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며, 각 축상의 좌표가 각 제품들에 대한 평가점수가 되는 것이다. 11)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한.중.일 전통가구의 조형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아래의 이미지맵은 제품이미지 비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 이미지 공간이다. 여기에 한중일의 조형 표출미에 관한 형용사들을 대입한다면, 한.중.일 전통가구의 조형특성비교를 위한 새로운 형용사 이미지 공간이 생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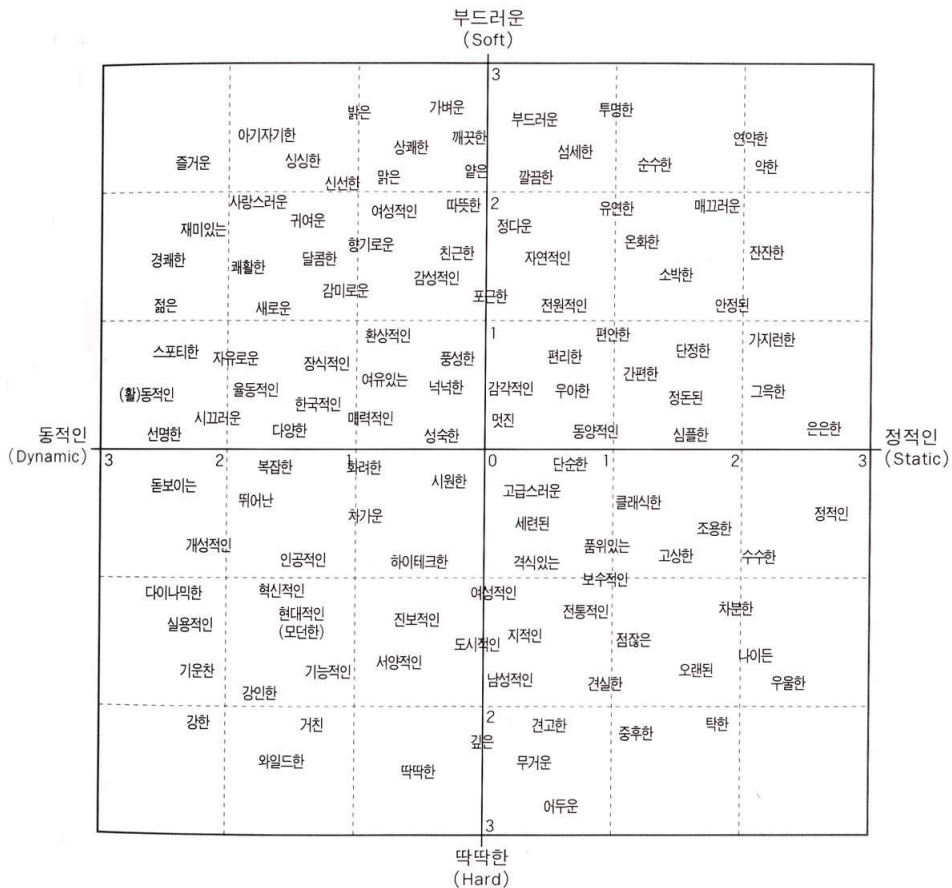


그림 40 형용사 이미지공간,
색채 기호 유형 추출에 관한 연구

11) 채서일, 마케팅 조사론, 무역경영사, 1987, p500

한편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 연구¹²⁾에서는 한중일의 조형미에 관한 제 이론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조형 표출미에 관한 형용사 어휘들을 추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조형 표출어휘
한국	순박한, 생략의, 대범한, 자연적인, 순리의, 안정적인, 솔직한, 무딘, 둔한, 가벼운, 실용적인, 알맞은, 간결한, 단순한
중국	치장적인, 기교적인, 섬세한, 다채로운, 다양한, 변화 있는, 번잡한, 세련된, 화려한, 권위적인, 신비로운
일본	알맞은, 간결한, 단순한, 모듈의, 규칙적인, 직각의, 작위적인(인공적인

표 45 한중일의 표출미-형태

그러면 기존의 형용사이미지 공간에 상기의 형용사들을 대입하여 한.중.일 전통가구의 조형특성을 비교 하기위한 새로운 이미지 공간을 생성하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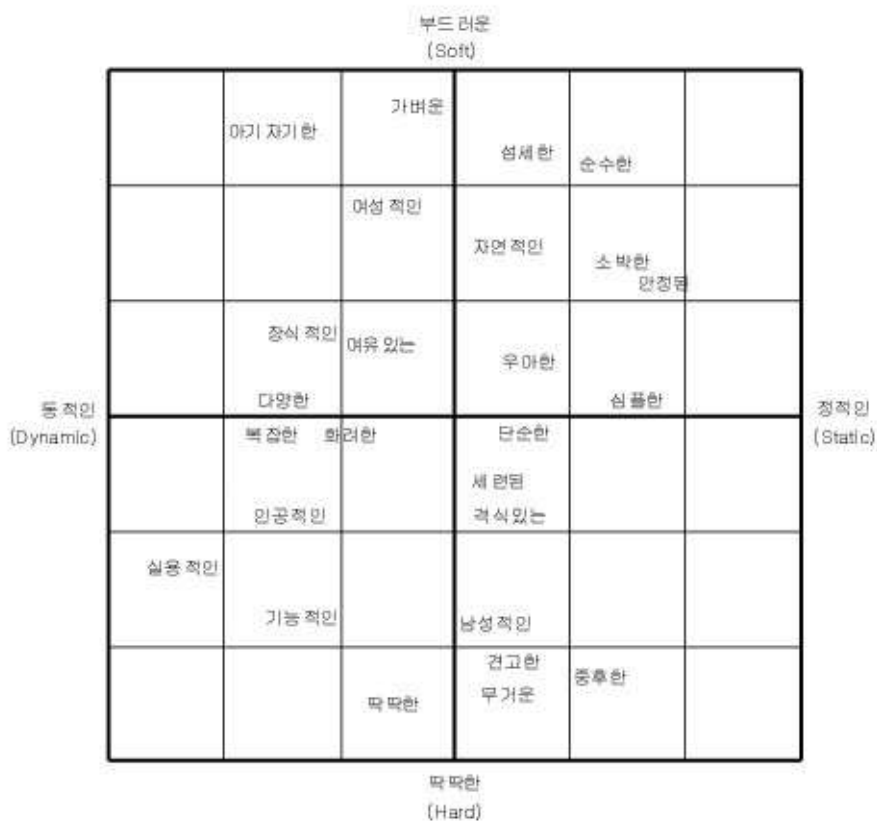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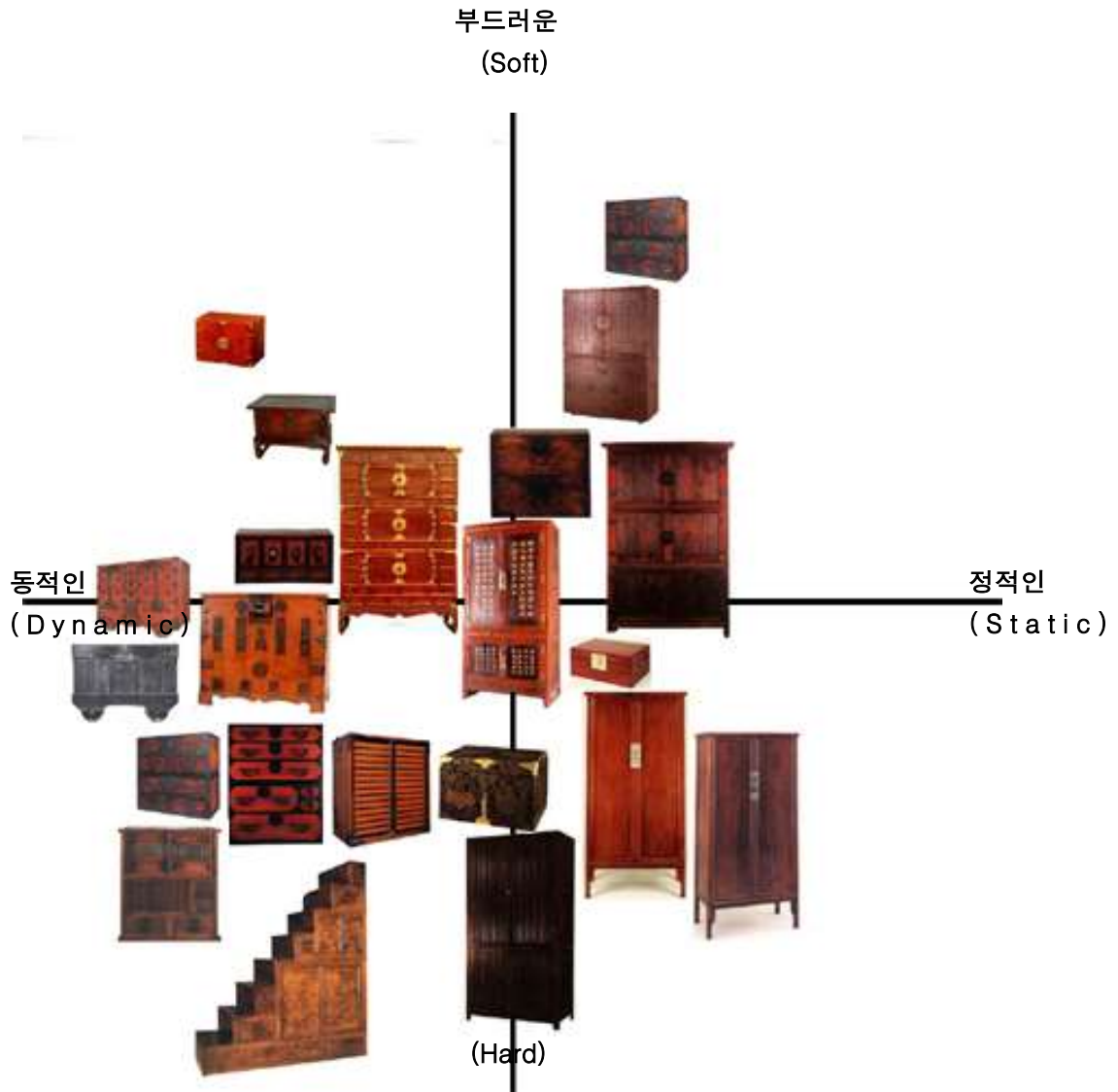


그림 41 추출된 조형어휘를 대입, 생성된 이미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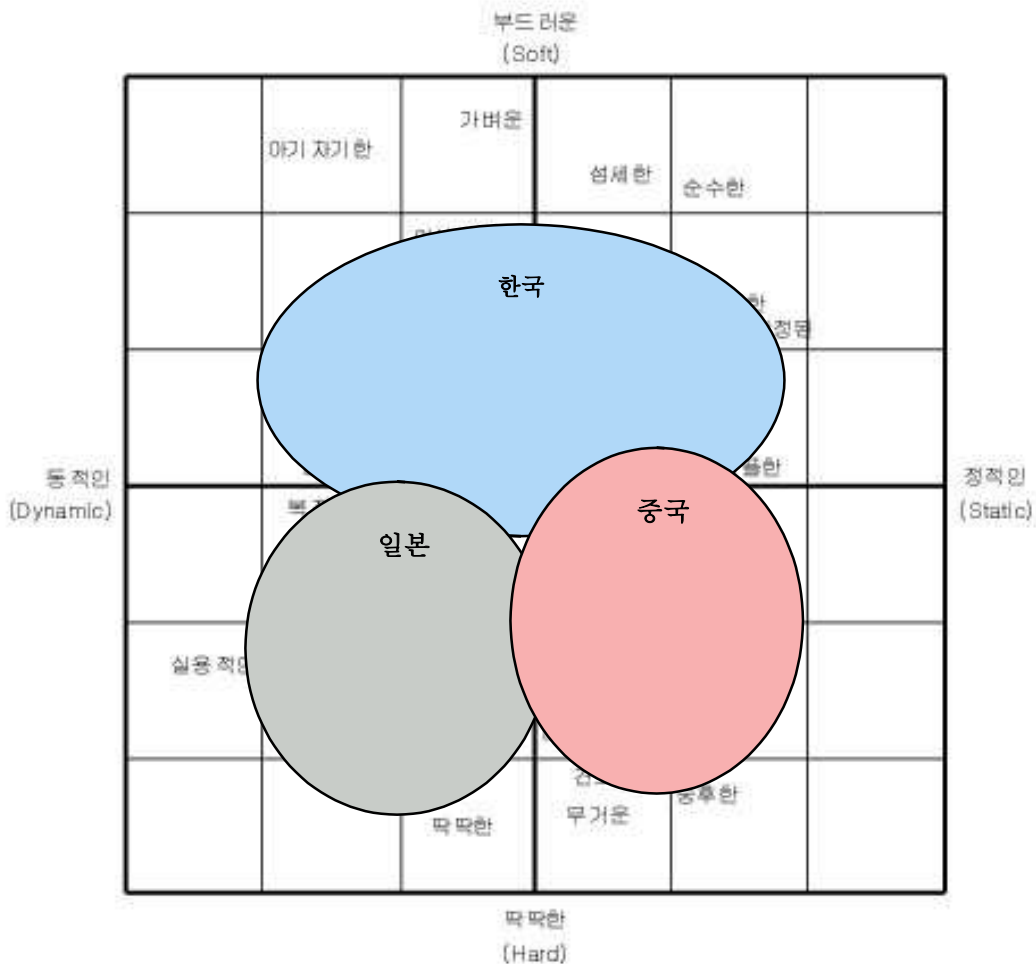
12) 민경우외,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연구, 산업자원부, 1997, P260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공간에 한.중.일 전통가구를 각 유형별로 배치하여 조형 특성을 비교하고 그 특성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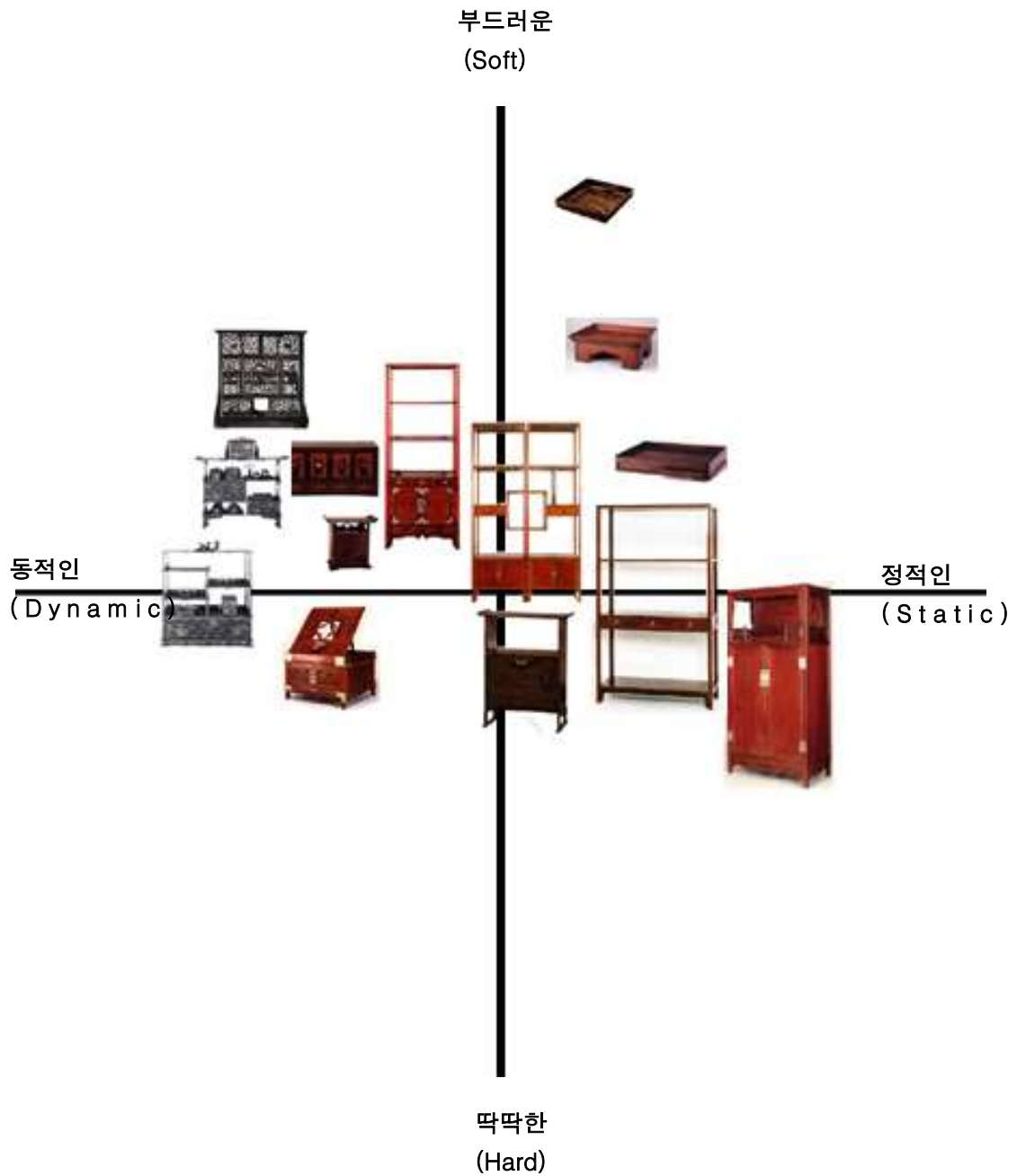
가. A. 유형(Put things in)의 이미지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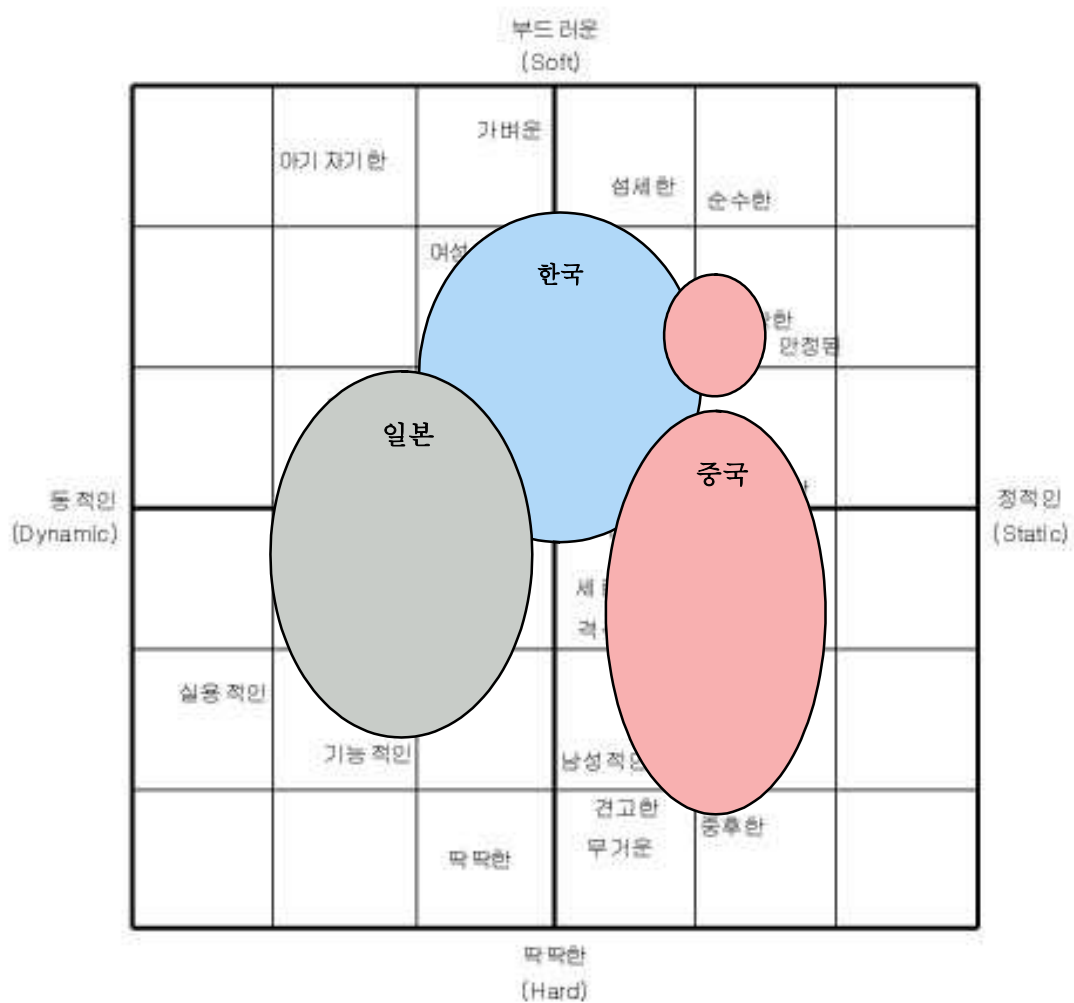
위의 이미지맵에 따르면 A유형의 한국가구는 이미지공간에서 일본과 중국가구에 비해 더 부드러운 영역을 차지하며, 동적이고 정적인 중간이미지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A유형의 중국가구는 한국가구에 비해서 정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일본가구에 비해서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A유형의 일본가구는 한국에 비해서 동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중국에 비해서 동적은 이미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주거양식과 관련하여 중국이 입식생활로 전이되어 가구가 실내공간에 물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평좌식 생활로 인하여 가구가 소형화되고 이동성이 강한 특성을 보여준다.



나. B. 유형(Put things in & on) 이미지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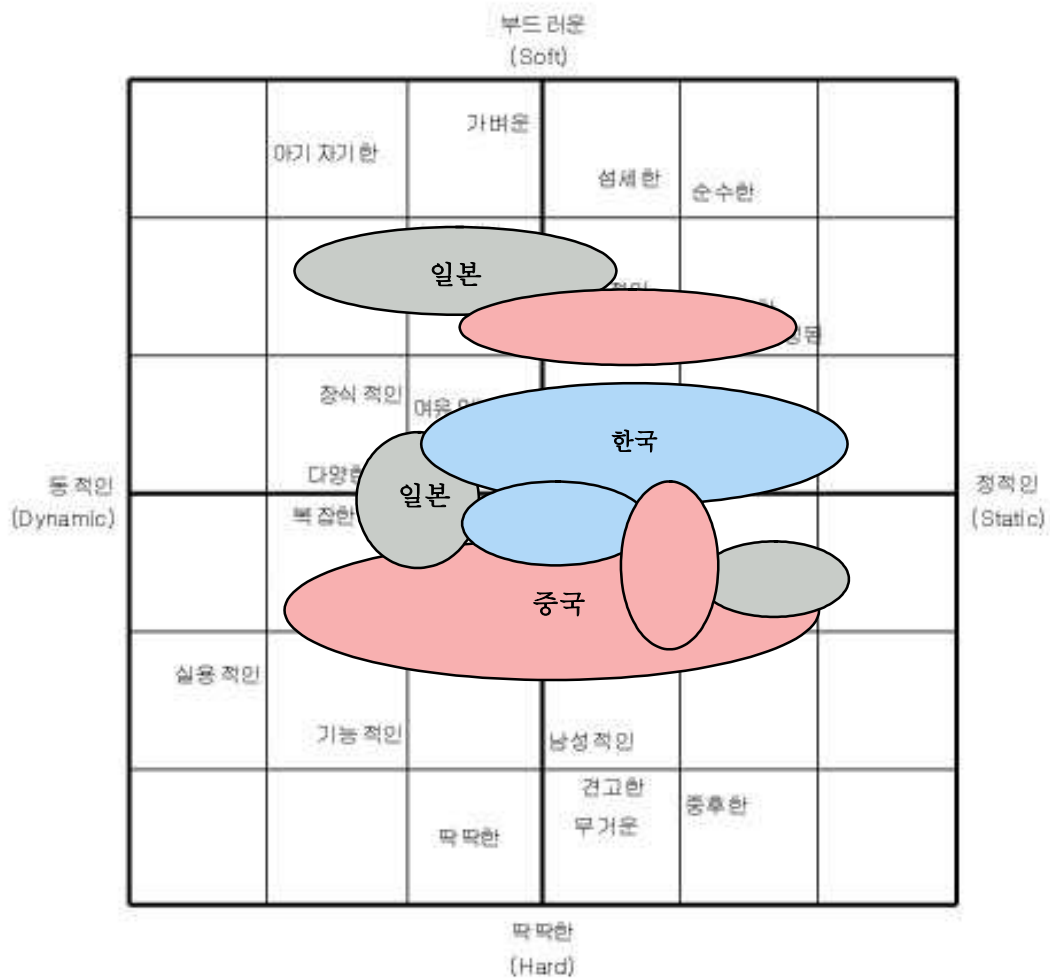
B유형의 가구 역시 A유형가구와 비슷한 이미지 공간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 가구중 여성의 전유물인 경대는 부드럽고 동적인 이미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B유형의 일본가구는 장식과 전시의 기능을 많이 수행함으로써 A유형에 비해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 공간으로 이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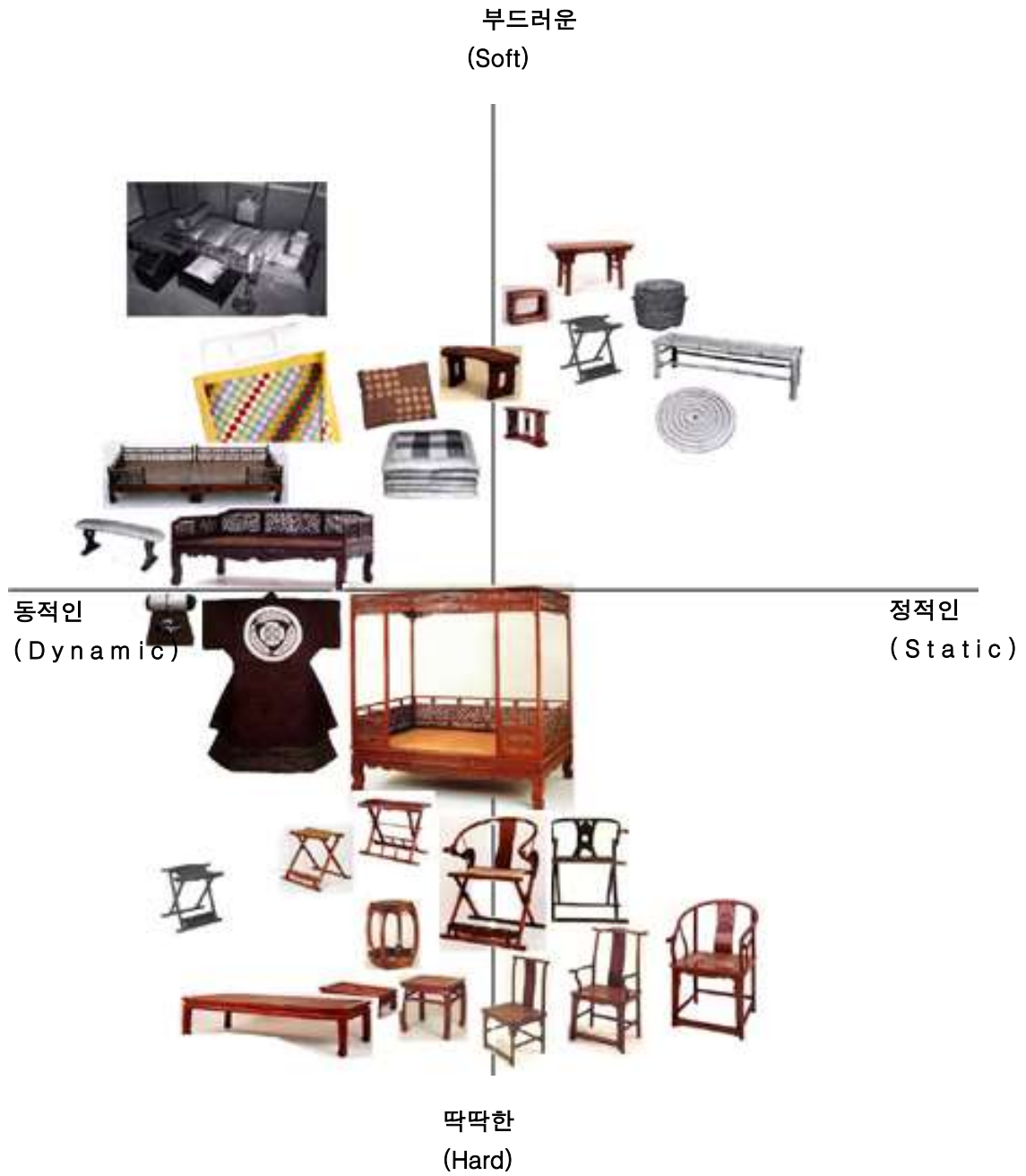
다. C 유형(Put things on) 이미지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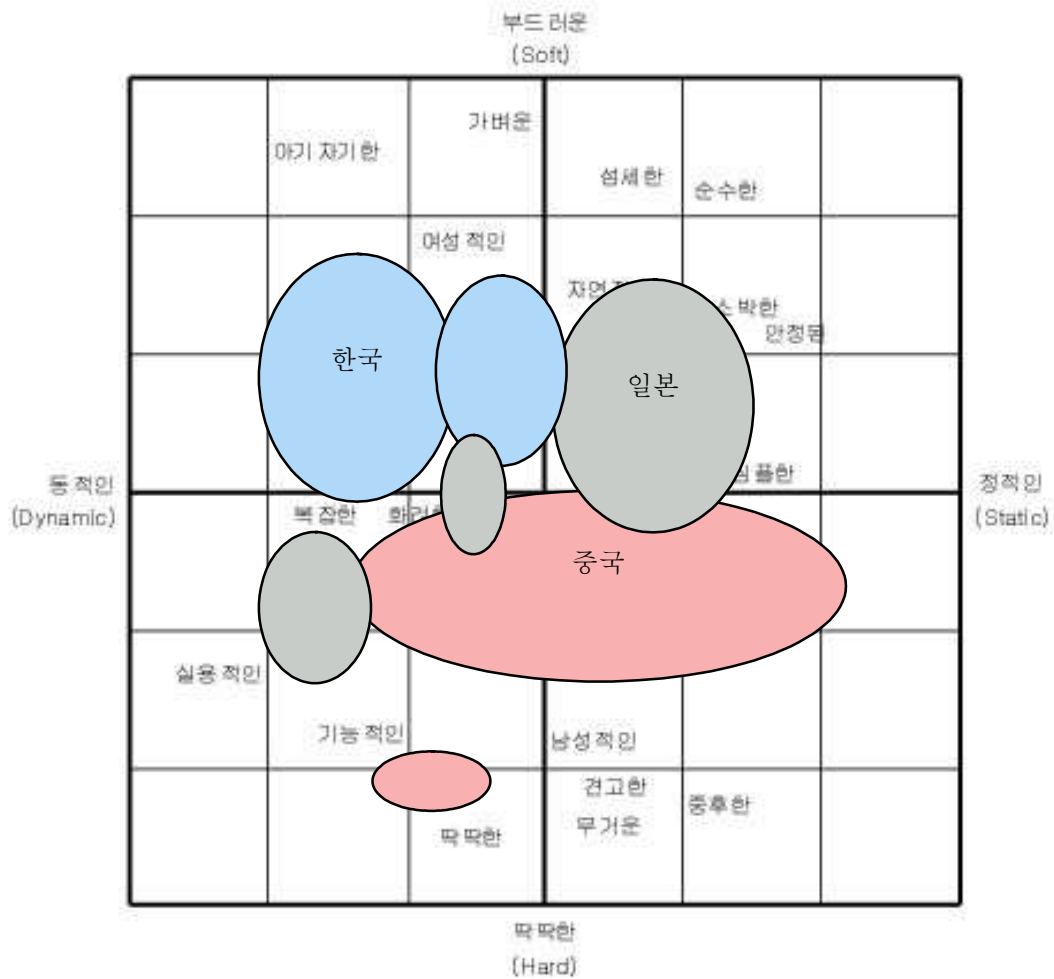
C유형의 한국가구는 중국에 비해 부드러우며, 일본에 비해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방탁자와 진설탁자 같은 유형이 일본과 중국에는 없고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간결, 소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C유형의 일본가구가 A와 B유형과 달리 부드러운 축으로 많이 이동한 것은 이동성이 강하고 소형인 쟈 (Tray table;식사용)의 특성 때문이다.



라. DEF (Seating, Reclining, Lying)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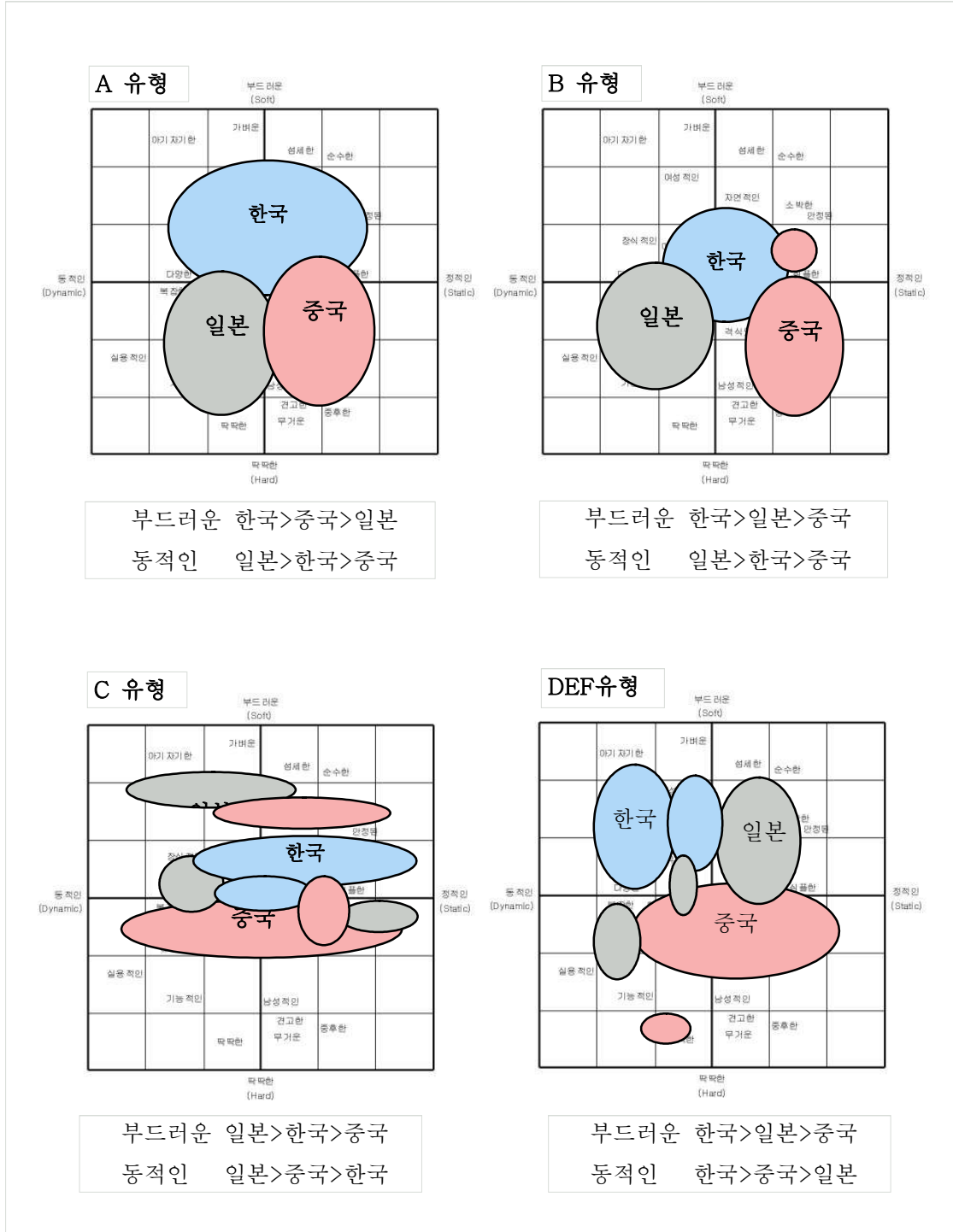


DEF유형의 한국가구는 일본에 비해 동적인 이미지공간에, 중국에 비해서는 부드러운 이미지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가구 역시 중국에 비해 부드러운 이미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은 이 유형의 가구들이 소프트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마. 조형 특성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전통가구의 특성

앞서 살펴본 세나라 가구 유형의 조형특성 비교표를 다음에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부드럽고, 중국은 딱딱하고 정적이며, 일본은 동적인 특성이 비교우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제 1 절 조선조 가구의 활용현황 분석

1. 국내 가구업체 현황

제품디자인 전략은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와 가장 직접적이고 상호 관계적으로 만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는 실정이다. 제품의 성공을 위해서 디자인이 기업의 전략적 계획에서 재정, 마케팅, 생산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제품개발이 이러한 개발과정을 거칠 때 경쟁사에 비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구업체의 제품개발현황 및 전통의 현대적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가. 제품개발 현황 설문조사

2000년 4월 1일에서 4월 15일의 기간에 걸쳐, 가구업계를 대표하는 대.중.소규모의 가구업체 11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제품개발과 전통성의 적용현황에 관한 것으로 8개 업체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얻었다.

나. 설문조사 결과

제품개발에 관련된 문항으로는 제품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철학, 정보 수집원, 디자인 모티브, 경쟁사와의 차별전략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하였으며, 전통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적용여부와 적용 동기 및 시기, 전통성을 적용할 경우 모티브와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제품 출시 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끝으로 디자인 개발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자유기술형 질문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본 설문의 취지가 가구산업체의 현황 파악이 아닌 개발담당자의 현장 경험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및 전통의 활용에 관해 생동감 있는 증언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응답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영업부와 개발부의 협조에 의해 제품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시장동향 파악이 개발업무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1개 업체만이 제품기획에서부터 디자인 담당자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에 조사분석 결과 나타난 보편적인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기업 및 디자인 철학은 품질과 서비스를 중시한다는 답변이 기업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많았고, 디자인 측면을 강조하는 업체는 디자인과 품질을 언급하였다. 디자인 정보원은 국내외 가구쇼와 디자인관련 책자를 활용하였으며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곳도 2개 업체 있었다. 디자인 모티브는 주로 트렌드 분석을 통해 가져오고 있었고 이에 따라 디자인이 획일화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경쟁사와의 차별성은 디자인보다는 제품의 질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 추구하고 있었다.

전통성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긍정적이었으며, 시기적으로는 80년대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모티브는 전통문양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그밖에 소재나 형의 비례미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활용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80년대부터 줄곧 전통가구를 생산해온 한 업체는 문양이나 상감 등의 디테일은 전통기법을 재현하고 구조나 형태는 이미지만 한국적인 것을 가져올 뿐, 현시대에 맞게 변형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80년대 전통가구에 대한 수요가 생기자 문양을 가구의 도어 등에 프린트하여 활용했던 업체는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모티브를 구하지 않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반응도 좋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었다.

디자인 개발 시 가장 야기되는 애로사항으로는 급변하는 트렌드를 쫓기에 바빠 개발의 여지가 줄어드는 점과 디자인 외적인 여타업무로 인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이 대표적이었다.

다. 설문조사 결과분석

현재 국내 가구산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브랜드들은 공예가구를 만드는 작은 규모의 업체로서 전통문화를 선호하는 일부계층의 소비자를 위해 전통의 전승적 차원에서 오늘날의 사용자 생활 패턴과는 무관하게 조선조 가구디자인의 기법이나 문양의 재현에 중점을 두며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고, 대중적 업체들 중에서 전통적 문화의 현대화에 관심 있는 업체들은 전통 가구의 기법, 소재, 문양을 부분적으로 도용하여 현대 생산방식에 맞추려고 할뿐이므로, 현대 대중 문화 안에서 전통 문화에 의한 한국적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일반대중에게 긍정적으로 호응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젊은 세대에게는 더 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현대의 산업가구로 성장해온 가구 업체들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고 그 성장에서는 한국적 정체성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행에 맞추어 제품의 모방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왔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 한국 문화를 활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장이 세계화되고 국내 내수 시장을 나누기에 가구업체의 규모들도 너무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내수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가구산업에서도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구의 원류를 찾기 위해 조선조 가구디자인은 반드시 거쳐야 할 비중 있는 관문이기에 조선조 가구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연구 확산의 분위기가 학제간의 연구에서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직접 연결시켜줄 수 있는 문화 자원 지식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절실하다.

2. 가구시장 동향 분석

현재 국내의 가구 시장은 고가시장은 해외 수입품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 제품은 중저가의 일반 대중을 위한 제품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가구는 공예가구로 분류되어 시장의 아주 작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시장의 구도 위에서 국내 시장의 트렌드는 유럽 지향적 모방 위주의 디자인에 의해 이끌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구 시장은 거의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디자인 자체가 아닌 디자인 대비 가격 및 품질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와는 달리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동양적 세계관으로 전환되면서 동양 전통 문화의 가치가 재고되고 있고 가구 시장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동양적 문화 요소들이 디자인 곳곳에 반영되어 시장의 구도가 점진적으로 동양 지향적 성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반해서 유럽 지향적인 우리 가구 디자인은 유럽을 통해 동양문화를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장동향을 통해 볼 때 이제는 우리 문화의 원류인 동양 디자인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문화도 자원 화되어 디자인을 통해 시장에 유입되어 한국적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 입지를 다질 시기임을 암시한다.

3. 경쟁력 분석

한국 가구 디자인은 유럽 가구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모방위주의 이루어져



그림 55 가구 디자인 트렌드

왔다.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디자인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별화 되지 않아 디자인의 평준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가구 업체들은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모두 품질 대비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차별화 없이는 기존의 시장 규모 안에서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 지고 소수의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구조와 산업구조로 여파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먼저 국내에서 브랜드별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세계 시장에서는 국가적 브랜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의 가구산업의 실태 분석해 보면 가구 시장을 리드하는 몇몇의 중견기업들과 수천 개에 달하는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개발은 중견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영세 기업은 하청에 의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는 기업별 차별화 브랜드는 어렵고 영세기업은 기법과 기술에 의한 차별화를 이루고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디자인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법 및 소재 개발과 디자인 자원에 대한 연구를 자체 내에서 완전히 소화내기는 어렵다. 국가가 가구 산업 지원 차원에서 디자인 지식기반을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기업의 특성화를 주도해 준다면 그 기반으로 이태리의 가구 산업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 지식기반의 일부로서 본 연구 및 조선조 가구디자인 우수성의 DB화는 경쟁력 지원과 한국가구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제 2 절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

1. 전통의 현대적 활용방법 모색

조선조 가구의 우수성을 현대 가구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 및 활용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원형 그대로의 재현을 통한 보전이 있으며 둘째는 문양이나 금구장식 등 부분적 우수성의 적용을 통한 응용이 있겠으며, 끝으로 가시적 형태에 내재된 개념의 현대적 계승이 그것이다.

이진민은 “ ‘문화적 전통’을 잇는다는 것은 가시적 결과물로서의 형태와 색깔의 복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시대의 의식과 개념과 철학 등을 시각화하던 프로세스, 즉 생각과 감각의 구현화 과정 중에 쏟아 부은 마인드를 이어가는 일이다.”¹²⁾ 라고

12) 이진민, 신구의 대위법적 반향, INTERIOR지 99년 10월

하였으며 미끼기요시는 그의 인생론 노트¹³⁾에서 베른하임의 말을 빌어 전통은 되어진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유물과는 달리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간접으로 인간이 파악하고 관찰되고 재현되어 전하여지는 것으로서 유물이 단순히 객관적 데 반해 전통은 항상 주관적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또한 행위가 습관적으로 될 때 우리의 신체 안에 전통으로 내재되고, 신체 안에 잠긴 전통은 우리들의 창조를 통해서만 새로운 형성으로 부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자연형태를 통한 창조의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자연형태와 구조를 있는 그대로 모사 하는 직접적 표현방법, 의미의 탐색과 결합을 통한 전이의 기본적 형태인 은유적 표현방법, 대상의 전 구성요소 가운데 자연유기체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요약, 발췌하는 추상적 표현방법¹⁴⁾ 등이 있는데 이는 전술한 전통의 계승 및 활용 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으며 그 까닭은 전통과 자연물이라는 대상은 비록 다르지만 그것을 통한 창조라는 과정과 목적이 같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디자인 역시 일련의 창조과정에 속하므로, 이렇게 다각적인 창조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DB의 내용에는 조선조 가구에 대한 직접적 정보 및 은유적, 추상적 정보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선조 가구의 직접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2장의 조선조 가구의 우수성의 이해 속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였으므로 본 단락에서는 가시적 형태에 내재된 개념의 현대적 계승이란 세 번째 방법을 토대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풀어가고자 한다. 그러면 다음절에서 가구 디자인 프로세스 및 개념을 통해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2. 가구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현대적 활용방안

가.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방안 추출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인 과정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창의성을 용이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공학과 제품생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초기의 시스템적 디자인 방법론을 제품의 질에 비중을 두거나 사용자 가치 (user's value)로부터 출발한 프로세스로 중요성이 이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직접적 사용자는 디자이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제품의 디자인, 즉 사용자가 선호하는, 사용자의 취향 (taste)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문

13) 미끼기요시, 신수주역, 인생론노우트, 경지사(1964), p182-193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1999), p24-25에서 재인용

14) 최운영, 자연유기체의 형태적 특징의 고찰과 디자인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1995

제해결의 도구로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디자인 접근방법은 사용자 중심디자인(User Centered Design)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디자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사용자 문화중심 디자인은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풀어갈 수가 있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방법론에는 사용자의 가치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사용자 가치는 인간요소(human factor)의 연구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전통적인 인간요소 연구(human factor research)에 있어서는 인공물을 첫 번째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것이 인간 행위(behavior)에 미치는 영향을 그 뒤에 연구해 왔다. 인간요소 (human factor)는 제품이 인간의 표준치수에 맞게 개발됨으로 인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분야로 소개되기 시작하여, 대량생산에 있어서 제품과 정보를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의 인간요소 연구는 당면한 문제를 풀어 가는데 초점을 둔 반면, 오늘날은 사용자의 의미와 기대를 구축하는데 인공물이 어떻게 사용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기능주의의 전통아래서 디자이너들은 걸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러한 관점의 문제해결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유동적 생산, 대량 주문제작, 글로벌 무역 등 일련의 현상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에게 인간요소에 대한 시각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IIT 리서치센터에서는 인간중심의 디자인은 사람들과 제품, 시스템, 정보들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물리적(physical), 인지적(cognitive), 사회적(social), 문화적 요인들(cultural factors)을 고려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과 상황에 맞는 디자인,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시장에 최적의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¹⁵⁾ 고 전제하고 제품이 사용자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게 하는 새로운 인간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물리적 인간 요소(Physical Human Factors); 사용자의 물리적 수용능력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

표식적 인간 요소(Cognitive Human Factors); 사람이 정보를 수용하고, 사용하고, 이해하는 인지패턴을 알고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

사회적 인간 요소(Social Human Factors);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게 돕는 요소

문화적 인간 요소(Cultural Human Factors); 가치와 행위패턴을 이해하는 요소

사용자중심 디자인에서 사용자 가치란 IIT의 예와 같이 물리적 요소 외에도 정신적 가치까지도 포함한 광의의 가치개념으로 이해됨을 살펴보았다.

사용자 가치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모델을 통하여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다. 여

15) IIT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Lab Note, 1998

기서 사용자 가치를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해석과정으로 전술한 새로운 인간요소의 범주를 통하여 사용자 가치에 어떠한 상이한 요소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여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분석단계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자에게 정형화하는지를 분석하여 사용자 행위패턴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사용자 행위패턴 분석 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니즈 (needs)를 추출, 컨셉을 확립하는 단계이며. 이로부터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여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단계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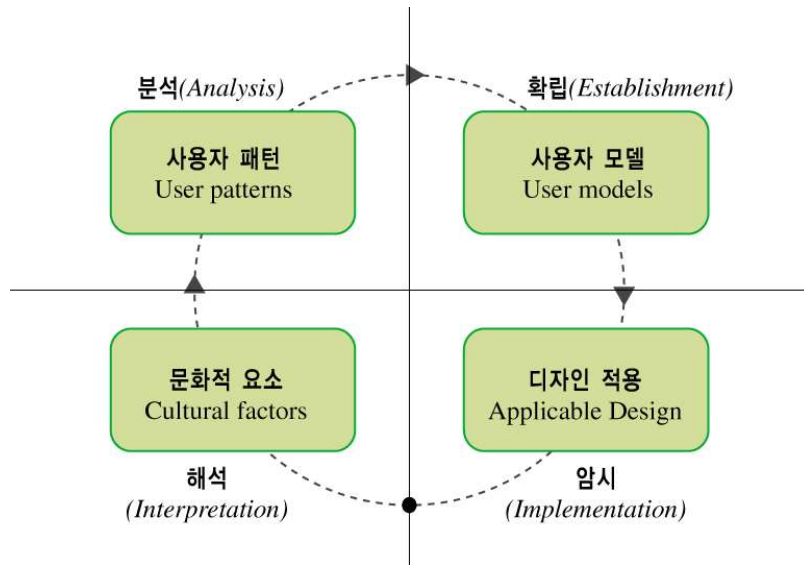


그림 56 사용자 가치의 디자인 적용모델

이러한 사용자가치 적용모델을 통해 디자이너는 서로 다른 문화적 인자가 사용자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실제적 디자인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사실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세심한 요구를 반영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된 사용자가치는 디자이너의 창조적 작업과정을 거쳐 인공물로 창조된다. 다음에 사용자 가치가 어떻게 인공물인 제품으로 창조되는지를 개념도를 통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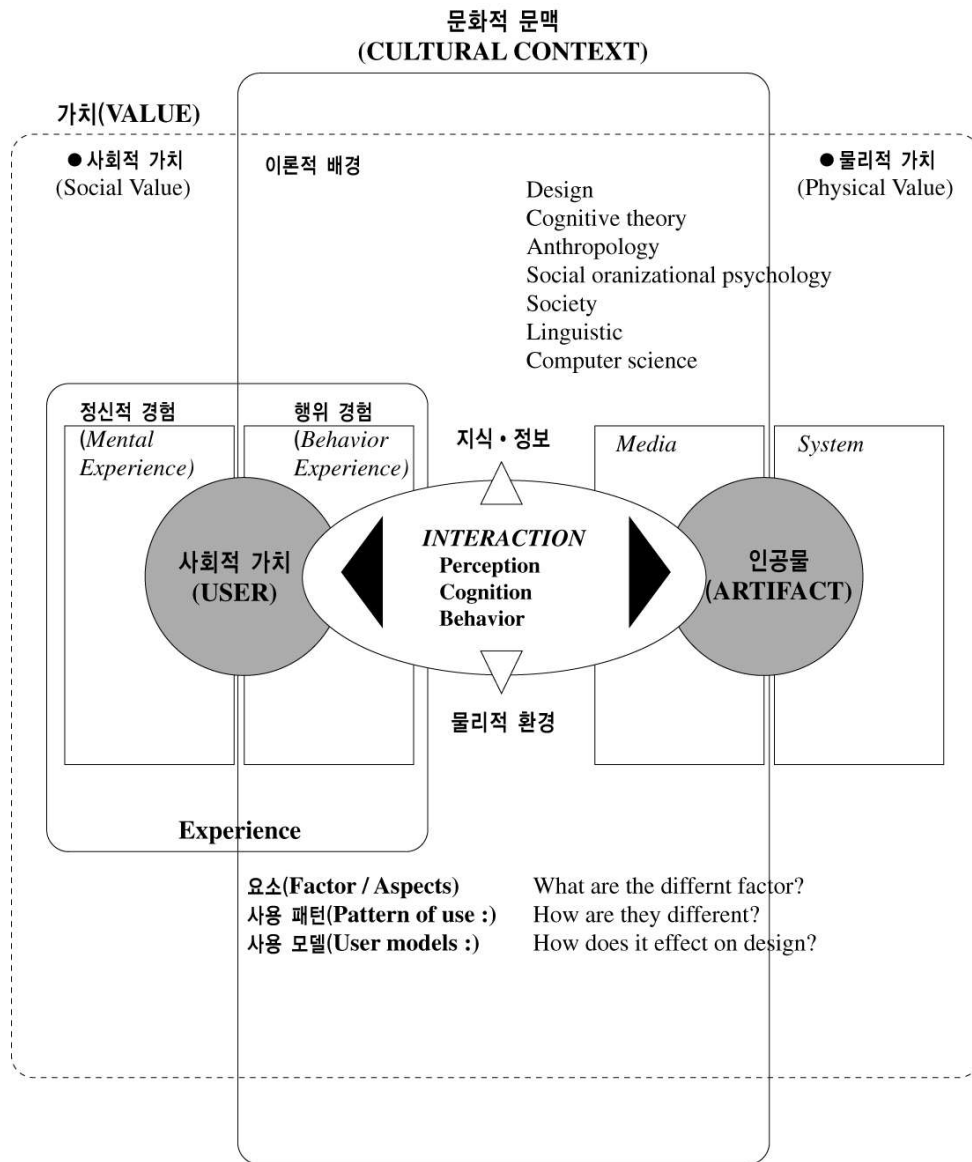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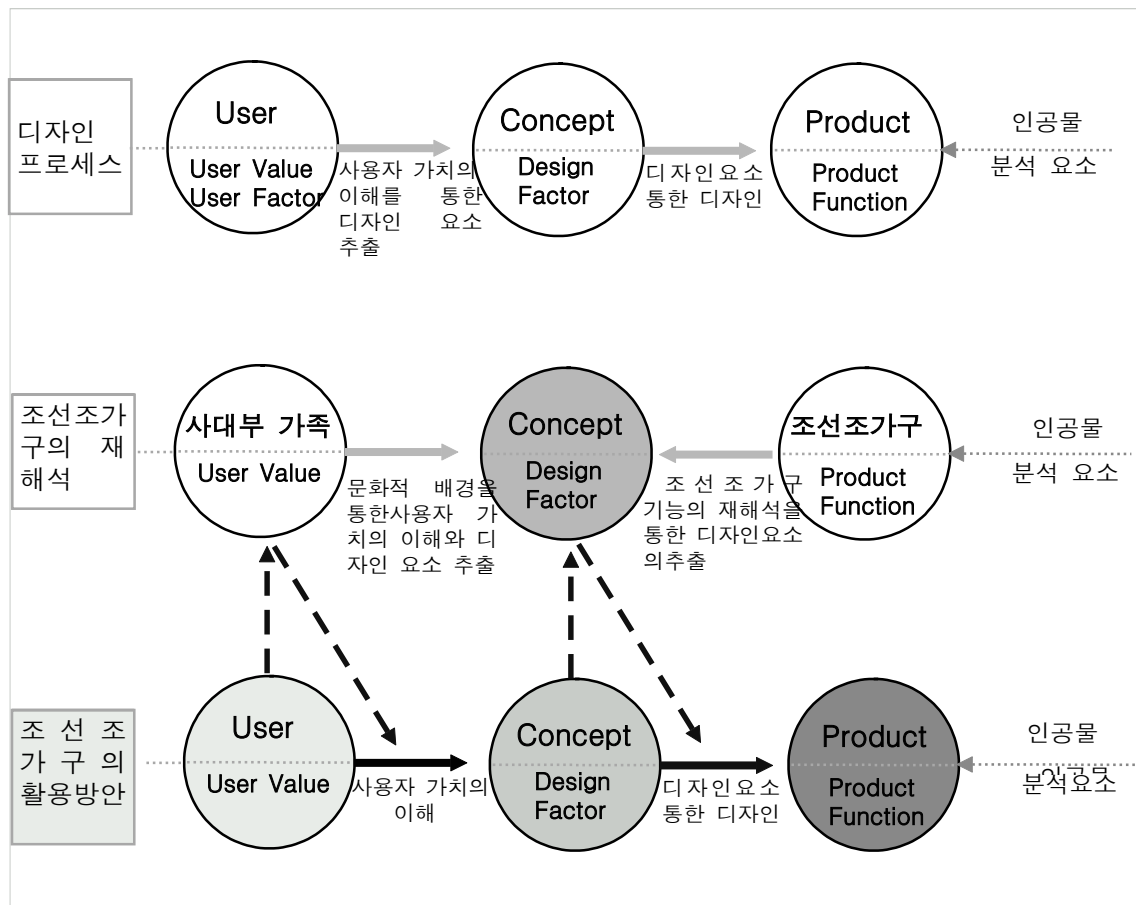


그림 57 사용자 가치와 인공물의 상호 작용과정

위의 개념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용자의 가치가 인공물에 상호작용 하는 과정으로 여기에 디자이너의 창조적 행위가 개입된다는 사실이다. 즉 디자이너는 사용자 가치로부터 디자인 요소를 추출, 시각화 과정을 거쳐 인공물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역으로 이미 창조된 인공물로부터 디자인요소와 사용자의 가치를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은 문화를 상징으로 보는 시각에서 연유한다. 이는 모든 문화적 범위, 사회질서와 현상은 바로 상징을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에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문화 즉, 외부적으로 표명된 모든 기구와 도구 같은 물질적 사물, 행동, 믿음, 태도 등은 의식적인 '상징화(symbolization)' 과정에 의해 형성된 의미 체계¹⁶⁾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조선조 가구의

16)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출판사, P27, 1997

현대적 활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개념도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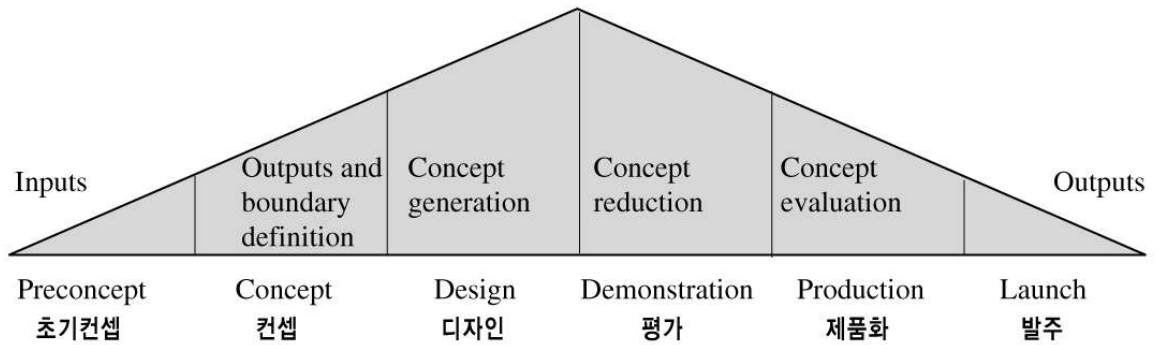


이상의 개념도를 토대로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문제의 이해--해결안의 종합--해결안의 평가라는 기본구도는 변함이 없다. 다음의 도표에 제품개발의 사이클과 디자인개발 프로세스를 나타내었다.

제품 개발 사이클



디자인 정체성 개발을 위한 5단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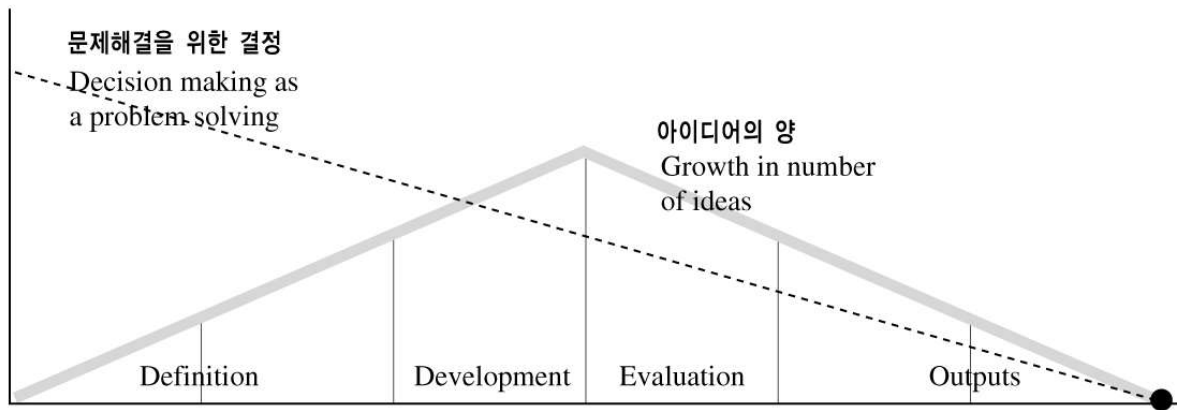


그림 59 제품개발사이클 및 디자인 개발 단계

이상과 같은 프로세스 개념도에 앞서 살펴본 사용자 가치,인공물의 상호작용 개념 모델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문화적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모델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생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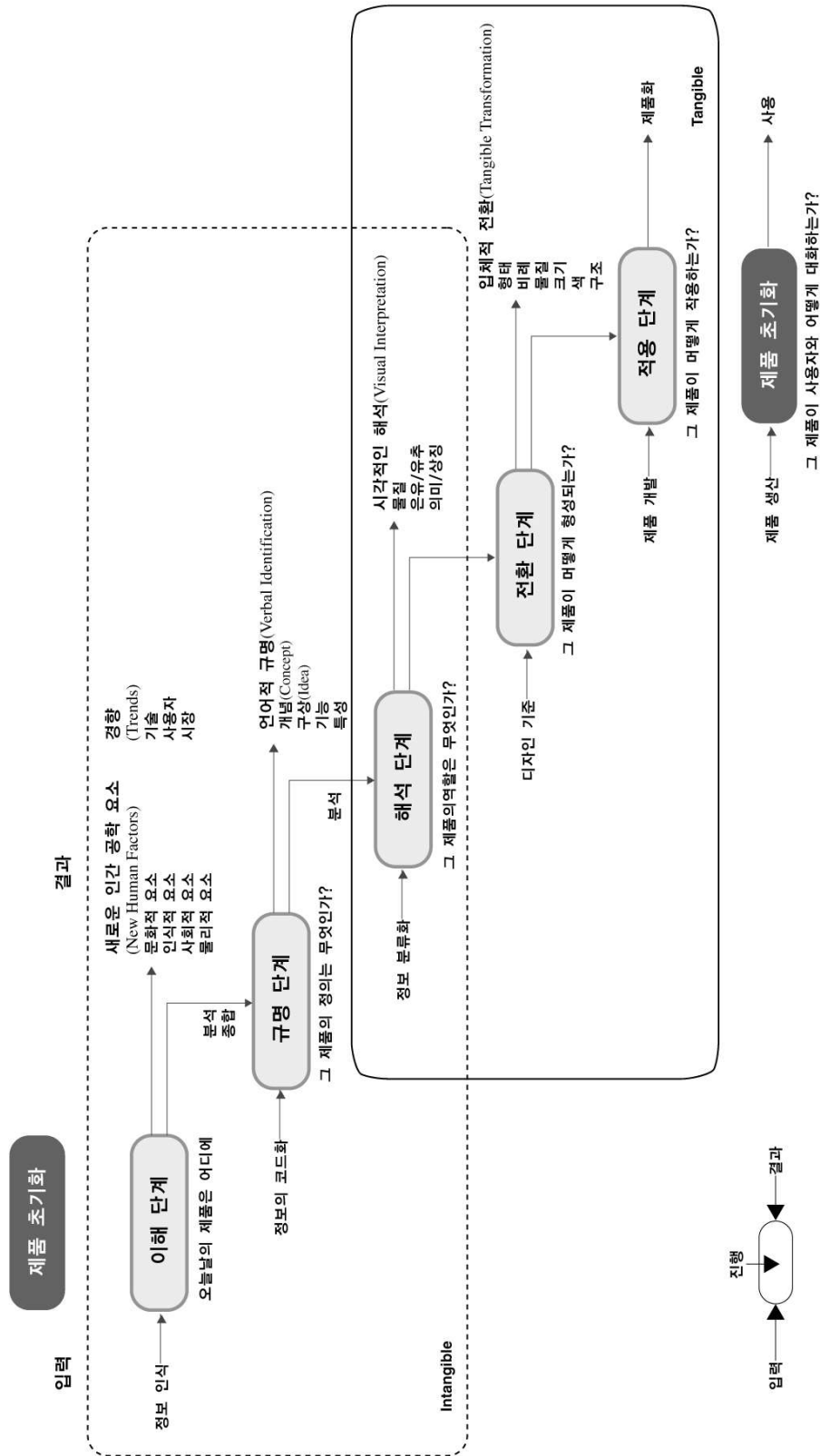


그림 60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다. 사용자중심 디자인모델의 단계별 적용

본 단락에서는 도출된 사용자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별 적용과정 및 검토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제 1 단계: 이해단계 (Knowledge Phase)

제품의 이해단계에서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인식하는 단계로, 제품에 반영하여야 할 사용자 가치를 찾는다. 이때 그 지역 사용자의 가치나 행위패턴 등 인텔저블한 문화적 디자인 요소를 이해하여야 한다. 인텔저블한 요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예산과 시간, 목적에 따라서 이해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인텔저블 요소는 사람(user)의 말과 행동을 지켜봄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Steelcase의 Mark Baloga는 다음과 같은 틀과 기법들을 통해 인텔저블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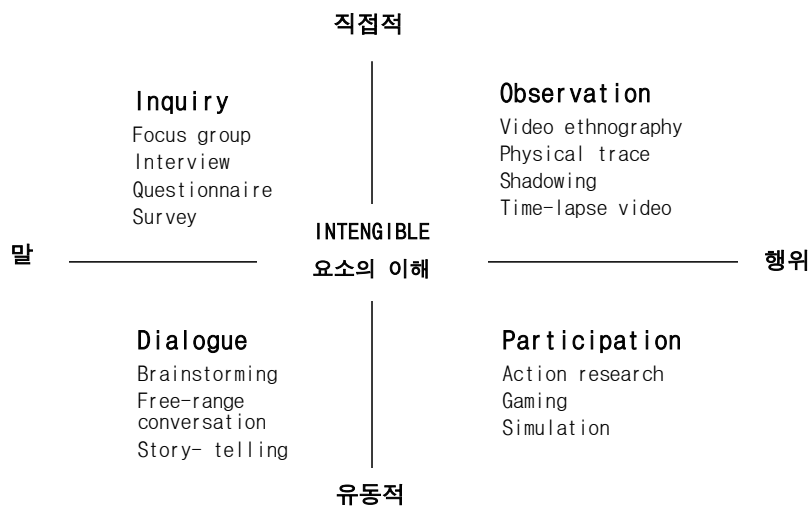


그림 61 인텔저블 요소의 이해를 위한 기법

이상과 같은 기법을 통해 이해된 사용자의 가치는 사용자패턴과 사용자 모델을 통하여 디자인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에 가구디자인을 위한 사용자 패턴 리스트를 제시한다. (그림 7)

디자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요소를 다음에 제시한다.

A. 물리적 디자인 요소(Physical Design Factor)

가구의 물리적 기능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말한다.

A1 공간의 효율성(space efficiency): 가구의 물리적 기능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에서 공간사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요소가 포함된다.

A2 구조의 효율성(structure efficiency): 가구의 물리적 기능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에서 가구자체의 구조적 견고함이나 가구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소가 포함된다.

A3 사용의 편리성(usage): 가구의 물리적 기능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에서 사용시 신체의 편안함이나 일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요소

A4 보관, 유지의 효율성(storage or maintenance efficiency): 가구의 물리적 기능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에서 보관 및 유지의 효율성을 위한 요소

B. 형태미학적 요소(Formal aesthetic design factor):

조형요소(형, 색, 재질)와 조형원리 등 형태와 미학에 관련된 디자인요소를 말한다.

B1 형(Form): 조형요소(형, 색, 질)와 조형특성 등의 디자인 요소 중에서 형에 관한 것으로 몸체의 형태와 다리 유형, 문의 개폐방식 등의 디자인 요소가 있다.

B2 색(Color): 조형요소(형, 색, 질)와 조형특성 등의 디자인 요소 중에서 색에 관한 디자인 요소이다.

B3 조형원리(Principle of form): 가구의 조형원리와 관련된 디자인 요소이다. 조선조가구의 대표적 조형특성인 면 분할의 비례미와 직선과 곡선의 조화 등이 이 영역에 해당되는 디자인 요소이다.

C. 표식적 요소 (Cognitive design factor)

가구의 기술적인 기능이나 조작 및 취급, 보관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디자인 요소를 말한다.

C1 조작(Control): 가구의 기능이나 조작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사인이나 형태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디자인 요소

C2 유지(Maintenance): 가구의 유지.보수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사인이나 형태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디자인 요소를 말한다.

C3 보관(Storage): 가구의 보관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사인이나 형태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디자인 요소를 말한다.

17) 홍정표, 디자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V20, P248, 한국 디자인학회, 97.5

D. 상징적 인간요소:(Symbolic design factor)

가구의 실질적인 기능 외에 가구를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사회적 만족감 같은 기능을 위한 것으로서 시대적 배경이나 지역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는 디자인 요소. 상징적 요소는 제품과 연관된 문화, 사회의 역사, 사용방법을 위한 문맥(context)안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용자 개개인의 인생스타일의 존중과 차별화를 존중하는 디자인 요소이다.

D1 사회적 지위 표현(Expression of Social status): 가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정신적, 사회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

D2 나이, 성별 표시(Expression of Generation, Gender): 가구에 나이, 성별을 표시하는 요소

D3 생활양식(Expression of Life Style): 가구에 사용자의 취향, 행위패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

D4 주술적 상징 (supplication of wish): 가구에 사용자나 그 사회의 염원을 표현하여 그 염원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요소

(3) 제 3 단계: 해석단계 (Visual Interpretation Phase)

해석 단계에서는 언어로 규정된 컨셉 및 아이디어를 디자이너의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 시각화하는 단계로서 논리적, 심리적 유추, 상징, 은유, 직유, 추상 등의 표현 방법을 적용하여 아이디어 스케치를 전개하는데 이때 조선조 가구중 일반정보 검색 게이트, 세부요소 검색게이트의 풍부한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뒤이어, 러프모형을 만들고 치수를 검토하며,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개하여야 한다. 아이디어의 평가에는 전술한 문화적 인간요소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이미지, 나아가서 기업 및 제품 아이덴티티 평가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제품 기능 평가	제품 이미지 평가	기업 제품 이미지 평가
실제적 제품기능 -공간의 효율성/구조의 효율성/사용의 편리/보관 유지의 효율성 형태미학적 제품기능 -형태/색채/조형원리 표식적 제품기능 -조작/유지/보관 상징적 제품기능 -사회적 지위/나이 성별/생활패턴/내재가치	컨셉이미지의 복합성 시장 효과성, 화폐성 시장 경쟁성 차별성, 독자성 심미성, 신규성, 선구성 국제 감각성 친근성, 인간성 전달성	통일성(CPI, CI) 정체성(IDENTITY)

표 46 제품개발시 디자인 평가항목

(4) 제 4 단계: 전환단계 (Tangible Transformation Phase)

전환 단계에는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선택된 안을 입체화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디자인에 있어서 최종 평가의 단계로 형태, 크기, 비례, 재료, 색, 구조 등을 렌더링과 제작도면, 목업을 세심히 검토, 완성도를 높인다. 이 때 디자인과 가격의 문제, 기업 기술력의 수준과 능력, 등의 문제는 디자인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심미성(Beauty), 독창성(Originality), 기능성(Function), 경제성(Economy), 신뢰성(Reality) 등의 다섯 가지 요소로 자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제 5 단계: 적용단계 (Production Phase)

적용 단계는 제품화의 단계로서 양산을 위한 준비(Fallow up)작업을 행하며, 양산 시 제품에 부착되는 모든 부속품 및 색, 마감처리 등의 최종확인 등 전 단계에 진행되지 않았던 전반적인 업무를 행한다. 결정된 디자인 안대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작제품의 디테일을 검토하는 최종 디자인 승인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조부분의 사정에 의하여 디자인의 승인 없이 편리한대로 디자인을 변경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6) 제 6 단계: 대화단계 (User Interface)

대화 단계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사용자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조사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 개선해야 하는 단계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최종단계이다. 이러한 디자인 점검은 모니터 조사, 대리점조사, 관련 부서 정보수집, 문제점 개선 작업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 후 평가내용을 통하여 다음 단계의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 절 자료의 성격

1. DB STRUCTURE

이상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DB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DB는 크게 조선조 가구의 유형, 조선조 가구의 세부요소, 사용자 중심 디자인관점에 의한 활용자료 검색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활용사례 및 용어검색이 보조자료로 수록되었다. 사진자료는 각종문헌 및 박물관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 분석되었는데, DB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최대의 주안점은 현재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사용자의 접근성이 좋은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과 본 연구의 결과로 추출된 조선조 가구의 활용 방안이 실제 디자인에 적용되는 것에 두고 연구 초기 단계부터 위탁연구기관인 ISM과 DB의 구조와 개발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온 결과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가. 일반정보검색(Searching by user pattern)

검색 부분의 첫 번째 게이트(gate)인 일반정보검색은 조선조 가구를 사용자의 행위패턴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아이템별로 시대, 크기 및 소장사항 등의 일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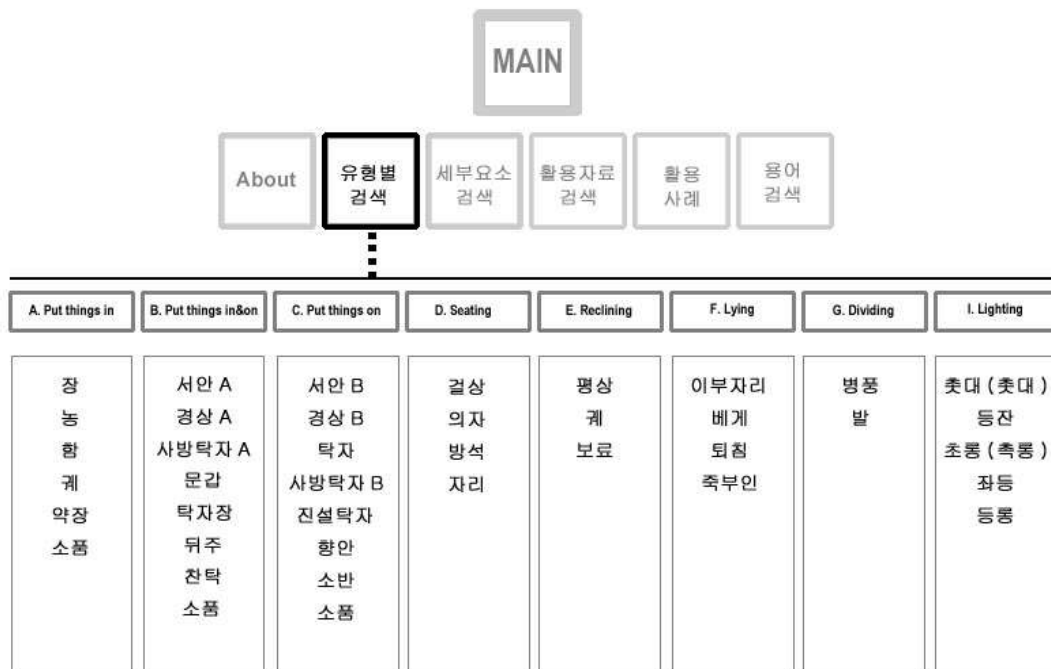


그림 63 DB 구조도-일반정보 검색

보에서부터 문양, 금구장식, 재료, 마감, 구조 등의 세부요소정보와, 물리적, 형태미학적, 표식적, 상징적 요소 등의 활용정보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구성된 본 DB의 메인 검색 게이트이다.

나. 세부요소검색(Searching by detail)

두 번째 게이트인 세부요소 검색은 디자이너가 한국적 이미지를 가구디자인에 표현하고자 할 때 그 구체적인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검색, 아이디어를 가시화 할 때 유용한 게이트로 조선조 가구의 세부요소를 문양, 금구장식, 재료, 마감, 구조 등으로 분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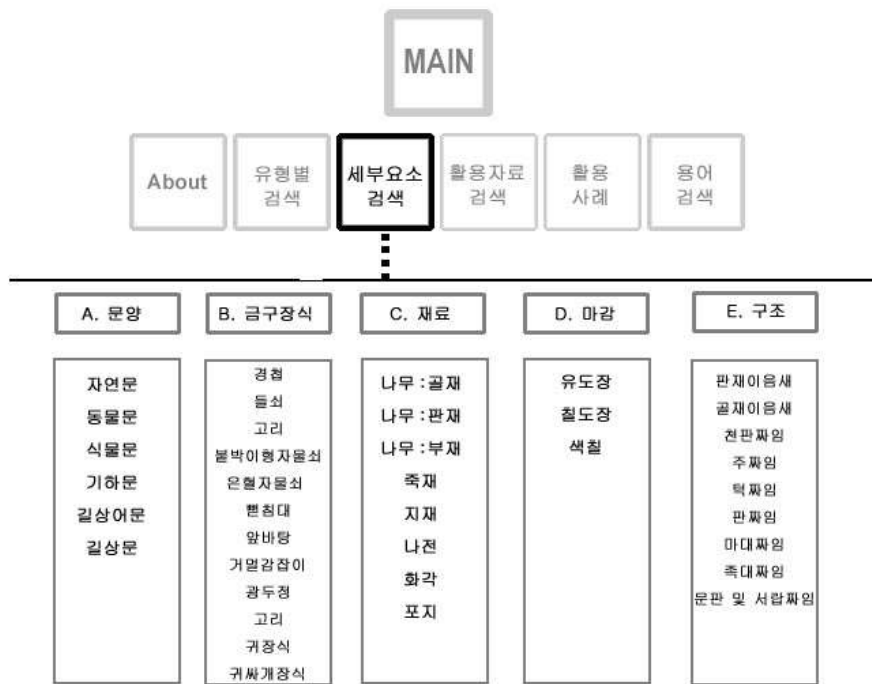


그림 64 DB 구조도-세부요소 검색

다. 활용자료검색

세 번째 게이트인 활용자료검색은 조선조 가구의 디자인요소를 사용자중심, 문화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형태미학적, 표식적, 상징적 디자인요소의 틀로 분류, 분석하여 정리한 DB로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활용가치를 풍부하게 재해석하였으며, 조선조 가구의 내재된 정신적 요소를 현대가구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이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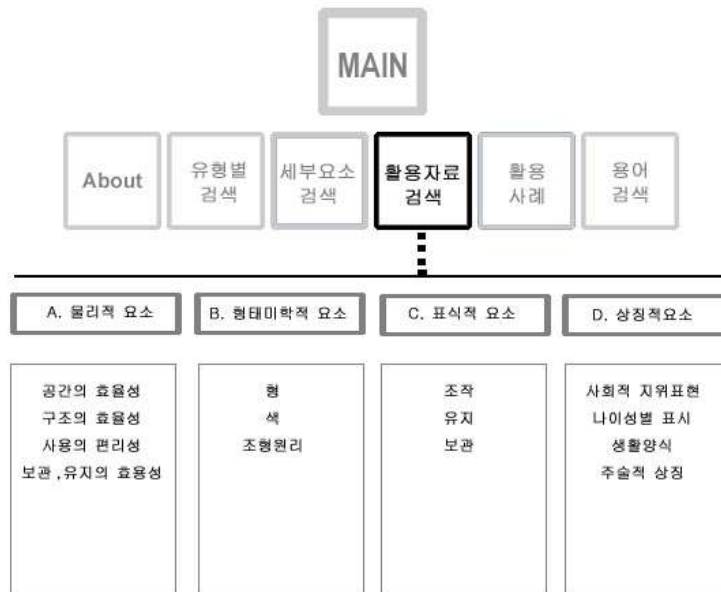


그림 65 DB 구조도-활용자료 검색

이상과 같은 구조로 구현된 DB화면의 검색사례는 별첨을 통하여 수록하였다

2. DB System 구성 및 설계구현

본 DB의 시스템은 펜티엄2400dual, ram 256M 서버와 linux 6.2 OS, Web 서버 appach 1.3.12, PHP 4.0 Zend Backend , MySQL 3.22.23DBMS의 사양과 Apache + PHP4 + MySQL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구현은 다음과 같은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Group 분류

Field	Type	Null	Key	Default	Eatra
Large	char(1)		PRI		
Medium	char(2)				
Small	char(3)				
LargeName	varchar(30)				
MediumName	varchar(30)				
Small Name	varchar(30)				

Class 분류

Field	Type	Null	Key	Default	Eatra
Small	char(3)		PRI		
Small Name	varchar(5)				
Name	varchar(30)				
Time	varchar(30)				
National	varchar(10)	YES			
SizeInfo	varchar(30)	YES			
Source	varchar(30)	YES			
Space	varchar(20)	YES			

8 rows in set (0.00 sec)

제 2 절 DB 응용 사례

본 절에서는 3장 2절에서 제시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에 조선조 가구의 DB를 활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한 디자인 개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활용프로세스 및 DB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은 앞서 제시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를 간략히 보여주는 도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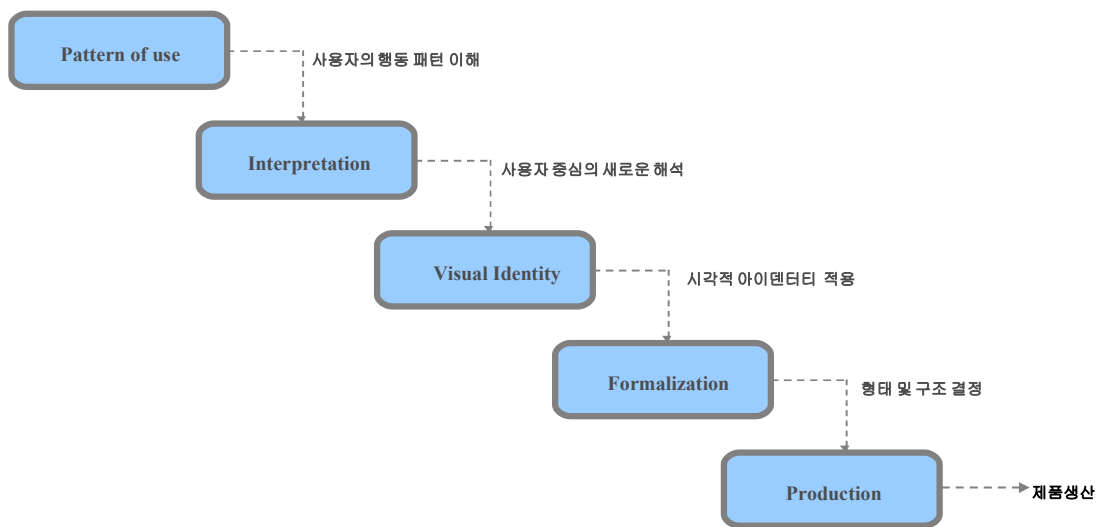


그림 66 5 단계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위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인 개발의 목적에 따라 전체 5단계 또는 3단계의 프로세스로 적용될 수도 있다. 즉 5단계 프로세스의 경우는 디자인 개발이 장기적이거나, 가구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인텔져블한 디자인요소까지도 가구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 개발 일정이 짧거나 단편적인 스타일 변화에 개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시각적 아이덴티티로부터 시작되는 3단계 프로세스가 효율적이다. 그러면 5단계 및 3단계적용 디자인개발사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5단계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사례 : Morning calm I, II, III 개발

이해단계(Pattern of use): 평좌식 생활에 익숙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용자 행동 관찰(User Behavior Observation)을 통해 좌식 생활의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행동패턴을 연구하고, 침실에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디자인 콘셉트에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입식 침대의 부피감,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닌 한국풍 토에 적합하지 않은 침대구조의 단점, 좌식생활의 장점 등이 개발 방향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주었다.



그림 67 사용자 관찰-소파와 좌식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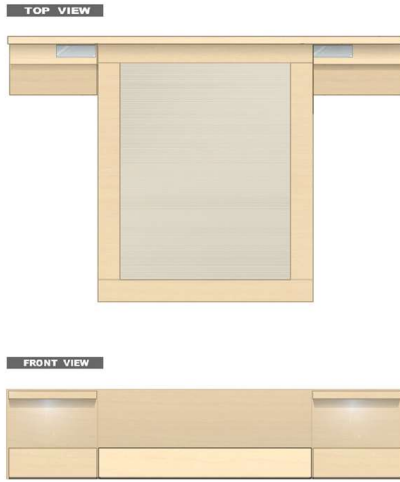
그림 68 사용자 관찰-거실의 다목적활용

규명단계(Interpretation): 1단계의 이해를 토대로 제품의 콘셉 및 디자인 요소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 조선조 가구의 DB중에서 ,활용자료 부분의 D3 생활양식(Expression of Life Style) 이란 디자인 요소를 검색, 사용자의 취향, 행위패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상의 개념을 도입하여 침대의 높이를 낮추고 Frame의 폭을 넓힘으로써 사용자가 걸터앉을 수 있게 하여 수면이외의 휴식이 가능한 효과적인 Beding System과 수납 System을 제안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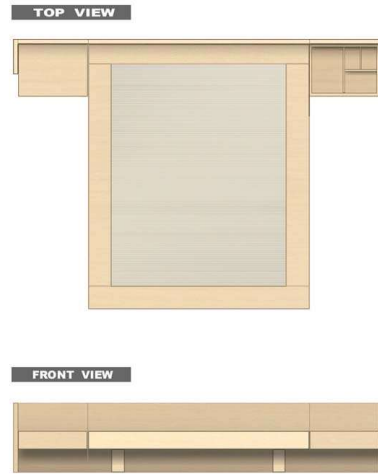
해석단계(Visual Identity): 언어로 규정된 컨셉 및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컨셉에 부합되는 다양한 스케치들이 도출되었다.



Bed & Side table B - 1



Bed & Side table B - 2



Bed & Side table A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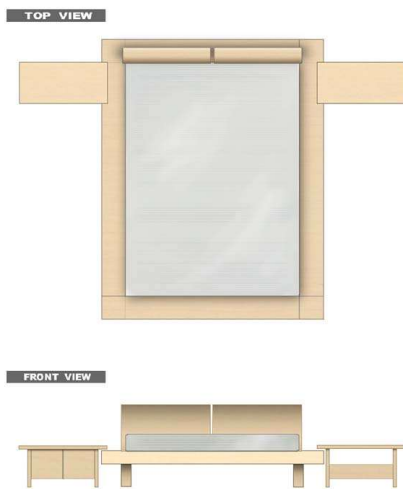


그림 73 단층장



그림 75 서안

이때 사이드 테이블은 조선조 가구 DB에서 왼쪽의 서안형태 및 비례가 텐져블한 디자인요소로서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전환단계(Formalization), 적용단계(Production): 평가를 통해 결정된 최종안을 입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가 진행되었으며, 판매과정의 피드백을 통하여 개선사항이 다음의 디자인 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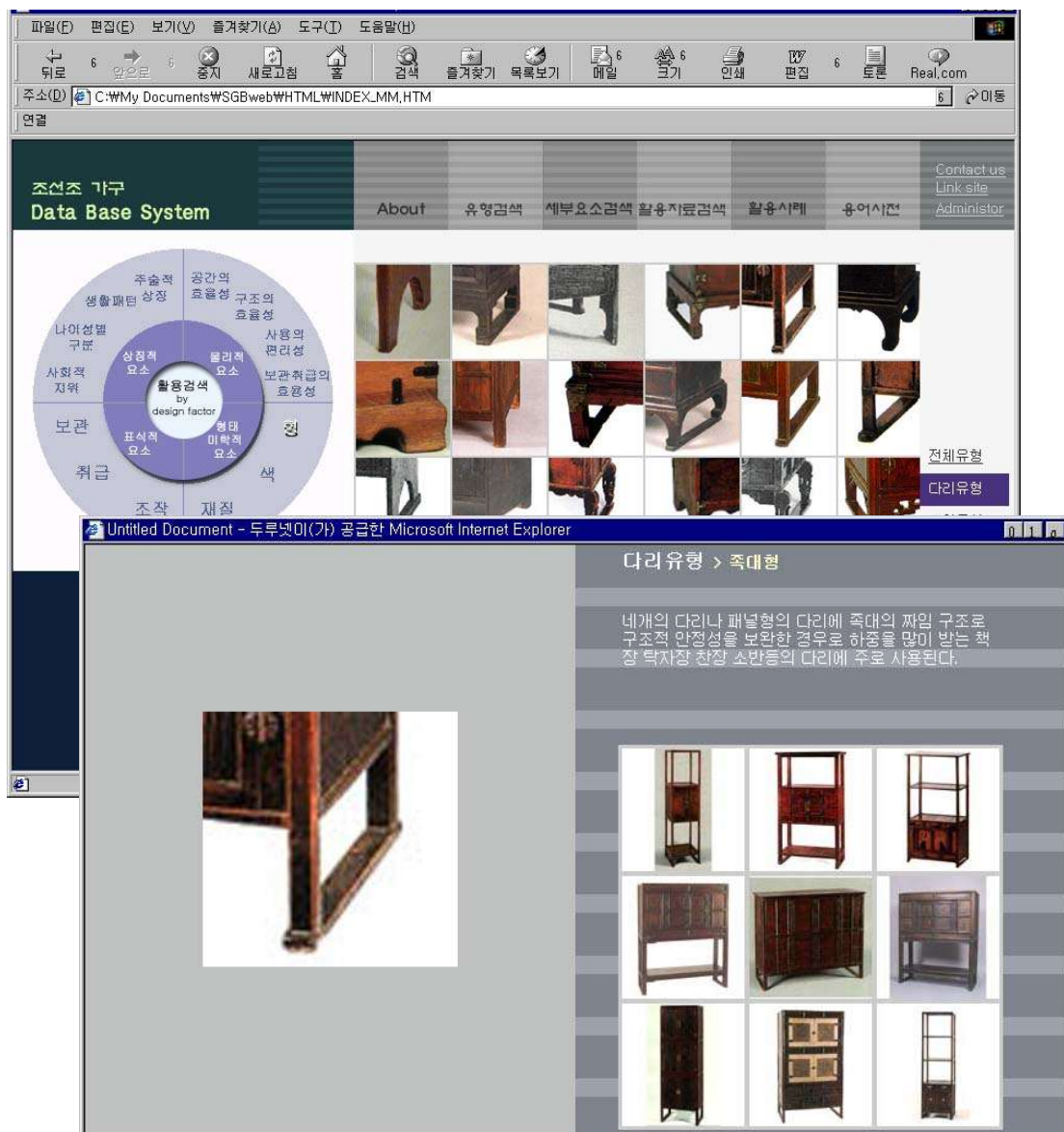


그림 76 오리엔스 베드룸세트

2.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사례 : 소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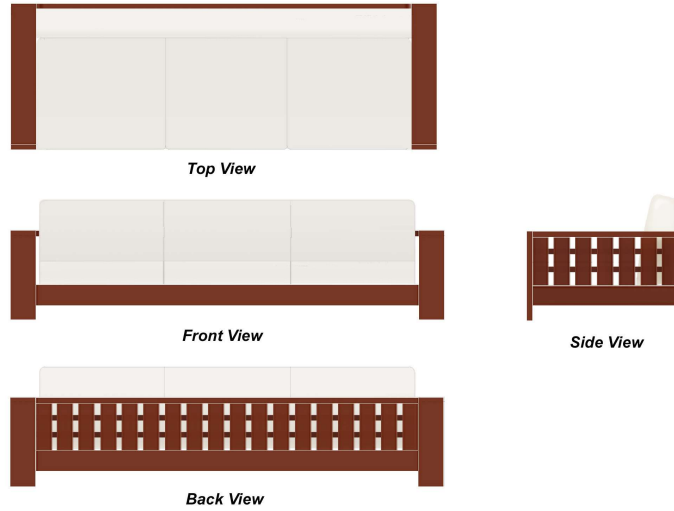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발기간이 짧거나, 개발목적이 스타일 변화에 있을 때에는 조선조 가구 DB의 유형자료나 세부자료, 활용자료 중 형태, 미학적 디자인 요소 검색을 통해 시각적 모티브를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다. 다음은 조선조 가구DB의 시각적 모티프(motif)들을 반영, 소파디자인에 적용한 개발사례를 살펴보겠다.

해석단계(Visual Identity): 40평형 이상 아파트에서 사용되고, 동양적 이미지가 담긴 소파디자인 개발하는 첫 단계로서, DB의 일반정보검색을 통해 동양적 이미지를 조사하는 가운데서 좌대와 다리를 통해 기존 서양이미지의 소파와 차별을 가져오기로 정하고, 활용자료검색 중에서 다리의 유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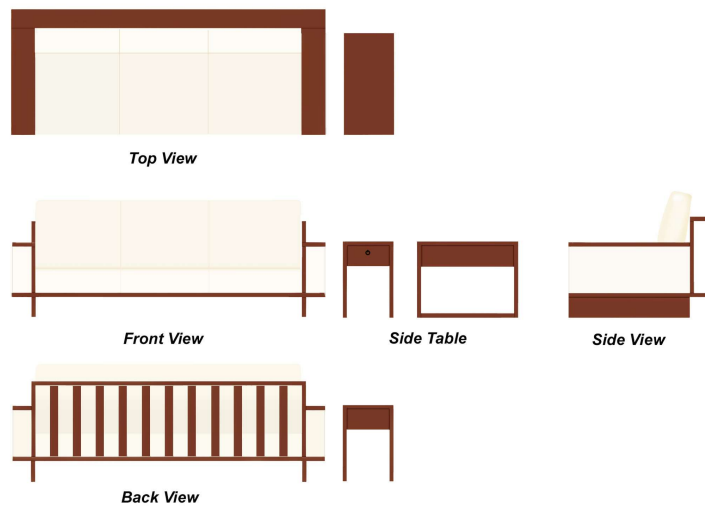


검색된 다리유형을 모티프로 삼아 컨셉에 부합되는 다양한 스케치들을 도출하였다.

1. 40py - Sofa Design



2. 40py - Sofa Design



3. 40py - Sofa Design



전환단계(Formalization), 적용단계(Production): 본 소파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디자인안 평가를 통해 결정된 최종안을 입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가 진행될 것이다.

3.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사례 : 베루스 침대 및 수납장 개발

다음은 역시 3단계 개발 사례로 활용자료DB 중에서 미단리와 공간의 복합적 사용이란 물리적 기능으로부터 재해석한 디자인 요소를 현대 가구 디자인 과정에 적용, 개발한 사례이다.

해석단계(Visual Identity): 조선조 가구는 자연환경 및 주거공간 구성조건으로 인하여 수납가구가 발달하였는데 특히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물건이나 의류를 수납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의 개폐방식 및 공간의 중층사용이 돋보인다. 베루스 수납장개발에는 조선조 가구의 미단이 개폐방식과 내부공간의 중층적 사용이란 디자인 요소와 절제되고 명쾌한 면의



그림 83 반닫이 내부



그림 82 책탁자장

분할을 모티프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였다.

전환단계(Formalization), 적용단계(Production): 평가를 통해 결정된 최종안을 입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가 진행되었으며, 판매과정의 피드백을 통하여 개선사항이 다음의 디자인 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베루스제품사진



조선조 가구의 공간의 중첩 및 미단이 방식을 활용한 수납장

머리병풍을 활용한 침대헤드



그림 84 베루스 베드룸세트

제 1 절 연구의 성과

본 연구는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디자인과 DB구축이란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더 나아가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DB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조선조 가구를 현대적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다.

조선조 가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조선조 가구에 대한 다양한 학술활동의 결과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가구산업의 자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가구를 사용자의 행위패턴에 따라, A. Put things in, B. Put things in & on, C. Put things on, C. Seating, D. Reclining, E. Lying, F. Dividing, G. Lighting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조선조 가구가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조선조가구를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가구와 비교하여 한국가구의 정체성을 밝히는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 분석된 자료들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선조 가구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모델 및 단계별 지침을 제안하였다.

디자인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해--규명--해석--전환--적용이라는 5단계 사용자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모델과 각 단계별 지침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은 한국전통가구의 모티프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가치나 생활양식의 인텔러블요소 까지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창조적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이다. 특히 3단계, 5단계로 나누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로서 산업체의 제품개발 목적, 예산, 일정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효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셋째, 조선조 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 실무에 직접 활용되는 디자인요소로 자원화 하였다.

흩어져 있는 조선조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집대성하고 오늘날 주도적 디자인 방법인 사용자중심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관점으로 재해석하여, 물리적 디자인요소, 형태.미학적 디자인요소, 표식적 디자인요소, 상징적 디자인요소로 분류, 분석하여 조선조 가구의 디자인요소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넷째, 조선조 가구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하여 문화자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정보를 공급하고, 디자인 활용도를 높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데이터 베이스로 개발하여, 학계나 산업계에서 쉽고, 빠르고, 선택적으로 연구의 성과가 활용되게 하였다.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는 일반정보검색, 세부요소검색, 활용자료검색 등의 검색부분과 활용사례, 용어검색 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검색 부분의 첫 번째 게이트(gate)인 일반정보검색은 조선조 가구를 사용자의 행위패턴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아이템별로 시대, 크기 및 소장사항 등의 일반 정보에서부터 문양, 금구장식, 재료, 마감, 구조 등의 세부요소정보와, 물리적, 형태미학적, 표식적, 상징적 요소 등의 활용정보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구성된 본 DB의 메인 검색 게이트이다. 두 번째 게이트인 세부요소 검색은 디자이너가 한국적 이미지를 가구디자인에 표현하고자 할 때 그 구체적인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검색, 아이디어를 가시화 할 때 유용한 게이트로 조선조 가구의 세부요소를 문양, 금구장식, 재료, 마감, 구조 등으로 분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세 번째 게이트인 활용자료검색은 조선조 가구의 디자인요소를 사용자중심, 문화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형태미학적, 표식적, 상징적 디자인요소의 틀로 분류, 분석하여 정리한 DB로 조선조 가구의 문화적 활용가치를 풍부하게 재해석하였으며, 조선조 가구의 내재된 정신적 요소를 현대가구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이트이다.

다섯째, 조선조 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례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응용방법을 제안하였다.

조선조 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모델에 적용하여 가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개발목적에 따라 해석--전환--적용이란 3단계와 이해--규명--해석--전환--적용의 5단계로 프로세스로 나뉘어 응용된, 베루스 수납장 및 소파 디자인, 오리엔스 침대세트 디자인사례는 본 연구의 결과들을 활용하는 디자인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조선조 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개발에 적용하는 가시적 지침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교육계 및 디자인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기대된다.

첫째, 21세기의 주도적 디자인 흐름인 문화적 관점의 디자인접근방법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 활용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교육에 실제적인 교재 및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들이 다시 조선조가구의 DB중 활용사례로 피드백 되어 DB의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결과를 초

래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한국가구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가구 관련업체에 전통가구의 폭넓고 체계적인 지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근원지 역할 수행하며 그 결과 개발프로세스를 단축시키며, 디자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실무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기대된다.

셋째, 조선조 가구에 내재된 텐저블요소 및 가치와 생활양식 등의 인텐저블 요소 까지도 재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 및 이러한 관점에 의한 구체적인 디자인요소까지 DB로 구축함으로써 한국적 디자인정체성 추구에 기여한다.

넷째, 총괄 관련연구 DB 사이트 개설을 통하여, 외국의 산업계 및 디자인계에 한국전통가구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식을 교류하는 창구의 역할 가능하며, DB의 정보 아이디어의 공유를 통한 양방의 또는 다각적인 협력에 의한 디자인 및 제품개발의 가능성과 및 국제교류, 계몽의 장으로 발돋움이 기대된다.

제 2 절 향후 연구 방향 제안

이상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으로써 본 연구를 맺음하고자 한다.

1. 차후의 연구개발에는 디자인을 전개함에 있어 DB의 활용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Tool)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조선조 가구의 현대적 활용DB는 조선조가구라는 한국의 전통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겠다. 여기에 이러한 구체적 자료들을 디자이너가 바로 대입할 수 있는 3차원적인 도구개발이 다음단계로 이어진다면, DB의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아이디어의 개발 및 디자인의 전개과정 등 디자인 프로세스와 맞물린 응용 DB 개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현대적 활용 디자인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하여 각 단계에 맞는 자료를 찾고 이를 자유롭게 적용, 변형, 배치 등을 실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렌더링 및 재질표현, 색감변화, 실내배치, 스케일링, 모델링 등이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3. 계몽적 차원의 산업체 브랜드창출과 교육을 통한 DB 활용 및 사례디자인 전개, 아이디어의 개발에 관한 연구물을 통한 교류와 사이버 전시 등 한국적 가구디자인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한다.

한국적 가구디자인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것이 국가적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계의 다각적 노력이 어우러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통합될 때 그 파장효과는 크고, 지속력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산업체의 브랜드창출과 교육을 통한 DB 활용과 사례디자인, 아이디어의 개발에 관한 발전 및 연구물의 사이버 전시와 교류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브랜드 창출은 한국전통문화에 내재된 텐져블요소 및 가치와 생활양식 등의 인텔져블 요소들을 반영한 디자인개발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국적 디자인 정체성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실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가토 슈이치, 『일본문화의 숨은 형』, 김진만 역, 한림신서 1995
- 강영환 『한국 주거 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6
- 강희수, 『조선조 가구중 농에 나타난 의장요소의 분석』, 이화여대석사 논문, 1998
- 권삼윤, 『우리 건축, 틈으로 본다』, 대한 교과서, 1999
- 김병기,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화의 길』,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995
-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1994
- 김삼대자, 『한국의 전통 목가구Ⅲ,Ⅳ』, 고미술29,30, 1991
- 김혜은, 『현대 실내 공간에서의 한국 전통 가구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논문, 1987
- 나선화, 『소반』, 대원사, 1989
- 다다 미치다로, 『생활 속의 일본문화』, 한림신서 1996
- 稻葉和也, 中山繁信 공저, <日本人の すまい(일본인의 주거)>
- 류경수,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대원사, 1998
- 무박, 『전통의 본질- 중국 전통 건축의 13가지 특성』, 건축문화116, 1990
- 미셸 뷔르틀리, 『중국의 가구와 실내장식』, 김삼대자 역, 도암 기획, 1996
- 박경희 엮음,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9
-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삼성 출판사, 1982
- 박영규, 『한국의 목공예』, 1997
-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 박희란, 『조선시대 목가구의 금속장식미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 논문, 1998
- 배만실, 『이조 목공가구의 미』, 보성 문화사, 1978
- 배만실,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이대 출판부, 1988
- 西 和夫 외, 『일본 건축사』, 이무희, 진경돈 공역, 세진사, 1999
- 손세관, 『북경의 주택』, 열화당 미술문고, 1995
- 신영동, 『우리 문화 이웃 문화』, 문학 수첩
- 신용철 외, 『한국문화와 동양세계』, 한울, 1998
- 쓰다 소키치, 『중국사상과 일본사상』, 남기학 역, 소화, 1998
- 앤드류 보이드, 『중국의1 건축과 도시』, 이기준 역, 기문당, 1987
- 윤장섭 편저, 『한국건축사론』, 기문당, 1994
- 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상노, 『동서문화의 특색과 한국 문화의 진로』, 염수, 1983
- 이어령, 『한국인의 손, 한국인의 마음』, 디자인 하우스, 1994
- 이영진, 『한국 건축 전통성의 현대적인 계승과 수용』, 서울대학 석사 논문, 1989
- 이용기, 『목조건축물과 가구의 구조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 석사 논문, 1995
- 이종석 외, 『한국의 미-목칠공예』, 중앙일보사, 1985
- 이종석,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1994

이중우, 『주공간 구성의 상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 학회 논문집
이지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에 의한 환경디자인』, 이화여대 석사 논문, 1998
임영주 외, 『종이공예 문화』, 대원사, 1989
조성렬 외, 『한국의 전통 공간과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존 K 페어뱅크, 『동양 문화사』, 조유 문화사, 1995
존 카터 코벨,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학고재, 1999
주거문화 연구회, 『주거.문화.디자인』, 신광출판사, 1994
채수명, 『디자인 마아케팅』, 국제, 1997
최성자, 『한국의 미 - 선/면/색』, 지식산업사, 1993
태전박태랑, 『일본건축사』, 박언곤 역, 발언, 1994

Arthur drexler, 『the Architecture of Japan』,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Asian Art』, Oxford, 1991
Grace Wu Bruce, 『Chinese Classical Furni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Kodansa, 1986
Melvin J. Wachowick, Jr.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chinese furniture
Asian Art Vol. IV, No. 3』, 1991
Nancy Berliner, 『Beyond the Screen-Chinese furniture of the 16th & 17th
Centuries』, Museum of Fine Arts, Boston
Robert D. Jacobsen with Nicholas Grindley, 『Connoisseurship of Chinese
Furniture』, Art Media Resources, 1990 『Classical Chinese Furniture』, Art
Media Resources, 1999 Edward S. Morse, 『Japanese Home and Their
Surroundings』
Sarah Handler, 『The revolution in chinese furniture-Moving from mat to chai
r』, Asian Art Vol. IV, No. 3, 1991
Wang Shixiang and Curtis Evarts, 『Classical and Vernacular Chinese furniture
In The Living Environment』, 1998

www.chinese-furniture.com